청양인의 人生의례

임장혁 · 정형호 · 서종원 공저



青陽文化院

청양인의 人生 의례

임장혁 · 정형호 · 서종원 공저

靑陽文化院

■발 간 사■



청양문화원장 **임 호 빈**

인간의 생과 사는 삶의 시작이고 마지막이기에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손이 번성하여 집안이 존속되어 대가 이어지기를 기대하였기에, 우리의 어머니나 할머니는 산에 가서 자손보기를 기원하였습니다. 한편 우리는 생을 마감하는 것을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돌아가셨다"말은 생 이전의 세계로 돌아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일까?" 하는 물음에 때로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청양의 대표적인 칠갑산은 군민들의 마음속에서 자리 잡은 자연의 원천이며 신앙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칠갑산을 배경으로 마을의 터전을 잡고 산에서 흘러 내려오는 물은 식수와 농사에 활용하였기에 토박이 청양인에게 칠갑산은 자연히 신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또한 칠갑산은 자식을 바라는 기자신앙(祈子神仰)의 대상이 되었고 죽으면 산으로 돌아가는 곳으로 여겨왔습니다. 청양인에게 칠갑산

청양인의 人生의례

은 마음의 고향이며 삶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청양인의 일생의례』는 청양 토박이들이 태어나서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의 과정에서 행하였던 통과의례를 정리하고 새롭게 인식하자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고령화되어가는 현실에서 지난 과거는 기억의 한 단편이고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온 생활사는 청양인의 인생사이자 역사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 싶은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문화원은 청양인이 출산으로 시작한 삶을 비롯하여 성장과 결혼을 거쳐 생을 마감할 때까지의 의례와 신앙을 이번 출판하는 책으로 정리해보고자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자신의 인생을 더듬어보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본서가 출판하는데 수고하신 교수님과 조사에 협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서 문■

청양의 인생의례를 정리하며.....

중앙대학교 교수 **임 장 혁**

인간은 태어나 생을 마감하기까지 인생의 중요한 마디에 의례를 합니다. 이를 통과의례라 하는데, 우리조상은 이를 관혼상제(冠婚喪祭)라 하였으나 출산과 탄생에 관한 의례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미성년기의 의례는 사회인으로 인정되지 않았기에 포함시지지 않았던 듯합니다. 한편 산모는 출산이 여성으로 자각하는 인생의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연구는 출산부터 성년식 · 혼례 · 장례 등의 의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청양군은 칠갑산의 산줄기가 가로지르고 있으며 근대화와 도시화에 의해 전통문화가 현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혼상제도 영향을 받아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

청양인의 人生의례

고 있습니다. 이번 발행하는 도서는 청양의 전통적인 통과의례가 어떻게 행하였고 타 지역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현대에 있어선 변화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조사연구는 청양문화원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호빈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도서가 청양군민에게 유익한 도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청양인의 人生의례

▮ 발간사 ▮

▮ 서 문 ▮

청양의 인생의례를 정리하며……

목 차

산모가 여성으로 자각하고 새 생명을 삶의 세계로 인도하는 산속(産俗) / 서종원 … 011

1. 산속의 개념 …… 013
2. 청양의 산전의례(産前儀禮) …… 020
3. 청양의 산후의례(産後儀禮) …… 040
4. 산속과 관련된 민요 …… 060
5. 다른 지역의 사례 …… 064
6. 청양 지역 산속의 특징과 활용방안 …… 088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성년식 / 임장혁 …… 107

1. 성년식의 의미 …… 109
2. 주자가례에 의한 관례 …… 111
3. 민중의 성년식 …… 117
4. 현대사회의 성인식 …… 122

남녀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혼례 / 임장혁 …… 125

1. 혼례의 의미 …… 127
2.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 …… 129
3. 청양의 혼례 …… 130
4. 타 지역과 전통혼례의 비교 …… 142
5. 근대화이후 결혼식의 변화 …… 145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상례 / 정형호 …… 151

1. 머리말 …… 153
2. 청양의 전통적 상례 …… 157
3. 청양 상례의 현대적 변화 양상 …… 192
4. 상례의 의미와 인식체계 …… 207
5. 상례문화의 현대적 전승방안 …… 233

산모가 여성으로 자각하고 새 생명을 삶의 세계로 인도하는 산속(産俗)

서 종 원(도봉학연구소 부소장)









| 차 례 |

1. 산속의 개념

2. 청양의 산전의례(産前儀禮)

1) 기자 신앙
2) 태몽과 태교
3) 임신 중의 금기 사항
4) 산전 음식과 관련된 금기어
5) 출산 준비

3. 청양의 산후의례(産後儀禮)

1) 출산 과정
2) 태 처리와 금줄 치기
3) 작명
4) 몸조리와 모유
5) 아이의 관리
6) 산후 금기
7) 백일과 돌

4. 산속과 관련된 민요

5. 다른 지역의 사례

1) 충청남도 부여군
2) 충청북도 옥천군
3) 인천광역시 강화도

6. 청양 지역 산속의 특징과 활용방안

1) 특징
2) 활용방안

산모가 여성으로 자각하고 새 생명을 삶의 세계로 인도하는 산속(産俗)

1. 산속의 개념

산속(産俗)이란 아이를 잉태하기를 비는 데서부터 아이가 태어나 만일년(滿一年)이 되는 돌날까지의 과정에 있는 여러 기원(祈願), 금기행사(禁忌行事), 의례(儀禮), 주술(呪術) 등을 포괄하는 민속(民俗)을 말한다. 산속(産俗)은 돌까지의 초기(初期) 육아(育兒)도 포함되기 때문에 산육속(産育俗)이라 부르는 일도 있다.[1] 사전에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행하는 일련의 의례행위라 명시되었다. 그리고 넓은 의미의 산속은 아이를 갖기 위해 행하는 기자의례부터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행하는 모든 의례를 지칭한다. 이러한 산속은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의례가 포함되는데, 산전의례(産前儀禮)와 산후의례(産後儀禮)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2]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

산속을 연구해온 홍순례는 산속(産俗)이란 여성이 임부(姙婦)가 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아기를 출산한 이후 금기(禁忌)까지

---

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편, 산속』, 1994, 서언.

2)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진도문화대전)

의 민속이고, 기자속(祈子俗)은 출생의례(出産儀禮)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의례로 결혼한 부인이 아이를 잉태하지 못했거나 아이를 잉태하기 위한 방법을 간구(懇求)하는 민속이라 정의하고 있다.[3]

산속이라는 용어를 출산의례로 표현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말하는 출산의례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탄생한 것을 계기로 하는 의례를 가리킨다. 출생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 이 용어에는 태어난 아기의 입장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이와 달리 산속이라는 말에는 출산과 관련되어 비제도적인 측면을 강조한 속(俗)이란 글자인 셈이다.[4]



그림 1.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신생아

일생의례 혹은 통과의례, 관혼상제와 관련된 의례 과정에서 보면 산속이라는 부분은 그리 중요한 내용이 아닌 듯하다. 그 이유를 특히 관혼상제라는 용어에서 찾을 수 있는데, 관은 관례, 혼은 혼례, 상은 상장례(상례), 그리고 제는 제례를 나타내는 반면, 산속 혹은 출생과 관련된 용어를 찾

3) 홍순례 ,「기자신앙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1-2쪽.
4)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민속지-일생의례편-』, 2002, 72쪽.

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5)]

홍순례는 관혼상제에 출산의례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근대 이전까지 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점과 자연적 출생보다 사회적 성원으로서의 출생이 중시된 점을 언급하였다. 하지만 넓은 뜻으로 보면 사회적 성원이 되는 남녀가 관례를 치루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백일, 돌 등 유아기를 거치면서 성인이 되는 다양한 절차와 과정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산속은 광의의 관례 속에 포함할 수 있으며, 갓난아기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가족, 일가친척, 이웃 등의 따뜻한 사랑과 건강한 보살핌이 전제되는 것이다. 홍순례는 그러한 부분을 고려해 볼 때 산속은 성인의례의 전행 단계로 볼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첫째, 산속은 아기를 잉태하기 위한 과정에서부터 아기를 낳아 기를 때까지 모든 제의가 여성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민속의 영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게 만드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주된 역할과 기능상 담당 층이 여성이라는 이러한 요건들은 여성들의 심리상태와 의식이 이러한 제의요소에 어떻게 반영되면서 신앙이 형성 · 전개되었는가의 문제를 살펴보아야 한다.

---

5)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발간한『한국 전통사회의 관혼상제』(정신문화문고5)에도 산속(출생의례)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다.

둘째, 산속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들이 문헌에 기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습속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료수집상 대상과 지역성, 항목 등이 중요한 관건을 이룬다. 이러한 자료를 중심으로 유형분류와 사상이 분석되며, 아울러 고대 제의의 잔존형태가 오늘날 기자신앙에 끼친 영향을 고려할 때 기자신앙의 형성 및 전승과정과 시대성등도 함께 밝혀질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산속은 건강한 아기를 잉태하고 또한 정상적으로 출산하기 바라며, 출산하는 과정은 여성만의 숙명이 아닌, 한 인간의 '세상보기'에 남녀 모두가 참여하고 사회가 염원하는 신성한 통과의례로 파악되어야 한다.[6)]

이러한 산속은 특정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산속의 과정에서 태어나고 또 산속 속에서 자식을 낳고 길렀기 때문에 만인에 해당되는 일이었다. 따라서 산속 속에는 민족정서의 원초성(原初性)이 잘 나타나 있다. 잉태를 생리적(生理的)으로 해석하는 의학이나 과학에서는 금기(禁忌), 기원祈願), 주술(呪術), 근신(謹愼), 자제(自制) 등은 부질없는 일이라고 하겠지만, 우리는 과학 이전에 인간적(人間的) 정서(情緖) 또는 민족적(民族的) 정서(情緖)가 있었으니 산속에서 여실히 나타난다.[7)]

앞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속은 출산 전후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출산 전에는 남녀의 생물학적, 사회문화적 결합이 선행된다. 여기서 생물학적 결합은 단지 성관계를 통해

6) 홍순례, 「기자신앙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2-4쪽.
7)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편, 산속』, 1994, 서언.

서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며, 사회문화적 결합은 남녀의 가족, 친척, 친우 등이 참석하는 혼례식을 거친 경우를 가리킨다. 전통사적으로 혼례식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자녀의 출산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 출생신고만으로도 아기의 사회적 인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혼인 이후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이루어져야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는다.[8)]

정확하게 언제부터 산속이 행해졌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지만 그러한 흔적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삼국유사』에 수록된 단군신화이다.

"곰과 호랑이는 한 굴에서 살았는데 늘 신웅神雄)에게 빌어 사람 되기를 원했다. 신웅이 쑥 한 줌과마늘 이십(二十)개를 주고 이것을 먹고 백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말고 빌면 사람이 되리라고했다. 곰과 범이 그것을 먹고 삼칠(三七)일 동안 금기 하니 곰은 여자가 되었으나 호랑이는참지를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이 여자로 되었으나 혼인 할 사람이 없어 항상 신단(神壇) 나무 밑에서 잉태하기를 빌고 원했다. 그래서 환웅(桓雄)이 거짓변하여 혼인 하여 아들을 낳으니 곧 단군이다."

이 단군신화에서 산전의 기자신앙을 엿볼 수 있다. 즉 잉태하기를 원해서 늘 단수(壇樹) 밑에서 빌었다는 것이다. 단수는 신

8) 경기도박물관,『경기도민속지-일생의례편-』, 2002, 73쪽.

단에 있는 나무로 생각된다. 신을 섬기기 위해서 단이 만들어졌고 단 근처에 큰 나무가 있거나 또는 큰 나무 밑에 단이 설치되는 것은 민간신앙(民間信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니 단과 수목의 복합은 이미 단군시대에 형성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단수壇樹)는 신목(神木)이다. 신목(神木)은 그 자체가 신체(神體)이거나 신이 노 수(老樹)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생각하여 수목신앙(樹木信仰)의 현상이다. 잉태하기를 단수밑에서 빌었으니 단수는 인간에 생명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있었다. 즉 기자祈子)의 장소가 단수하(壇樹下)였음을 알 수 있다. 단수(壇樹)는 지금도 신수(神樹)로 신앙되어 함부로 베지 않고 오염 시키지 않고 고사를 지내거나 제사할 때에 금줄을 치고 황토를놓아 그 신성성(神聖性)이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9)]

단군신화에 보이는 이러한 내용의 속신, 다시 말하자면 전통적인 속신[주술성이 강한] 가운데 일부는 간헐적으로나마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세상에 태어날 아기에게



그림 2. 산속과 관련된 기자바위

9)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25편, 산속』, 1994, 서언.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도 그렇지만 아이를 가진 산모 역시 각별히 신경 쓸 부분이 많은 것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다만 근대 서구에서 과학과 의학이라는 개념이 도입되면서 전통적인 속신은 많은 변화를 겪어야만 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신'의 개념이 널리 퍼지면서 주술성이 강했던 속신의 개념과 의미 등이 점차 비과학적인 것으로 치부된 것이다.[10] 특히 근대 무렵에 과학적 사고 내지 개념이 등장하면서 아이를 갖기 위해 석장승의 코를 떼어 먹거나 신주를 먹는 행위가 모두 미신으로 치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11]

개인적으로 최첨단 의학의 등장은 산속이라는 용어 대신 출생의례라는 명칭을 많이 사용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술적인 부분에 의지하지 않아도 최첨단 의학시스템과 기구로 주술적인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령 예전에는 태아의 성별을 구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지

10) 근대의 합리화란 우리의 삶에 이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성의 활용은 다시 두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는 이성적 인식으로 주술적, 신비적 측면으로부터 탈피하여 생활을 합리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질병을 마귀나 원혼 등의 소행으로 단정하고 기도나 굿을 하던 것에서 벗어나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둘째는 이성적 계산으로 최소의 노력(고통)으로 최대의 효과(쾌락, 행복)를 얻고자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근대적 효율성의 관념이다. 근대적 효율성의 관념은 두 측면에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하나는 과학 기술에 의해 뒷받침되는 상공업 중심의 사회를 초래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기존의 명분론적 사고방식을 비능률적인 것으로 단죄하고 경쟁의 체계로 사회를 재편하는 것이다(이상익,「한국 사사상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흥」,『한국사회와 철학』, 사회와 철학연구회, 2001, 12-13쪽).

11) 서종원,「근대적 사고를 통해 본 일생의례의 변화양상 고찰」,『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 2013, 56쪽.

금은 초음파를 통해 일정 기간이 되면 아이의 성별을 쉽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러한 내용은 비단 아이의 성별을 구별하는 데에서만 확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산모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았으나 오늘날에는 그러한 사건과 사고가 예전에 비해 훨씬 줄었다는 것도 산속의례가 이전에 비해 퇴색된 이유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모습은 금번 조사 지역인 청양 지역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었다. 산부인과가 생겨나고 최첨단 의학이 도입되면서 출산 과정에서 위험한 일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다.

2. 청양의 산전의례(産前儀禮)

1) 기자 신앙

출산 전에 이루어지는 중요한 의례로 임신을 바라는 각종 속신과 금기 등이 있다.[12] 이것을 일반적으로 '기자행위(祈子行爲)' 혹은 '기자신앙'이라고 한다. 행위는 무언가의 움직임을 이야기 한다면 '신앙'이라는 용어는 주술적인 측면이 보다 강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몇 가지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광규의 『한국인의 일생』을 참고 하면 다음과 같다.

12) 경기도박물관, 『경기도민속지-일생의례편-』, 2002, 73-74쪽.

기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이것을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치성을 올리는 사라에 따라 부인 혼자 치성을 드리는 것과 부인 이외에 남편 또는 시어머니나 친청어머니 등이 동반하며 여럿이 치성을 올리는 것 등이 있다. 또 기자의 일수(日數)에 따라 수시로 행하는 것과 날을 정하여 행하는 것이 있고 정일(定日)에 행하는 치성은 삼일기도(三日祈禱), 칠일기도(七日祈禱), 백일기도(百日祈禱)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른 하나의 분류로는 장소에 따른 분류가 있다. 산에서 지내는 것을 산 치성, 절에서 지내는 것을 절 치성, 그리고 집에서 지내는 집치성이 있다.[13)]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보면 이 시기까지만 하더라도 기자신앙이 널리 행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많은 자손(아들)이 기운을 증진하는 것으로 믿고 있는 조선에는 기자풍습이 꽤 성행하고 있어서 시집와서 1,2년이 되어도 자식(아들)이 없는 부인은 반드시 아들을 얻고자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집안에 모시는 산신(産神)에게 기원하고 아이를 많이 낳은 사람 속옷을 받아 허리에 두른다거나 하는 주술을 하여도 효과가 없을 때에는 산사의 부처라는가 석불이라든가, 산중의 거석이라든가 거목, 큰 못 등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방법은 절이라면 스님이 대신 기도를 드려주지만 석불이나 거석 등에 기원할 경우에는 적당한 자갈로 부처님의 좌석이나 거석의 복부를 갈아 그것

13)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형성출판사, 1985, 40-41쪽(경기도박물관,『경기민속지-일생의례편)』, 2002, 73쪽 재인용).

이 딱 들어맞았을 때 성심이 통하여 소원이 닿았다고 미는 것이 일반적이고 거목이나 큰못 등의 경우에는 공물을 바치고 몇 시간 묵도합니다.[14)]

삼신은 자손의 출산을 맡아서 하는 가택신으로 심신할아버지라 하며 남신(男神)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주로 삼신할머니라 하여 여신(女神)으로 많이 불러진다. 임신을 못하는 여인에게 임신을 할 수 있게 해주어 출산하게 하고 아이의 성장 등도 삼신의 힘에 의한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옛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은 아기를 얻기 위해서 사찰이나 큰 바위 서낭당 등에 기원하기도 하였고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기도 하여 삼신할머니께 아기를 점지해 달라고 정성을 다하여 빌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예부터 아들을 낳지 못하여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칠거지악(七去之惡)의 하나로 소박의 요인이 되기도 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은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백일기도를 올리거나 정화수를 떠다 놓고 기원했다. 삼신은 자식이 많고 적음이나 있고 없음을 관장하기도 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9세까지는 이 삼신할머니가 지켜준다고 믿어왔다. 아이를 낳으면 엉덩이에 퍼렇게 보이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삼신할머니가 아이를 빨리 나가라고 때려서 생긴 것이라 하여 이것이 완

14) 장두식·김영순 옮김, 『조선의 습속(조선총독부편)』, 민속원, 2013, 72쪽.

전히 없어지려면 삼신할머니가 돌보아 주는 시기가 끝나면 9세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 자랄 때 마루나 높은 곳에서 떨어져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삼신할머니가 받아 주어서 다치지 않았다고도 한다. 삼신을 모시는 방법은 단지에 깨끗한 쌀을 넣어 봉하고 봉한 부분을 왼새끼로 묶어 부녀자들이 기거하는 안방 선반위에 모셔두기도 하고 무당집에서 조화를 얻어다가 끈을 매어 안방 문을 열면 마주 보이지 않는 구석에 높이 매달아 놓고 때때로 치성을 드린다. 특히 삼신을 모시는 곳은 부정(不淨)이 없는 곳을 골라 모셔야 한다. 출산 후에 부정이 들면 삼신이 대노하여 산아(産兒)의 평생을 불길하게 해준다하여 부정을 막기 위해 금줄을 대문 앞에 늘여 출산한 가정임을 알리고 삼칠일(3주간) 동안 부정물의 왕래와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가장 큰 부정으로는 인근에 화재(火災) 또는 인근의 상고 가축 기타 동물의 살생 등으로 가장 꺼려하는 부정이다. 보통 출산 후에는 아기 머리맡에 깨끗한 짚을 깔고 미역국과 시래기 없는 쌀로 밥을 지어 떠 놓고 아이가 잘 크게 해달라고 기원하는데 대체로 안방의 문 앞 아랫목에 놓는다. 그리고 출산 후 3일, 7일, 14일에는 삼신 앞에 깨끗한 짚을 깔고 쌀밥과 미역국을 놓고 아기의 무병성장과 다복 장수함을 기원한다. 또 백일잔치나 돌잔치 때

에는 쌀밥과 미역국을 미리 떠다 놓고 축원한다.[15)]

기자신앙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청양의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개별 지역에 처한 상황에 따라 기원을 드리는 대상이나 신체가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앞서 가까운 절이 있을 경우에는 절을 찾아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빌었으며 산신바위 혹은 기자바위가 있는 지역에서는 그곳을 찾았다. 물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도 대상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산부인과가 생겨나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청양 지역의 기자신앙은 이전과 다른 형태로 변화를 맞이한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산신을 믿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16)]

금번 조사 과정에서 기자신앙이 청양의 여러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음을



그림 3.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비는 신앙처 (대치면 대치리)

15) 청양문화원, 『청양의 민속』, 1973, 43-44쪽.

16) 주영하의 조사에 따르면 기자를 위한 치성행위는 1940년대에서 1990년대로 올수록 근대화과정에서 치성이 미신으로 몰리고 근대학교 교육의 역할이 증가하고 주거 공간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전하면서 산치성이나 집 치성이 표현되는 공간이 상실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1960년대 출산한 여성들이 아들을 얻기 위해 부적 착용 등을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와 연결시켜보면 이미 1940년대부터 기자의례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주영하,「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화 : 1940-1990」, 『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편, 2013, 89쪽).

확인할 수가 있었다. 대치면 대치리에는 마을 뒤에 기자바위 혹은 치성바위라고 불리는 것이 있어 아이를 갖지 못하거나 혹은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치성을 드렸다[17] 고 한다. 읍내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별도로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은 절을 찾거나 마을에 있는 기자바위를 찾아 아이를 점지해달라고 기원을 하였다.

못 낳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요. 애 못난 사람들이 그런데 가서 빌기도 했죠. 남자를 선호하다보니 딸 많은 집에서는 아들 낳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그리고 예전에는 아이를 못 낳으면 시어머니를 비롯해 시댁 사람들이 구박이 심했어요.[18]

한편, 아들을 기원하기 위해, 아들 없는 사람의 속옷을 훔치거나, 수탉의 성기를 삶아 먹었다. 그리고 남의 집 작두를 받치는 것을 훔치거나, 다른 집의 금줄을 훔쳐서 매달린 고추를 삶아 먹기도 한다. 또한 장독대에서 정화수를 떠 놓고 비는 이들이 있었다.[19]

---

17) 2020.10.12. 조사.

18) 2020.10.11. 조사.

19) 청양문화원, 『청양의 길조어, 금기어』, 2004, 43쪽.

2) 태몽과 태교

청양 지역 역시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태몽과 관련된 풍속이 전해져 온다. 태몽은 보통 아이의 성별을 점치거나 확인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다만 반드시 태몽을 꾸는 것도 아니고 주변의 친척을 비롯해 다양한 사람들이 대신 꾸기도 한다.

조사 과정에서 만난 송○자(여)[20]와 그의 큰 며느리는 임신을 하는 과정에서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큰 며느리의 경우에는 두 명의 자식을 두었는데 이들을 낳는 과정에서 모두 자신이 직접 태몽을 꾸었다고 한다. 그녀의 태몽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나는 꿈을 잘 꾸는 편이어요. 첫아이는 남편이랑 둘이서 바닷가에 있는데 햇볕이 바다에 비추는데 한 편의 영화 같아서요. 파란 바다에 비추는 햇빛이 무척 좋았는데 그 빛이 무척 각별해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꾼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산에 있는데 동자가 오더니 무언가를 주고 가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 인삼인데 그 꿈을 꿀 때만해도 인삼도 모르고 인삼 열매(꽃) 모르는데 인삼에 꽃이 달려 있는 거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라고 말 하면서 그걸 두 뿌리를 주는 거예요. 그걸 들고 가다가 삼신할머니를 만났는데 바닥을 보니 진흙으로 되어 있어요. 걸어갈 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할머니가 여기저기를 밟으라고 알려주어요. 그래서 밟았더니 신기하게 발에 흙이 묻지 않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날라서

20) 송○자씨는 큰 아들만 태몽을 꾸었다. 들판에 나가서 보니 벼가 누렇게 익어 허리를 구부리고 있는데 자신은 그 풍경만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꿈이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아들만 바라보고 있어도 그냥 좋다고 한다.(2020.10.10)

온 거예요. 그곳을 가니 감을 줘요. 그걸 받은 거죠.[21)]

태몽의 경우는 반드시 꾸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 아이의 성별을 결정짓기도 한다. 꿈에는 다양한 대상이 등장한다. 다만 성별을 결정짓는 것에 대한 의견은 개인마다 차이를 보인다. 기존에 조사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꿈에 나타나는 밤[栗]은 해석이 아들과 딸로 양분된다. 6인이 아들로, 6인이 딸로 답했다. 각각 경험담도 1회씩 동등하다. 특히 치마에 밤을 안고 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는 경험담이 있다. 반면 밤송이 5개가 주렁주렁 달린 꿈을 꾸고 5명의 딸을 연달아 낳았다는 경험담이 있고, 딱 벌어진 밤이나 가시가 있는 밤 송아리는 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냥 알밤이 딸이라는 견해도 2곳에서 나타난다. 한편 구분해서 알밤은 아들이고, 딱 벌어진 밤송이는 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꿈에 호도를 보아도 견해가 나뉜다. 시퍼런 호도를 보거나, 주어서 끓여 먹으면 딸이고, 반면 익은 호두를 먹거나, 주어먹는 경우에는 아들로 인식했다. 꿈에 (누런)복숭아는 아들로 인식했다. 대추가 나와도 전체적으로 아들이라는 데에 동일하다. 반면 감이 나타나면 딸이다. 벌어진 감을 보거나, 따서 가지고 오거나, 따

21) 송○자씨의 큰며느리, 2020.10.10. 조사.

먹으면 모두 딸로 인식했다. 그 외에 각각 1회에 불과하지만 배는 딸, 모과는 아들로 나타났다.

청양 지역에서 고추는 일반적으로 아들로 인식한다. 그러나 풋고추는 딸이라는 견해가 한 곳에서 나타났다. 호박을 보면 대체로 딸이지만 예외도 있다. 새파란 호박, 애호박을 보거나 호박을 넝쿨 채 걷으면 딸이다. 그러나 호박을 아들이라 보는 견해, 늙은 호박이 아들이라는 견해도 각각 한 곳에서 나온다. 꿈에 뱀이 나타나는 빈도수는 많으며, 대체로 아들로 인식한다. 큰 구렁이나 누런 구렁이, 구렁이의 승천, 혀를 내미는 뱀의 꿈은 아들이다. 누런 뱀이 집안에 나타나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는 경험담도 있다. 그러나 까만 구렁이, 작은 뱀은 딸이라는 견해도 각각 1회씩 나타났다. 용은 아들과 딸로 나뉜다. 빈도수는 2회인데, 용꿈이 아들이라는 견해와, 입을 벌린 용의 꿈을 꾸고 낳은 딸이 혼자가 되었다는 경험담도 있다. 사자, 호랑이는 아들이며, 호랑이 꿈으로 아들을 낳았다는 경험담도 있다. 꿈에 나타나는 물고기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물고기는 아들과 딸로 나뉜다. 다만 구체적으로 우렁이와 송사리는 딸로 보며, 붕어와 잉어는 아들로 본다.

그 외에 딸을 낳는 꿈은 꽃, 조개, 오이, 꽃생이, 얼음, 금반지, 작은 파란 하늘을 보는 경우이다. 아들을 낳는 꿈은 너구

리, 무서운 동물, 금과 은이 나오는 경우, 경험담으로 발가벗은 아들을 비행기 태우는 꿈, 청명주 한 쌍이 나는 모습을 보는 경우에 해당된다. 행동에 따라 태아의 성별을 감별하는 경우도 있다. 임산부를 부를 때나 신발을 신을 때의 방향에 따라 성별을 구별한다. 임산부를 뒤에서 부를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 오른쪽은 딸이다. 또한 신발도 왼쪽부터 신으면 아들, 오른쪽부터 신으면 딸이다. 따라서 왼쪽이 아들이고, 오른쪽이 딸로 나타난다. 임산부의 배를 보아 앞뒤로 볼록하면 아들, 앞쪽만 볼록하면 딸로 여겼다. 배가 소복하면 딸이라는 견해도 있다. 임산부가 콩을 쥐어 개수를 세거나, 부부의 나이를 합쳐서 홀수면 아들, 짝수면 딸이라고 여겼다. 이것은 홀수가 양이고, 짝수가 음이라는 음양의 법칙에 의한 것이다. 임산부가 문살을 나이 수대로 세어 살이 나오면 아들, 종이가 나오면 딸로 여겼다. 문살과 종이의 성격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산월에 집으로 호랑나비가 들어오면 아들, 노랑나비는 딸로 구분한다. 현재 어린 아이가 주걱을 잡거나 둘째손가락을 빨면 여자 동생, 방망이를 잡거나, 엄지손가락을 빨면 남자 동생을 본다고 여겼다. 산월에 임산부의 대문으로 남자가 먼저 들어오면 아들, 여자가 들어오면 딸로 구분하기도 했다.[22] 그리고

22)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 길조어』, 2004, 41-43쪽.

태몽을 남에게 이야기 하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태몽을 꾸더라도 가급적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3) 임신 중의 금기 사항

- 아이가 가졌을 때 다른 이의 악담을 하면 아이가 죽는다.(비봉면 신월리)
- 아이 가졌을 때 도둑질을 하면 아이도 도둑질을 한다.(비봉면 신월리)
- 아이 가졌을 때 방고래를 놓으면 언청이를 낳는다(정산면 서정리)
- 한 집에 두 명이 아이를 낳으면 해산을 함께 해주지 않는다.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낸다.(정산면 서정리)
- 임신 중에 물동이를 이거나 방아 찧는 일을 하지 않는다.(정산면 천장리)
- 임신한 여자가 새끼를 밴 개를 발로 차면 안 좋다.(정산면 천장리)
- 아이를 가졌을 때 똬리를 깔고 앉으면 밑 빠진 자식을 낳는다.(청남면 왕진리)
- 임신 중 빗자룰 깔고 앉으면 안 된다.(청남면 왕진리)
- 임신 중에 찬물로 샤워하면 아이가 눈을 흡뜬다.(청남면 왕진리)
- 임신부가 자주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성질 나쁜 아이를 낳는다.(청양읍 군량리)

- 임산부가 도구대(절구대)에 앉으면 딸을 낳는다.(청양군 군량리)
- 애기 낳고 삼칠일 지나서 목욕해야 한다. 그 이전에 하면 안좋다.(청양읍 군량리)
- 임산부가 목욕을 자구 하며 애한테 안 좋다.(청양읍 군량리)
- 낳은 달이 되면 임산부가 상가집에 가면 안 된다.(청양읍 군량리)
- 낳은 달에 임산부가 개나 동물 잡는 것을 보면 안 된다.(청양읍 군량리)
- 낳은 달에 임산부가 불을 보면 애가 안 좋다.(청양읍 군량리)
- 임신 중에 예식장에 갈 경우 신랑신부가 절을 할 때 보지 말아야 한다. 만약 보면 아이한테 좋지 않다. 다만 제사 때 절을 하는 것은 상관없다. 한 집에서 한 용마루 밑에서 아이를 둘 낳으면 하나가 친다. 위채에서 나면 하나는 아래채나 헛간에 가서 낳는다.(남양면 매곡1리)
- 한집에서 애가 두 명 나면 안 된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실제로 제보자가 임신하고 손 아래 동서가 임신을 나중에 했는데 시아버지가 한 집에서 두 명을 낳으면 안 된다고 당장 분가를 시켰다.(운곡명 위라리)
- 임신 중에 함부로 집수리를 하지 말아야 한다.(운곡면 위라리)
- 임신 중에 불이 난 것을 보지 말아야 한다.(운곡면 위라리)
- 임신 중에는 약을 먹지 않는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쥐구멍을 막으면 난산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문구멍을 막으면 난산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부뚜막을 수리하면 난산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시체를 보면 부정을 탄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소나 말고삐를 넘으면 12달 만에 아이를 낳는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호주머니에 물건을 넣으면 아이가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손버릇이 거칠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절구대나 베개를 깔고 앉으면 아이의 성기가 밉다.(장평면 분향리)
– 임산부는 모서리에 앉으면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
– 임신부는 불이 난 곳에 가면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남을 미워하거나 흉을 보면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바르고 곱고 정갈한 마음을 가져 항상 정자세로 반듯하게 있어야 한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옷에 주머니가 있어도 물건을 넣어두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죽은 시체를 보아서는 안 된다. (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무거운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정산면 송학리)[23)]

4) 산전 음식과 관련된 금기어

시대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예나 지금이나 임산부는 각별히 음식을 신경 써야 했다. 입덧이 심한 사람들도 그렇지만 혹여 음

23)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72-77쪽.

식을 잘 못 선택하여 아이에게 해를 미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물론 먹고 살기 힘든 시절, 다시 말하자면 현재 70-80대 이상의 노인들은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기에 그런 부분을 신경 쓰기도 어려웠다고 한다. 없어서 못 먹을 정도였으니 뭐 가릴 것 없이 없었다는 것이 공통적인 이야기였다. 기존에 조사된 청양 지역의 음식과 관련된 금기 내용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신 중에는 똑바른 것만 먹어야 한다. 깍두기도 똑바르게 생긴 것만 먹게 했다.(비봉면 중묵리)
- 아이 낳고 질긴 것을 먹으면 안 좋다.(정산면 서정리)
- 아이 가졌을 때는 상어 고기 먹으면 껄끄럽다.(정산면 서정리)
- 산모기 개고기를 먹으면 개가 서로 물어뜯고 싸우므로 형제간에 친구간에 위애가 없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는 개고기를 먹으면 좋지 않다.(장평면 분향리)
- 임신했을 때 개고기를 먹으면 성질 사나운 아이를 낳는다.(청양읍 군량리)
- 아이 가졌을 때 닭고기, 오도독뼈를 먹으면 아이 살에 뭐가 생긴다.(정산면 서정리)
- 산모가 닭 뼈를 먹으면 아이가 종기를 앓을 때 닭뼈가 나온다.(장평면 분향리)
- 오리고기 먹으면 발이 붙는다.(남양면 매곡1리)
- 토기고기 먹으면 언청이 낳는다.(운곡면 위라리)
- 임산부는 오리고기를 먹으면 태어날 아기의 손가락이 붙는

다.(정산면 송학리)

- 임신했을 때 산짐승 잡아먹으면 성질 나쁜 아이를 낳는다.(청양읍 군량리)
- 가재를 먹으면 안 좋다. 이는 태어날 아이가 가재의 모습을 닮는다고 여겨서 좋지 않았다고 한다.
- 게를 먹으면 게처럼 아이의 발이 여러 개 달린다고 하여 먹는 것을 꺼렸다.(대치면 개곡리)
- 산달에 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미역을 미리 뜯어 먹으면 아이가 태어나서 많이 울게 된다고 하여 먹지 못하게 한다.(대치면 개곡리)
- 임신 중에 잘 못 먹으면 아이의 눈 한 짝이 작다고 해서 잘 먹으라는 말이 있다.(대치면 개곡리)
- 산모가 광어고기를 먹으면 눈이 한 쪽으로 치우치며 불길하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비둘기고기를 먹으면 남매 밖에 낳지 못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쪽밤을 먹으면 쪽니가 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인삼을 먹으면 유도가 부족하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삐뚤어진 과일을 먹으면 아이가 바르지 못하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가 매우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므로 금한다.(장평면 분향리)
- 임산부가 식초를 먹으면 아이가 물렁해져서 뼈가 연해져서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초상집에서 음식을 먹지 않으며 초상집에도 되도록 가지 않는다.(정산 면송학리)
- 임산부가 뼈 없는 고기를 먹으면 뼈 없는 아기를 낳는다고 해서 먹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임산부는 벌레 먹은 과일을 먹으면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24)]

금번 조사과정에서 만나 송○자씨는 임신을 하면 무조건 좋은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음식 역시 좋은 것만을 먹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피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4. 산속에 관해 제보를 해주는 읍내리 제보자들

음식도 그렇고 암튼 가릴 것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오리 같은 것은 못 먹었어요. 어른들이 못 먹게 해요. 발이 손가락이 붙는다고 해서요. 그리고 초상집도 못가죠, 아니 안 댕겨야 해요. 남편도 그렇고, 지금도 임신하면 상가 집에 못 가더라고요. 예전 어른들의 말씀을 듣자하니 과일도 예쁜 거, 썩은 거 말고요. 깍두기도 반듯한 거. 아무튼 예전에도 태교를

24)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77-82쪽.

많이 했나 봐요. 불도 봐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이웃에 불이 난다고 하면 애 가진 사람은 부정 탄다고 해서 보지 못하게 해요, 아이가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해서요. 싸움도 안 보고, 험한 것도 그렇고 아이를 임신할 때에는. 큰 소리를 내서도 안 되고요. 개고기 잡을 때는 특별히 보지 말아야 해요. 종종 개를 잡을 때가 있는데 그런 건 다 피해야 해요.[25)]

5) 출산 준비

지금이야 출산을 하면 각별히 신경을 쓰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던 시절에는 임신을 하더라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청양 지역 여성들의 이야기다. 임신을 했다고 하더라도 일손이 부족한 현실에서 일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자연스레 임신을 한 상태에서 일을 하다 어지러울 때가 많았다. 잘 먹지도 못하고 임신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하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입덧이 심할 경우에는 더더욱 힘이 들었다고 한다.

> 시집살이로 힘든데 임신해도 힘들고 식구들 밥 해주고 그러면 앞이 깜깜해져요. 어지러워서 집의 기둥을 붙잡고 잠시 쉬면 다시 정신이 돌아와요. 임신하고 나면 먹고 싶은 것도 먹지도 못하고 밥이라도 챙겨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러니 못 먹어서 죽겠어요. 속도 디집히지만.[26)]

---

25) 송○자(여), 2020.10.12. 조사.
26) 송○자(여), 2020.10.12. 조사.

송○자씨는 아이를 임신하고 한 달이 지난 이후에 남편과 함께 분가를 했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기에 분가를 한다고 해도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은 아니었다. 자연스레 가난한 살림에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정신없이 일을 해야만 하다 보니 제대로 출산 준비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한 달 있다가 아이가 들어섰는데 큰 아이가. 가난이 똥구녕 찍어지게 가난했는데 따로 살아야 했어요. 한 달 만에 쌀 한 톨도 줄 수 없는 형편이었는데 분가할 때 조선간장 한 병 받아서 나왔어요. 따로 사는데 뭐가 있어야 먹는데 그런 게 없으니 무척 힘들었었지.[27)]

다행스러운 것은 없는 살림에도 종종 남편이 자신의 마음을 알고 먹고 싶은 것을 사다주어 무사히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그녀는 임신 중에 과일과 어리굴젓이 특히 먹고 싶었는데 간접적으로 내비친 마음을 남편이 잘 헤아려 그런 걸 사다주었다고 한다. 하지만 원하는 음식도 며칠 먹으면 금방 실증이 나 멀리할 수밖에 없었다. 임신 중에 입덧이 심하면 백김치를 마시기도 한다. 다만 심한 경우에는 약을 사용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약을 먹을 수도 없다. 아이 때문에 자연스레 참는 경우가 많았다.

27) 송○자(여), 2020.10.12. 조사.

출산을 앞둔 집에서는 해산일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를 준비해야 한다. 아이를 낳기 위해 산부인과를 찾는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집에서 아이를 낳던 시절에는 해산 과정에 필요한 것으로는 산자리[28]를 비롯해 배냇저고리, 기저귀, 미역[29] 등이다. 개별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아이를 출산 할 대는 방안에 짚을 깔고 그 위에 누워서 낳는다. 이때 사용하는 짚은 아이 낳고 3일이 될 때까지 깔고 있다가 시어머니가 태반과 함께 마당에서 태워버렸다. 짚이 부드럽지가 않고 아프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너무 불편했다는 사람도 있다.[30]

태어나면 아이에게 입힐 배냇저고리는 직접 만들거나 혹은 시어머니가 준비를 하였다. 그리고 기저귀는 소청이라는 천을 시장에서 사다가 직접 만들었다.

배냇저고리는 내가 만들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만들어주기도 했어요. 기저귀는 소청을 사용하는데 직접 만들죠. 소청이라는 것이 천인데 한 필씩 끊어다가 만드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임신한 상태에서.

---

28) 산자리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볏짚과 시멘트 포대이다. 예전에는 시멘트 포대가 종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아이 낳는 산실에 준비해 둔다. 그런 것을 사용하는 이유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피가 나오고 태를 잘라 버려야 하기 때문이다<정○구(여), 2020.10.12>.

29) 보통 막달이 되면 미역을 준비해요. 다발로 사오기도 하고 새오래기로 사다가 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이야 미역에 고기도 넣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고기가 없으니 그냥 물만 넣고 미역국을 끓였어요. 간장으로 간을 맞춰 먹는데 없는 시절이니 먹는 것으로 만족을 했어요<송○자(여), 2020.10.12. 조사>.

30) 정형호,「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칠갑문화』13, 2003, 48쪽.

시장에 가면 예전에는 그것을 팔았어요.[31]

예전에는 아이의 출산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연유로 산모의 달거리와 산통을 통해 예측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갑작스레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준비하는 부분이 무척 중요하였다. 마을의 산파[32]에게도 미리 이야기 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첫 출산의 경우에는 위험하기도 하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이 많아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산실을 마련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지금이야 병원에 가서 아이를 낳지만 집에 낳아야만 했던 시절에는 산실 방에 인산부의 속옷이나 아이의 배냇저고리 등을 미리 가져다 놓았다. 물론 여유가 없는 집에서는 이마저도 할 수 없었다. 남양면 매곡리에서는 배가 뭉쳐 위 아래로 움직이고, 허리가 안 좋고 밑으로 코 같은 것이 나오는 것으로 출산일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다.[33]

---

31) 송○자(여), 2020.10.12. 조사

32) 청양 여러 지역에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산파가 있었다. 읍내리에는 예전에 최씨 성을 가진 산파가 있었다. 남자분인데 전문적인 의사가 아니고 오랫동안 경험을 토대로 그러한 역할을 지역에서 해온 분이다. 송○자씨는 첫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산통이 심하고 잘 나오지 않아 할 수 없이 산파를 모셔왔다.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아이와 산모 모두가 건강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고 한다 〈송○자(여), 2020.10.12 조사〉.

33)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44쪽.

3. 청양의 산후의례(産後儀禮)

1) 출산 과정

전통사회, 다시 말하자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유산을 하거나 혹은 낳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조사과정에서 만난 제보자 가운데 상당수는 직간접적으로 이러한 경험을 했는데 특히 송학리에서 만난 이○애(여)씨는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원히 이별을 해야만 했다.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에 있는 산파를 모셔오거나 혹은 경험이 많은 분에게 부탁을 한다. 특히 첫 출산일 때가 무척 위험하다는 것이 조사 과정에서 만난 제보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었다. 평소에 잘 놀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해서 뱃속에 아이를 차분하게 해야 한다. 호박넝쿨을 삶아 그 물을 마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한다. 물론 원치 않은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아이를 유산시키는 사람도 있었다. 이 경우에는 두부 간수를 먹기도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진 다음에 바닥에 둥글었다.

현재 읍내리에 살고 있는 정○구씨(83세)는 첫 아이를 친정에서 낳았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씨 이외에 아이를 낳는 사람이 더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러한 관습을 지

키는 사람이 있긴 한데 당시에는 한 해에 한 집에서 두 사람이 아이를 낳는 것이 금기시되었다. 그런 연유로 시댁 어르신들이 첫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친정으로 가서 아이를 낳도록 하였다.

저는 첫 아이를 임신했는데 시댁에서 못 낳고 친정 가서 낳았어요. 두 동서가 한 해에 동시에 낳으니까 집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친정으로 보내진 거예요. 한 집에서는 한 해에 두 명이 낳을 수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 말에 "용마루 한 집에서 둘 낳는 건 안 된다."는 이야기 있었어요. 쌍둥이는 괜찮은데 산모가 둘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찌 되었든 시댁 어르신들이 그래서 저를 친정으로 보냈어요. 아이를 낳고 열흘 있다가 시댁으로 돌아왔어요.[34)]

오늘날에는 보통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다. 청양 지역에서는 마을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주로 대천의 산부인과를 찾는다. 대천은 지역적으로 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곳에 큰 산부인과가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부여와 가까운 지역에서는 천안에 있는 산부인과를 가서 아이를 출산한다.

그 이전에는 주로 집에서 아이를 낳았다. 미리 준비한 산실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는 남편을 비롯해 남자들은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밖에서 기다리는 남자들은 산실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아이가 무사히 태어나

34) 정○구(여), 2020.10.12. 조사.

기를 바랐다고 한다. 지역 혹은 개별 가정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보통은 안방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시부모가 기거하는 곳이 산실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는 산실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몸조리를 한다.

아이를 순탄하게 낳는 경우는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난산일 경우에는 서로 걱정스러워하며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하여 그러한 일이 흔하기 발생하지 않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전에는 위험한 일이 비일비재하였다. 그런 연유로 청양에서는 띠에 해당하는 동물의 생태적 속성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였다. 범띠 여자는 낮에 태어나면 순하거나 좋으며 말띠 여자는 밤에 태어나면 좋다. 시간을 따져 밥을 먹고 나서 쉬는 시간에 태어나면 좋고, 밤에 태어나만 일생이 편안하다. 순산의 방법도 청양지역에서 전해온다. 아이를 낳을 때 남편의 옷을 배에 올려놓으면 순산한다는 것이 청양 지역에서 전해오는 풍습이다.[35] 그리고 태아가 유산이 될 상황이 되면 호박 발 모가지(호박 줄기 끝)와 은가락지를 같이 넣고 삶아 우려낸 물을 먹는다. 그러면 유산의 위기에 처한 아이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어쩔 수 없이 유산을 했을 경우에는 호박국을 끓여 먹으면 아이가 금방 들어선다는 것이 청양 지역의 풍속이다.[36]

35)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43쪽.
36)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62쪽.

예나 지금이나 출산 과정에서는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아이의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도 없고,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밖으로 나오는 도중에 산모와 아이에게 위험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산부인과를 비롯해 병원을 찾은 이후에는 그러한 일이 줄긴 했지만 집에서 아이를 낳던 시절에는 그러한 일이 종종 발생하였다. 정확한 통계자료가 없어 판단하긴 어렵지만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생각보다 훨씬 그러한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모습을 대변하듯 청양 지역에는 죽은 아이를 묻어두는 장소가 여러 지역에 있었다. 청양 읍내를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애가 죽으면 남자들이 묻어요. 마을마다 아이 묘가 있어요. 애장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 산에 가면 '자갈자갈' 하는 소리가 나죠. 그게 애장하는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애장터라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지 매곡리에 사는데 달빛이 비치는데 지나가는데 애들이 뭐 잡아가면서 깔깔하면 재미있게 놀더라고요. 그런데 제는 누구 같고 누구누구 놀고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고 있다고 하는 거요. 논이나 야산 그런 데에다 애장터를 만들었다네요. 매곡2리 열두매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37]

우리 때도 산에 방공호가 같은 데가 있잖아요. 나뭇가지고 놀았는데,

37) 송○자씨 며느리, 2020.10.11. 조사.

동네 형들이 하는 이야기, 거기 돌무더기가 애장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죽으면 어른들이 갔다고 돌을 덮는 거죠.[38]

한편, 아이를 낳고 나서 한 이레가 되는 날에는 방 뒷문 앞에 짚을 깔고 삼신께 미역국, 밥을 올린다. 음식을 한 주먹 추려서 위에다 얹어 놓기고 한다. 두 이레, 세 이레 때도 미역국을 끓인다. 이 미역국은 나중에 산모가 먹는다. 이레가 아닌 3일 만에 삼신을 위해 밥을 차리는 경우가 있으며, 삼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볏짚을 이용해] 모셔놓고 이러한 의례를 행하였다.[39] 참고로 청양지역에서 전해오는 해산과 관련된 금기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기를 낳을 때 대문에 못을 박으면 좋지 않다.
- 아기를 낳고 빨래를 삶으면 아기의 얼굴이 노래지거나 흠이 생긴다.
- 해산 후 계란을 쪄 먹으면 나쁘다.
- 아기를 낳을 때 닭을 잡으면 부정하다.
- 임산부가 역산(逆産)할 때 소똥을 배에 문지르면 순산한다.
- 이웃집에서 아이를 낳으면 빨래를 하지 않는다.
- 산후 7일 동안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7일 후엔 먹어도 괜

38) 송○자씨 큰아들, 2020.10.11. 조사.

39) 정형호,「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칠갑문화』13호, 2003, 44쪽. 53-55쪽.

찮다.

– 한집에서 두 사람이 출산을 하면 한 사람이 친다.

– 난산 때는 방비를 거꾸로 세워 놓는다.

–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하다.

– 미역국을 뜯어먹으면 좋지 않다.[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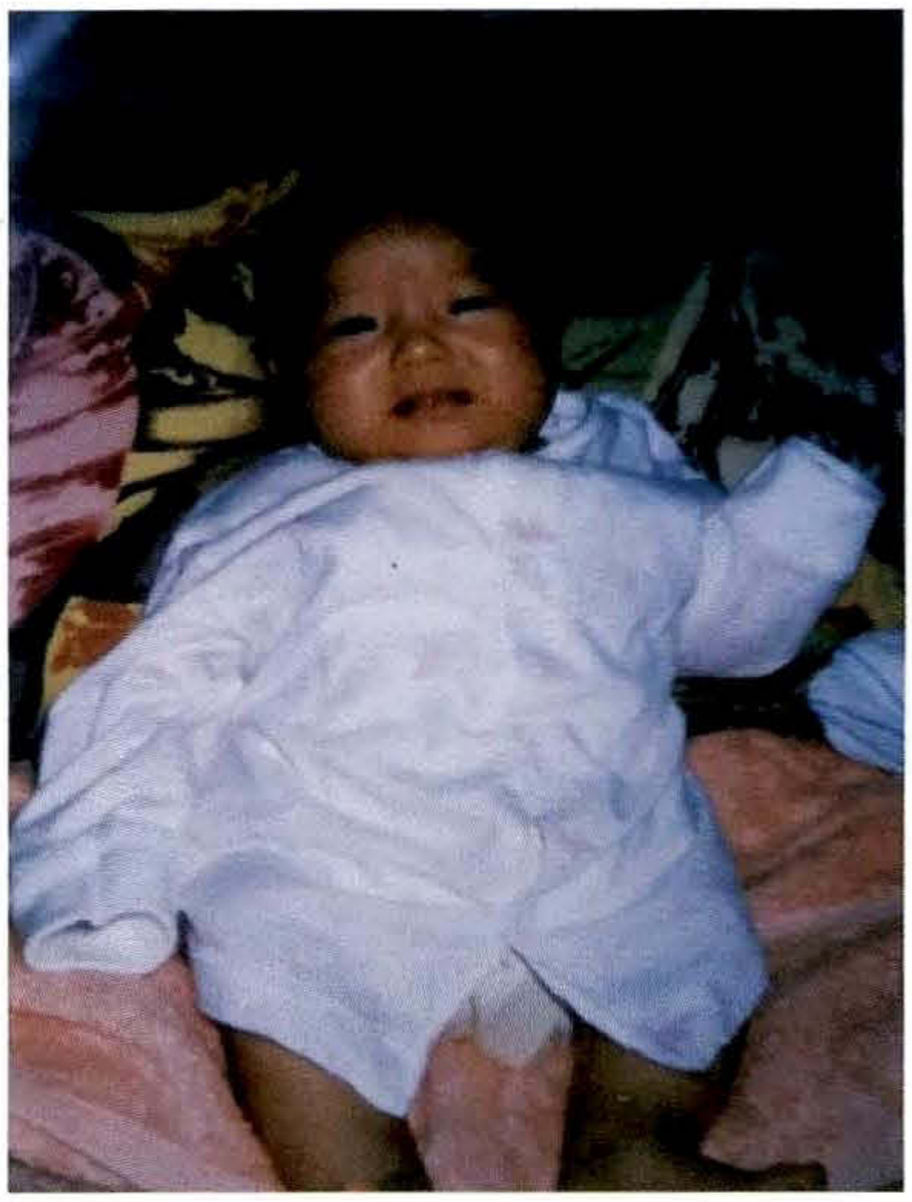


그림 5. 세상에 나와 옷을 입은 아이

2) 태 처리와 금줄 치기

아이가 산모의 뱃속에서 세상에 나오면 태를 잘라야 한다. 태는 시어머니나 혹은 남편이 자르는데 대부분 가위로 자르거나 혹은 입으로 끊는다. 지역마다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기존에 조사된 자료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태를 산모가 가위로 자른다. 자른 태는 바로 태울 때도 있고 날을 봐서 3일째에 산 밑에 장작을 쌓아놓고 태울 때도 있다. 특히 태는 고양이가 물어가거나 다른 사람이 약으로 쓴다고 훔쳐 갈까봐 잘 감시한다. 특히 간질병에 좋다고 해서 훔쳐 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3일간 출산 방에 잘 보관한다.(남양면

40)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하, 2005, 529-530쪽.

매곡1리)

- 출산 때에 사용한 짚과 아이가 나올 때 나오는 태반은 출산 후 3일날 집안 마당에서 함께 태운다. 태우는 일은 시어머니가 하며, 시어머니가 안 계실 경우 남편이 태운다. 태울 때에는 마당 아무데서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손이 없는 방향을 따져서 태운다. 태반은 잘 타지 않아서 태울 때에 힘이 드는데 태운 다음에 타고 남은 태 덩어리와 재는 나무 밑에 묻는다. 재를 내에 가서 뿌리는 사람도 있었다.(청남면 천내리1구)
- 탯줄은 가위로 자른다. 탯줄, 태반은 아이 낳을 때 깔았던 짚과 함께 태운다. 태울 때에는 아무 데에서나 태우는 것이 아니라 손 없는 방향을 따져서 그곳에 가서 태운다. 태반은 땅에 묻을 경우 냄새도 나고 또 개나 짐승들이 파가는 경우도 있어서 주로 묻지 않고 태운다.(운곡면 위라2구)
- 탯줄은 주로 가세(가위)로 자른다. 그런데 칼이 닿으면 아이에게 좋지 않다고 하여 아이의 아버지가 이빨로 자르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탯줄이 여간해서 잘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빨로 자르는 것은 지독한 사람들만 했다.
- 탯줄은 남편의 아이 태어난 지 3일째 되는 날에 출산할 때 사용한 짚과 함께 마당에 놓고 불을 피워 태운다. 이것을 '산불핀다.'고 한다. 이때에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훔쳐간다고 해서 다 탈 때까지 신랑이 서서 지킨다. 다 탄 재는 산에 가서 깨끗한 나무 밑에 묻는다. 깨끗한 나무랄 정갈하게 예쁘게 생긴 나무를 말한다.(남양군 매곡리)
- 탯줄은 시어머님이 산에 오라가 땅을 파고 묻었다. 탯줄을 처

리할 때에는 여느 것과 다르게 특별히 신경을 써서 처리하였다. 산에 갈 때에는 아무 곳에다가 묻는 것이 아니라 주로 방향을 따져서 부정하지 않은 곳에 신중히 묻는다.(대치면 매곡리)

– 태는 출산 3일 후에 손 없는 곳에서 부정하지 않은 가족이 왕겨로 태워야 하며 아무 데나 버리지 않는다.(장평면 분향리)

– 태를 태운 재는 나무 밑에 묻으며 함부로 버리자 않는다.(장평면 분향리)[41]

청양 지역에서는 고양이, 개, 기타 다른 짐승이 물어가거나 간질 환자와 같은 다른 사람이 약용으로 쓰지 못하도록 태는 엄격히 관리를 하였다. 보통은 출산 후 방에 3일간 보관한 후에 불로 태우는데, 이때 손이 없는 방향을 가리킨다. 주로 부정이 없는 가족(대부분 시부모, 남편)이 태운다. 태가 잘 타지 않기 때문에 끝까지 태우고 덩어리와 재는 정갈한 나무 밑에 묻거나 뿌린다. 태를 단지에 담아서 물속에 버리는 경우도 있다.[42] 그리고 금번 조사 과정에서 만난 한 제보자는 예전에 태를 강물에 띄어 멀리 보내기도 했다[43]고 한다.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쳐서 아이의 출산을 알린다. 금줄은 결국 갓 태어난 아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인데 혹시 모를

41)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82-83쪽.
42)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26쪽.
43) 송○자(여), 2020.10.12. 조사.

전염병 등으로 인해 아이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혹은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청양에서는 아기가 태어난 집에서는 금줄을 친다.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이후에도 금줄을 치는 풍습은 사라지지 않았다. 대치면 대치리에서는 지금도 아이가 태어나면 금줄을 친다고 하는데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금줄을 친다[44]고 한다. 아래의 내용은 청양의 여러 지역에서 행해지던 금줄에 관한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 금줄에는 숯, 고추, 솔잎을 단다. 남녀 차별 없이 단다. 이것을 달면 나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 금줄은 3주 동안 매단다.(남양면 매곡1리)
- 금줄은 숯검방, 고추, 솔잎을 꽂아서 3주일 동안 대문에 단다. 고추는 남자일 경우에만 매단다. 이것은 부정한 사람이 오지 말라는 뜻에서 달아 맨다. 상을 당한 사람이 오면 아기가 운다고 한다. 삼신께 국을 놓고 빌어서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한다.(남양면 매곡 1리)
- 금줄에는 고추, 검벙(숯), 종이를 매단다. 외부 사람이 못 들어오게 하는 표시이다. 이것은 3,7일 동안 매달며 나중에 태운 것으로 기억한다.(운곡면 위라리)
- 왼쪽 새끼줄에 고추를 매단다. 여기에 문종이로 쓰는 창호지

44) 이○자(여), 2020.10.13. 조사.

를 끼우며 아들은 고추를 끼운다. 집에 부정한 사람이 들어오지 말라고 달아 놓는다.(대치면 대치리)

- 금줄을 삼칠일을 넘어 오래 달면 혼인을 늦게 한다고 해서 오래 달지는 않았다.(정산면 천장리)[45]



그림 6. 제보를 해주는 송학리 제보자

3) 작명

이름은 그 사람 자체를 나타낸다고 칭해지는 것처럼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여기지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가진 부모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아이 이름을 지을 때 좋지 않은 악명과 흉명을 피해 좋은 양명길명을 골라 아이의 장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동양이건 서양이건 다르지 않은 인간의 마음이다. 조선에서도 아이가 남자라면 壽男, 福壽와 같이 壽, 福, 貴, 昌, 達, 德, 吉 등의 한자를 쓰며, 여자라면 貴禮, 玉順과 같이 貴, 仁, 貞, 順, 禮, 德 등 지극히 경사스러운 글자를 조합하여 이름을 짓는다. 또근 千石(가을에 천 석을 수확하는 신분을 가리키는 뜻), 三達(복, 귀, 수의 세 개의 모두를 이룬다

45) 청양문화원,『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84-85쪽.

는 뜻)이라든가, '이뿐이(얼굴이 아름답고 묘함)', '鳳嬉'와 같이 사물 명에 비유하여 운을 따온 것이거나 '夢龍'(용꿈을 꾸고 태어난 아이), '京得'(서울에 있을 때 얻은 아이), '點福'(몸에 복점이 있는 아이)처럼 그 이름에 따라 현상이나 사건 등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개똥이'(개똥, 더러운 것이니까 액병 귀신에 들리지 않고 무난하게 성장하는 염원을 의미), '긴찬이'(쓸모없는 아이라는 의미)처럼 소중하게 키우고자 하는 마음에 오히려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서 이로 인해 액을 물리치고자 하는 것 등이 있다. 이상의 아명에 관한 이야기지만 중류 이상의 집에서는 혼인 전에 지금까지 땋고 있었던 머리를 묶고 그 위에 관을 쓰려고 관례를 통하여 성인이 되는데 그때 아명을 버리고 관명을 부르게 된다.[46)]

금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로는 아이의 이름은 보통 아이의 아빠나 집안의 어르신이 지어주었다. 간혹 아이를 낳은 산모가 직접 작명을 했다는 사례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 현재 70-80대 여성들, 다시 말하자면 5-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태명이 별도로 없었다고 한다. 지금이야 뱃속에 있는 아이의 태명을 지어 부르는 경우가 있지만 그 전에는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집안 어른들은 아이의 이름을 무척 중요하게 생

46) 장두식·김영순, 『조선의 습속』, 민속원, 2013, 33-34쪽.

각했다. 잘 지어야 큰 인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4) 몸조리와 모유

고금을 막론하고 산모의 몸조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 몸조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나이를 먹고서 힘이 들기 때문이다. 다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이것조차 쉽지 않았다. 한 집 어른들과 함께 살고 있어 자연스레 눈치가 보여 몸조리를 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읍내리에서 만난 송○자씨는 몸조리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느끼고 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이다. 막내 아이를 낳고서 어른들이 무조건 따뜻하게 있어야 한다고 무척 뜨겁게 난방을 해주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척 더워 제대로 몸조리를 하지도 못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무작정 뜨겁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된 거 같다는 것이 그녀의 설명이다.

내가 경험한 바와 막내를 가지고서 따뜻하게 조리를 해준다고 시어머니 방에서 낳는데, 불을 얼마나 땠나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바깥에 가서 화장실 다녀와서 덮으면 너무 더워도 죽어요. 좋은 것만이 아니예요. 맞게 살아야지 안 그러면 후유증이 커요. 안 덮으면 시리고 덮으면

덮고 힘들어요. 조리를 잘 해야죠.[47]

청양지역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 첫 식사를 할 때 계란은 삼간다. 닭을 먹으면 부정이 생기고 첫 이레간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또한 질긴 것을 멀리 한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는 국밥을 준다. 처음 맞이하는 뜻으로 첫국밥이라고 부른다. 보통은 미역국과 밥, 간을 맞추기 위해 간장을 준다. 지금이야 미역국에 소고기 등을 넣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아무 것도 넣지 넣고 끓인다. 대추는 이가 빠진다고 하여 먹지 않았다. 청양 지역에서는 산후 조리 과정에서 약초의 일종인 잔대를 사용하였다. 출한 후에 잔대를 닭과 함께 고아서 삼계탕처럼 먹으면 무척 좋다고 한다.[48]

수유는 보통 3일 정도가 지나야 가능하다. 예전에는 마땅히 줄 것이 없어 곧바로 아이에게 젖을 물리기도 했다. 젖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좋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척 힘이 든다. 젖이



그림 7. 태어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

47) 송○자(여), 2020.10.12. 조사.

48)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57쪽.

잘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억지로 젖을 물려서 잘 돌게 해야 한다. 젖이 많이 나오더라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젖을 떼는 일도 어렵다. 젖을 떼기 위해 약을 바르거나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이들도 있었다.

5) 아이의 관리

태어난 아이는 잘 씻겨야 한다. 바로 씻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 그리고 처음에는 목욕을 하는 과정이 까다롭다. 특히 첫 아이의 경우가 그러하다. 시어머니 등의 도움을 받아 씻겨야 한다. 발을 먼저 씻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날마다 처음 씻기는 부위를 달리 해야 한다. 그래야 골고루 살이 찐다고 한다. 그리고 아이의 손톱과 발톱을 적절한 시기에 잘라 주어야 한다. 칼이나 다른 도구를 사용할 수가 없다보니 보통은 산모의 이빨로 자른다. 자른 손톱은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지금이야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여 성장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드물지만 예전에는 자라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종종 있었다. 특히 전염병으로 그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것이 홍역이다. 홍역이 걸리면 보리를 넣고 물을 끓여 먹이면 효과가 있다고 한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아이가 아프거나 전염병에 걸리면 푸닥거리를 하였다. 집에서 미신을

잘 믿는 집에서 이러한 풍습이 행해졌다. 보통은 무당을 불러다 굿을 하는 것인데 이때 시루떡을 놓고 징이나 꽹과리를 두드리며, 때에 따라 북어로 때리기도 하였다. 급할 때에는 떡을 할 새가 없어서 쌀을 놓고 입으로 비는 가정이 있었다. 귀신이 있다고 해서 기억이 무언가를 밖에 내버리기도 했다.[49)]

그리고 아이에게 입힌 배냇저고리는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 보통은 잘 보관해두었다가 다음 아이에게 입힌다. 동생에게 입히면 형제간에 사이가 좋다고 한다. 아이의 베개도 준비해 한다. 명이 길어지라는 의미로 팥이나 좁쌀을 베개 안에 넣는다.

6) 산후 금기

청양 지역에서는 산후, 즉 아이를 낳은 후에도 각별히 신경을 쓰는 것이 많은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아이 낳고 3,7일 안에 누가 들어오면 부정 탄다(장평면 중추리)
- 출산 집에 삼칠일 동안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청양읍 군양리)
- 출산 후 3일까지는 아궁이에 재를 치우지 않았다. 재를 치우면 젖이 귀하다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장평면 낙지리)

49)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71쪽.

- 마을에 부정한 일이 있거나 부정한 일을 당한 사람, 곧 상을 당하거나 개를 잡았다거나 하는 사람들은 출산한 집에 삼칠일까지 출입을 삼간다.(장평면 낙지리)
- 아기를 낳고 빨래를 삶으면 양잿물 때문에 아기의 얼굴이 노래진다.(정산면 송학리)
- 아기를 낳은 이웃집에서 빨래를 하면 양잿물에 아기의 얼굴이 노래진다고 하여 하지 않았다.(정산면 송학리)
- 해산을 한 후에 첫 밥 대에는 계란을 먹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아기를 낳고 삼칠일 동안에는 동량을 주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아기를 낳을 때 닭을 잡으면 부정하다고 하여 잡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산후 7일 동안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7일 후에는 먹어도 괜찮다.(정산면 송학리)
- 산후 삼칠일 안에 사람이 들어오면 부정하다 하여 사람을 들이지 않는다.(정산면 송학리)
- 산모는 출산 후에도 부정한 곳을 출입을 금한다.(장평면 분향리)
- 출산 집에는 상인(喪人)의 출입을 금한다.(장평면 분향리)
- 산모는 출산한 후에 못을 박지 않는다.(장평면 분향리)
- 아침 해돋이에 아이를 낳으면 살이 있어 나쁘다.(장평면 분향리)
- 미역국을 뜯어먹으면 좋지 않다(정산면 송학리)

– 옛날 동네에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아서 딸을 죽이려 했지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본부인과 딸을 내다 버리고 아들만 키웠다. 그러다 작은 마누라를 얻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육손이를 낳았다. 아들, 딸 쌍둥이를 낳았는데 딸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딸이 죽었다. 그런데 남은 아들이 커서 나이가 젊은 데 풍에 걸리고 말았다.(남양면 매곡1리)[50]

7) 백일과 돌

태어난 아이에게 무척 중요한 의례가 바로 백일과 돌이다. 백일은 백일이 지난 시점에 행하는 것이고 돌은 태어난 지 일 년을 기념하기 위한 의례이다. 다만 가정 형편에 따라 이러한 의례를 행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례, 특히 돌을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돌잔치라 부르는 것은 오늘날의 돌과 관련된 의례의 비중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대치리에서 만난 이○자씨는 이들 의례는 가정 형편에 따라 좌우되는데 본인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 백일



그림 8. 대치리에서 만난 제보자

50)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와 길조어』, 2004, 85-87쪽.

은 해주었으나 돌잔치는 하지 못했다고 한다. 반면 읍내리에서 만난 정○구씨는 백일보다 돌을 중요하게 생각해 아이들의 돌 때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의례를 행했다고 한다.

백일 때 보통은 백일상을 차렸다. 운곡면 위라리와 정산면 청장리에서 조사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백일에는 간단하게 백무리(백설기), 수수팥단지, 인절미, 송편, 버무리떡의 5가지 떡을 준비했다. 어른들이 떡을 다섯 가지 준비하라고 하는데, 5가지 모두 준비하는 경우도 있지만, 3가지만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미역국 3그릇, 쌀밥 3공기를 준비한다. 할머니 친구들을 불러 대접을 하는데, 이것은 손자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요즘에는 손자 백일 때에 도시에 나간 며느리들을 이곳으로 오라고 해서 팥단지, 인절미, 백무리떡 세 가지와 미역국, 반찬 몇 가지를 준비해서 백일 아침상을 차려 준다. 이때 이웃에서는 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받지 않는다. 잔치하는 건데 돈을 받으면 이치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운곡면 위라리, 윤빈귀)[51]

백일은 일생에 다시는 안 돌아오는 날이고, 돌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백일을 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백일상에는 송편(안에 고물로는 팥과 콩을 넣는다), 수수팥떡, 백무리(백설기), 인절미떡을 올리는데, 백일음식은 여러 사람(백 명)과 나눠 먹어야 복이 들어온다. 백무리는 깨끗하게 잘 자라라는 의미이고, 수수팥떡은 붉은 팥의 기운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아이가 부정타는 것을 막는 의미가 있다. (정산면 천장리, 박희순)[52]

---

51)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73쪽.

52)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13호, 2003, 74쪽.

청양지역에서 백일에 송편은 성격이 좋으라 먹이고, 백일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이다. 백무리는 잘 자라고, 수수망새기는 동티나 살이 풀어지라는 뜻이다. 그리고 상을 넉넉하게 차리는 것은 아이가 건강하고, 복이 많게 해 달라는 뜻이다.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이 되면 행하는 돌 역시 청양 여러 지역에서 행해졌다. 다만 그 내용은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여기에서는 대치면 개곡리에서 조사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돌은 백일 때와 같이 미역국을 끓이고, 밥과 떡을 하는데, 여기서 떡은 백무리(백설기)와 송편, 수수망새기(수수팥떡)를 하게 된다. 송편의 의미는 '속 살가우라'고 하는 것으로 이는 아이의 성격이 상냥하고 온순하며, 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어 먹었다. 수수망새기는 수수팥의 색깔과 관련하여 붉은 색이 잡귀를 쫓고 물리친다는 의미이다. 돌잡이라 하여 음식을 차린 상 위에 실, 책, 돈, 과일, 연필을 놓는다. 이중에 아이가 잡는 물건을 보고 아이의 미래를 점쳐보는데, 아이가 실을 잡으면 명이 실처럼 길어 오래 산다고 하며, 책이나 연필을 잡으면 학자가 된다고 한다. 돈이나 과일을 잡으면 먹을 복과 재물이 많이 들어온다는 의미로 부자가 된다고 한다.(대치면 개곡리, 박경순)[53]

돌날에는 돌잡이를 해 아이의 미래를 점친다. 책이나 연필은 공부나 학자, 돈은 재산, 쌀은 넉넉한 식량, 방망이는 남동생,

53) 정형호,「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칠갑문화』13호, 2003, 77쪽.

실타래는 장수로 여겼다. 한편 아이가 돌상에 있는 인절미를 잡으면 인물이 뛰어나고, 수수판단지를 먼저 잡으면 미련하다고 여겼다. 특이한 사례로는 실이 꿰인 바늘이나 가위[태를 자를 때 사용한 것]를 집으면 바느질 솜씨가 있다고 한다.[54] 물론 돌잡이와 관련된 풍습은 개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다. 27년 전에 집에서 딸의 돌잔치를 했던 송○자씨 며느리는 돌잡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우리 딸의 돌잔치를 할 때만 해도 돈 있는 사람은 식당에서 하기도 했어요. 우리 집은 여유가 없어서 집에서 실 놓고 돌잡이를 다 한 거죠. 친척들과 이웃들을 모시고 잔치를 했어요. 돈 넣고 쌀도 놓고 명주실도 넣고 했는데 딸이 정확히 뭘 잡았는지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돌잡이에서는 명주를 잡으면 명이 길고, 돈 잡으면 부자 되고, 쌀 집으면 밥 굶진 않는다고, 연필 잡으면 공부 잘한다고 하더라고요.[55]

아이의 백일과 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나 혹은 떡을 받은 사람들은 고맙다는 의미로 답례를 하였다. 보통은 명주실이나 소액의 돈을 주었다. 아이의 백일과 돌날에는 사진을 찍기도 하였다. 이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긴 하나 5-60년 전에도 이러한 풍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개 읍내에 있는 사진관에

54)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하, 2005, 352쪽.
55) 송○자씨 큰며느리, 2020.10.12. 조사.

가서 사진을 찍기도 했으며 일부는 사진을 가지고 있는 친척이나 이웃에게 부탁하여 아이의 모습을 사진에 담았다[56]고 한다.

4. 산속과 관련된 민요

① 자장가1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잘도 잔다.
멍멍개야 짖지 마라
꼬꼬닭아 울지마라
자장자장 잘도자네
(거까지만 하면 되지 뭐)

■ 최인순(여, 60세), 대치면 주정리 노왼회관 1994.2.15

② 자장가2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 잔다 / 삽사리도 지구
우리 애기 잘도 자네 / 꼬꼬닭아 우지마라
우리 애기 놀래면 / 단잠 깬다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 자네 / 얼룩개도 잘도 자네

56) 돌이면 사진을 찍어요. 사진관에서. 주변에 사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57년 전에도 돌이나 백일 때 사진을 찍었죠<정○금(여), 2020.10.12. 조사>.

자장자장
우리애기 잘도 자네
자장자장
너하구 나하구 / 자장가나 부르자
자장자장
너두 심심 나두 심심 / 심심풀이나 해보자
자장자장
니가 자면 나두 자고 / 니가 깨면 나두 깬다
자장자장
엄마 자구 아기두 잔다.
자장자장
우리 애기는 잘두 자네
자장자장
우리 애기는 / 어찌 이리 잠깐 봐두 이쁘냐
눈을 떠도 이쁘더라 / 방긋 웃어도 이쁘더라

젖을 먹어도 움질움질 / 정말 이뻐
위 자라건 저리 이쁘랴 / 잠이 오네 잠이오네
대추나무 단잠 오네 / 잠이 오네 잠이 오네
동네방네 떼잠오네 / 대추나무 단잠 오네
잠이오네 잠이오네 / 잔디밭이 떼잠오네
대추나무 단잠같이 / 오는 잠이
잠이오네 잠이오네 / 물레잠은 바로 들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 멍석잠은 바로 들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 거적잠은 자꾸 들고
잠이오네 잠이오네 / 이리 단잠 왜 못자리
잠이오네 잠이오네 / (큰 소리로) 네 이년아 자거라

■ 홍충주(여,77세), 남양면 구룡리 노인회관, 1994.2.16

③ 자장가

금을 주면 너를 사냐
은을 준들 너를 사랴
천금 같은 보배동아
부모에게는 효자동이
동기간에는 우애 동이
이웃 간에는 화목동이
나라에는 충성동이

■ 대치면 주정리 노인회관, 1994.2.15[57)]

④ 성난 나이 달래는 노래

성났다 병났다
호박국을 끓여라
연지문을 열어라
너 먹자고 끓였니
내 먹자고 끓였지

⑤ 우는 아이 달래는 노래

57)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하, 2005, 502-504쪽.

우등백이 짜동백이
똥두깐에 구덕할미
지름 한종이 꿔주소[58)]



그림 9. 송학리 제보자 집에 놓여 있는 손주들 사진

⑥ 아이 어루는 노래

떵기떵기 떵산아
오라가는 학선아
내려가는 기력아
땅개비란 놈이
팔한섬을 건너가서
앵무섬을 거너가서
하두 무거워
자빠졌구나

⑦ 아이 어루는 노래2

덩기덩기 덩산아
날러가는 학산아
구름밑에 학산아
금을주니 너를사랴
옥을 주니 너를 사랴
금자둥이냐 옥자둥이냐
보배둥이냐
쥐면 꺼질까

58)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하, 2005, 513-514쪽.

불면 나를까[59)]

5. 다른 지역의 사례

1) 충청남도 부여군[60)]

① 산전

부여 지역에는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비는 기자신앙이 있었다. 보통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거나 산신께 빈다. 그리고 마을의 서낭당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리고 용왕제를 지내는 사람도 있으며 기자바위나 오래된 나무에 빌기도 한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덕과 정화수, 쌀, 과일 등을 차려놓고 촛불을 밝힌 후에 아들을 점지해달라고 치성을 드린다. 부여 지역에서는 임신을 하면 각별히 음식을 가린다. 음식을 비롯해 이 지역의 대표적인 금기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오리고기를 먹으면 손가락과 발가락이 오리발처럼(막膜)으로 붙은 아이를 낳는다.
- 토끼고기를 먹으면 힘이 없다.

---

59) 임동권,『청양의 구비문학』, 2001, 18쪽.

60) 국립문화재연구소,『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 산속편 하권』, 1994, 32-36쪽.

– 비둘기 고기를 먹으면 남매(男妹)밖에 낳지 못한다.
– 개고기를 먹으면 부정(不淨)을 타서 형제가 싸운다.
–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皮膚)가 닭살처럼 거칠어진다.
– 쪽밤을 먹으면 쌍둥이를 낳는다.
– 복숭아를 먹으면 딸을 많이 낳는다.
– 비틀어진 과일을 먹으면 못생긴 아이를 낳는다.
– 산월(産月)에 방을 수리하면 언청이를 낳는다.
– 산월(産月)에 아궁이를 수리하면 언청이를 낳는다.
– 산월(産月)에 굴뚝을 수리하면 언청이를 낳는다.
– 산월(産月)에 쥐구멍을 막으면 귀가 먹는다.
– 상가음식(喪家飮食)을 먹지 않는다.
– 개고기를 금(禁)한다.
– 닭고기를 금(禁)한다.
– 제사음식(祭祀飮食)을 먹으면 산모의 젖이 부족하다.
– 상가출입(喪家出入)을 금(禁)한다.
– 살생(殺生)을 금(禁)한다.

예나 지금이 마찬가지겠지만 부여 지역에서는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뱃속에 아이의 성별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이 많았다. 예전에는 비과학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점지했는데 임부(妊婦)의 나이수대로 문살을 헤아려 살에 닿으면 아들을 낳고 종이에 닿으면 딸을 낳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부여 지역에서는 부모(父母)의 나이를 합해서 홀수이면 아들을

낳고 짝수이면 딸을 낳는다. 임신(姙娠)한 달과 낳을 달의 수를 합한 수가 홀수이면 아들을 낳고 짝수이면 딸을 낳는다. 임부(姙婦)의 배가 편하면 아들을 낳고 불편하면 딸을 낳는다고 전해온다. 그리고 월경(月經)이 끝난 달부터 세어서 계산을 하여 아이 산일을 예측하기도 한다.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아이 혹은 임산부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산파가 있어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한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쓰는 것도 있었다. 무엇보다 유산을 방지하는 방법도 있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남편(男便)의 저고리를 임부(姙婦)의 배위에 걸치고 낳는다.
- 은반지, 은가락지를 삶아 물을 먹는다.
- 호박순을 삶은 물을 마신다.
- 후산이 더디면 아주까리 대를 방 4곳에 세워두었다가 후산 이후에 즉시 밖으로 내간다. 만 일 바로 치우지 않았을 경우 임부(姙婦)의 내장이 밖으로 쏟아져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한다.

부여 지역에서도 태몽을 꾸는 경우가 많았다. 이 지역에서는 알, 밤, 고추, 은반지, 호도, 사과, 홍도실(紅桃實)이면 아들, 에호박, 달, 풋과일, 꽃, 찬 만드는 일을 꾸면 여성이라 한다.

② 산후

산달이 다가오면 본격적으로 출산을 준비한다. 보통 산실은 안방으로 전한다. 며느리가 머물러 있는 방으로 정할 때도 있다. 이들 방은 따뜻하게 준비를 해놓아야 하는데 그래야 순산을 할 수가 있다. 예전에는 산파가 별도로 있어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다. 아이를 낳고 나면 고마움의 표시로 산파에게 의복을 한 벌 해준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를 처리해야 한다. 보통은 아이의 할머니나 삼할머니가 자른다. 물론 산모가 가르는 경우도 있다. 태를 자를 때는 보통 가위와 이빨을 사용한다. 자른 태는 돌을 달아매어서 강물에 버리기도 하고 3일 이후에 왕겨 불로 태워 소나무 밑에 묻는 경우도 있다.

아이를 낳으면 금줄을 쳐서 아이가 태어났음을 알린다. 고추, 숯, 솔잎, 백지, 짚뭉치를 꽂아 달아내는데 이것은 아들을 낳았음을 의미한다. 딸의 경우에는 숯, 백지를 꽂는다. 그리고 삼신할머니를 위한 의례를 행한다. 짚을 깔고 그 위에 밥, 국, 정화수를 놓고 촛불을 밝히고 감사한 마음을 표한다. 이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더욱 건강하기를 기원한다.

태어난 아이에게는 배내저고리를 입힌다. 주로 할머니가 만들어주는데 일부는 외할머니가 만들어 줄 때도 있다. 그리고 아

이에게 입힐 다른 옷은 산모가 만든다. 보통은 출산 전에 미리 준비를 한다. 아이의 피부를 생각하여 광목을 사용한다. 대다수의 옷은 흰색이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도 빠뜨릴 수 없다. 부여 지역에서 주로 아이에게 주었던 이름, 특히 아명(兒名)은 오쟁이장수(長壽), 개똥이장수(長壽), 돼지장수(長壽), 바위이다. 특히 바위라는 이름은 바위에 빌어서 낳았을 때 붙여진 이름으로 바위처럼 변함없이 수명장수(壽命長壽)하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딸의 경우에는 딸그만이를 짓는다. 이 이름은 딸이 많은 집안에서 딸은 그만 낳고 아들을 바라는 마음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와 비슷한 이름으로 딸막음이 있다.

아이를 낳은 이후에 각별히 신경 쓰는 게 많았다. 특히 젖을 주어야 하는 산모는 음식을 가려 먹어야 하는데 특히 김치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무와 두부이다. 산모는 또한 단단한 것을 먹으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산모의 이가 상(傷)하기 때문이다. 매운 것을 먹으면 아이가 설사하기 때문에 이런 음식도 먹지 않는다. 산모는 몸을 회복하는 동안에 밥과 국을 먹는다. 그리고 산전과 마찬가지로 산모와 그의 가족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문 밖 출입을 금(禁)한다.
– 살생(殺生)을 보지 않는다.
– 빨래를 삶으면 아이의 얼굴이 노랗게 된다.
– 살생(殺生) 부정(不淨)을 지킨다.
– 불 부정(不淨)을 지킨다.
– 피 부정(不淨)을 지킨다.
– 상가(喪家) 부정(不淨)을 지킨다.
– 살생(殺生)을 금禁)한다.
– 시체(屍體)보면 3일 동안 집안에 들어오는 것을 금(禁)한다.

젖이 나오지 않을 때는 돼지 족을 삶아서 먹는다. 막걸리를 먹기도 하고 수제비를 먹는 사람도 있다. 우물 또는 약수터에 가서 양쪽 병에 물을 가득 채운 후에 솔잎으로 병의 입구를 막아서 거꾸로 어깨에 걸치고 집으로 돌아와 싸리문에다 걸어 두는 풍속도 부여지역에 있었다.

백일이면 흰무리, 수수망세기, 인절미, 송편을 해서 일가친척을 비롯해 이웃에 나눠준다. 백사람이 먹어야 좋다고 한다. 그리고 돌에는 흰무리, 수수망세기, 인절미, 송편을 비롯해 돌상을 준비한다. 돌상에는 쌀, 돈, 책, 붓, 활 등을 놓고 아이가 무엇을 집느냐에 따라 아이의 장래를 예측한다. 백일떡이나 돌떡을 받은 집에서는 접시에 쌀이나 실, 돈 등을 담아 답례를 한다.

한편, 배내머리는 보통 3살 무렵에 깎는다. 집안의 어르신이나 아빠가 깎기도 하는데 보통은 가위를 사용한다. 머리숱이 많이 나기 위해 몇 가닥을 남겨놓아야 한다.

- 조사 장소 :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마전마을
- 조사일: 1990년7월12일1
- 제보자: 서상수 75세, 임희수 62세, 김순희 74세, 주옥녀 69세, 박언년 77세, 강수희 73세

2) 충청북도 옥천군[61)]

① 기자

혼인을 한 후 1~3년 정도의 기간이 지나도 신부에게 태기가 없으면 임신을 위한 여러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주변 마을 사람들이나 시어머니의 권유로 치성을 드리기도 하고, 주술적인 방법으로서 '뱅이[액막이]'를 하기도 한다. 그리고 치성이나 주술적인 방법으로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점쟁이를 불러 삼신을 받는다. 아이를 갖기 위해 치성을 드리는 대표적인 방법은 백일기도이다. 백일기도는 부처님이나 산신 및 용왕님에게 일정한 시간과 공간에서 백일 동안 치성을 드리는 것이다. 산신이나 삼신에게 기도를 올려 아이를 기원하기도 한다.

61)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인의 일생의례-충청북도』, 2011, 282-303쪽 내용 요약 정리.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뱅이를 하기도 한다. 아이를 많이 낳은 집에 가서 그 집 식구들 모르게 산모의 속옷을 훔쳐 입거나 아이의 배냇저고리를 훔쳐 온다. 삼신받기 치성이나 주술 등의 방법으로도 태기가 없을 경우 점쟁이를 불러 삼신을 받는다. 대부분의 경우 집 주변에 살고 있는 여성 점쟁이에게 삼신을 받지만, 특별히 유명하다고 소문이 난 점쟁이는 거리와 관계없이 따로 모셔 오기도 한다. 삼신은 좋은 날을 택일하여 받으며, 받는 장소는 안방이다. 제물은 쌀 두 되나 세 되로 만든 백설기와 청수 · 생쌀을 준비하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명이 길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실타래를 올린다. 그리고 과일이나 나물을 제물로 추가하여 올리기도 한다.

샘이나 도랑에 가서 삼신을 받아 오기도 한다. 삼신받기를 하는 이른 저녁에 점쟁이가 집으로 찾아와 안방 윗목에 삼신할머니 상을 차려 놓는다. 제물은 일자로 펴놓은 짚 위에 청수, 미역국, 생쌀을 올려놓는다. 이때 짚은 남쪽으로 난 방문을 기준으로 좌측 벽 아래에 차려 놓으며, 짚의 머리 방향은 북쪽을 향하게 한다. 저녁이 되면 점쟁이는 경을 읽어 삼신 앞에서 간단히 축원을 한다. 그리고 점쟁이, 시어머니, 바가지에 1/3 정도 쌀을 담아 든 며느리 순으로 인적이 드문 물이 흐르는 물가로 간다. 물가에 도착한 점쟁이는 물 옆에서 간단히 축원을 한 후

며느리에게 "아들을 몇 두고 싶으냐?"라고 물어본다. 이에 며느리는 평소에 원하는 수의 아들을 이야기 하면 되고, 대답을 들은 점쟁이는 원하는 수의 아들만큼 그 숫자에 해당하는 돌을 주워 오라고 시킨다.

옥천군에서는 삼신을 '삼신할머니' 또는 '삼신할매'라고 불리며 아이를 낳기 전에는 아이를 점지해 주고,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아이를 보살펴 주는 신령으로 인식한다. 삼신은 한 명의 신령으로서 삼신은 아기가 태어난 산실의 윗목에 있다고 여긴다. 동이면의 한 제보자는 아이가 태어난 후 삼신에게 처음으로 빌 때 한 주먹가량의 깨끗한 짚을 윗목 벽에 걸어 두었다. 짚단은 백일 동안 걸어 두며, 그 다음에는 아궁이에 태워 버렸다.

② 산전

현대에는 입덧이 심하면 병원에 가서 약을 짓거나 한약을 달여 먹지만, 과거에는 생활이 어려웠기 때문에 원하는 음식을 구해줄 수도 없었고, 약을 해먹을 수도 없었다. 끼니도 해결하기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많이 혼자 힘들어하며 참을 수밖에 없었다. 태몽은 주로 본인이 꿈을 꾸며, 때에 따라서 부모나 가까운 친척등 주변의 다른 사람이 꾸기도 한다. 아들인 경우 주로 꿈에서 밤, 잉어, 용, 사자,

호랑이, 뱀, 고추 등을 보게 된다고 한다. 특히 밤의 경우 반드시 줍거나 따야 하고, 뱀의 경우 한 마리가 나타나야 아들이라고 여긴다. 만약 밤을 발로 밟아 까거나 쌍으로 된 뱀이 나오는 꿈을 꾸었을 경우에는 딸이 태어난다. 또한 고추의 경우 직접 따지는 않았지만 누군가가 건네주는 꿈을 꾸는 경우도 아들이다. 현대는 과학의 발달로 인해 태아의 성별을 쉽게 알 수 있지만, 과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태아의 성별을 알 수 없었다. 불확실한 아이의 성별에 대해 궁금해 했던 임신부와 주위 사람들은 임신부의 배 모양이나 임신부의 이름을 불러 뒤돌아보는 모습으로 아이의 성별을 구별하기도 하였다. 임신부의 배 모습이 전반적으로 동글동글하고, 아래쪽으로 쳐져 있는 모습이면 아들이라고 여긴다. 이와 달리 가슴 위로 둥그렇게 솟아 있으면 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와는 정반대로 가슴 밑이 불룩하게 솟아 있으면 아들이고, 배의 모습이 아래로 쳐져 있으면 딸이라고 여기기도 한다. 한편 임신부의 뒷모습을 보고 불렀을 때 왼쪽으로 돌아보면 아들이고, 오른쪽으로 돌아보면 딸이라고 생각한다.

임신부가 먹는 음식은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여겨서 조심을 한다. 우선 임신부는 뼈 없는 고기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실수로 임신부가 뼈 없는 고기를 먹

었을 때에는 아이가 뼈 없이 태어난다고 한다. 또한 오리고기나 닭고기를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오리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발이 오리의 발처럼 붙어 태어나고, 닭고기를 먹으면 아이의 피부가 닭처럼 오돌오돌하게 된다고 한다. 각종의 조류도 먹지 않아야 한다. 새를 잡아먹으면 아이의 눈이 멀기 때문이다. 개고기도 먹지 않는다. 익모초라는 풀도 조심한다. 이 풀은 매우 독해서 먹었을 경우 아이가 유산되기도 한다. 최근에는 커피가 몸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임신부에게 먹이지 않기도 한다.

③ 해산 준비

임신부는 달거리가 없었던 달부터 계산을 하여 산달을 미리 예측한다. 그리고 그 산달에 맞추어 해산과 육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하나씩 준비를 하기 시작한다. 우선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사용하게 될 기저귀와 배냇저고리 등을 만든다. 첫 출산의 경우에는 친정어머니가 해산에 필요한 물품을 미리 챙겨서 보내 주기도 한다. 기저귀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한 필이나 두 필 정도의 베를 손수 떠서 만들어 보낸다. 친정 집안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시어머니가 친정어머니의 역할을 대신하여 필요한 물품을 챙겨 준다. 해산일이 가까워지면서 준비해야 할 물품들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한다. 출산할 때 나오는 피를 대비하

기 위해 짚이나 비닐 혹은 밀가루 포대를 준비해놓아야 하고, 당장 써야 할 기저귀와 배냇저고리는 삶아 둔다. 그리고 해산 후에 임신부가 먹을 미역을 사다 놓는다. 이때 미역은 반드시 부러뜨리지 않은 큰 미역을 준비해야 한다. 특별히 이 미역은 부러뜨리지 않기 위해 짚으로 묶어서 어깨에 메고 온다. 미역을 사러 갈 때에는 부정을 타지 않기 위해 새벽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때 다녀온다. 출산이 임박하면 방에 불을 때어 따뜻하게 하고 물을 끓인다. 그리고 태를 자를 가위와 실, 그리고 여분의 옷감 등도 소쿠리에 담아 방 한 구석에 준비해 놓아둔다.

④ 출산 후

아이가 태어나면, 태 안에 든 내용물이 최대한 아이에게 갈 수 있도록 아이 방향으로 몇 번이고 훑어 내린다. 그리고 아기 배꼽에서 한 뼘 정도가 되는 지점과 반대쪽이 되는 지점을 각각 실로 묶어 그 가운데를 가위로 자른다. 이때 실은 풀리지 않도록 꽁꽁 동여매야 한다. 만약 실을 묶어 놓지 않거나 허술하게 묶어 실이 풀려 버리면 피가 흐르게 되어 산모나 아이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 쪽의 태는 빙글 돌려서 아이의 배 위에 올려놓고 헝겊으로 덮어 놓는다. 일주일이 지나면 아이의 태는 떨어져 나가는데, 그때까지는 물에 닿지 않도록 조심한

다. 이곳에 물이 들어가면 덧나게 되는데, 이때에는 고약을 사다가 발라 주면 잘 낫는다. 한편 태를 자를 때 아이 쪽의 태가 아이의 무릎까지 오게 하여 자르면 아이가 크면서 오줌을 잘 싼다는 속신이 전해지며, 일주일이 지나 떨어진 태는 헝겊 주머니에 쌓아 횃배(옷을 거는 곳)에 걸어 둔다.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가장 먼저 주는 밥을 '첫국밥'이라고 부른다. 첫국밥은 다리가 네 개 달린 소반에 미역국, 밥, 간장을 올려 차리는데, 가장 먼저 삼신에게 올린 후에 산모가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첫국밥은 소복하게 담은 쌀밥과 미역국으로 준비한다. 미역국은 다음과 같이 끓인다. 우선 부러뜨리지 않은 미역에서 먹을 만큼의 양을 뜯어 약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정도 물에 불려 놓는다. 그리고 장작을 넣어 솥을 달구고, 달구어진 솥에 들기름을 부어 끓인다. 만약 집안이 가난하여 기름을 넣을 수 없으면, 간장으로 대신한다. 들기름이 적당하게 끓으면 불린 미역을 넣어 볶아 준다. 그리고 쌀뜨물을 부어주면 미역국이 완성된다. 과거에는 산모가 먹는 미역국에 소고기를 넣으면 부정을 탄다고 여겼다.

'금기줄[금줄]'은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문 앞에 건다. 이때 아기가 딸이면 숯, 솔잎, 솔가지를, 아들일 경우 붉은 고추를 추가해 왼새끼에 꽂아 걸어 둔다. 이 금줄은 가정에 따라 거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 딸일 경

우 숯과 솔나무만을 걸기도 하고, 아들의 경우에는 '방맹이[방망이 : 짚을 반쯤 접어 금줄에 꽂아 두는 것]'를 고추와 함께 걸기도 한다. 이 줄은 약 일주일 정도 걸어 두는데,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대문 밖 한쪽에 따로 걸어 둔다. 마을 사람들은 출산 직후 걸린 금줄을 통해 아이의 탄생과 성별을 짐작하고 있다가, 7일이 지나 금줄이 걷혀지면 아이 구경을 하기 위해 산실에 출입을 하기 시작한다.

삼신상은 삼신에게 올리는 제물을 말한다. 삼신에게는 기본적으로 밥, 미역국, 청수, 간장을 올리며 급한 경우 청수만을 올려 기도를 하기도 한다. 아기가 태어난 이후의 삼신상은 첫국밥을 시작으로 삼 일 · 한 칠일(첫이레) · 두 칠일 · 삼칠일 · 백일 · 돌까지 올리며, 삼신상에 올렸던 미역국과 밥은 반드시 산모가 먹어야만 한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첫국밥 · 한 칠일 · 백일 · 돌에 삼신상을 차려 삼신을 위했으며, 집안의 형편이 되는 경우 삼 일 · 두 칠일 · 삼칠일을 챙기기도 하였다.

아이를 낳은 산모는 몸조리를 잘해야 나중에 몸이 아프지 않다. 왜냐하면 산모는 출산하는 동안 온몸의 뼈마디가 어긋나는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조리 기간에 그 뼈마디들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원기가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보통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3일 후부터 몸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 일주일이

되면 집안의 빨래를 시작으로 밀린 농사일과 집안일을 하게 된다. 가난한 집안의 경우에는 아이를 낳은 3일 후부터 곧바로 일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부잣집의 경우에는 한 달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 몸조리하기도 한다. 아이는 할 일이별로 없는 겨울에 낳으면 좋다고 한다. 만약 4~5월에 아이를 낳는다면 모심기, 보리타작 등의 바쁜 농사일로 인해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아기가 태어나면 곧바로 씻기는데 아이의 몸이 미끈거리는 탓에 제대로 씻길 수가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간단하게만 씻겨 놓고 일주일 동안 매일 목욕을 시키면서 서서히 깨끗하게 씻긴다. 가정에 따라 이 미끈거리는 것이 다 말라붙을 때까지 씻기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태어난 아이를 곧바로 씻기지 않으면 아이에게 냄새도 나고 아이의 모습도 이상해서 곧바로 씻긴다고 한다. 한 제보자는 아이가 다칠까봐 3일 동안 할아버지 옷에 싸 놓았다가 3일이 지나서부터 목욕을 시켰다고 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태어난 후에 이름을 갖는다. 아이의 이름은 보통 아이의 친조부가 지어 주며, 친조부가 계시지 않는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이름을 정하거나 작명소를 통해 이름을 짓기도 한다. 아이의 이름이 사주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 이름을 지어 호적에 올리기도 한다. 호적에 정식의 이름을 등재하기 전에는 흔히 별도의 아명(兒名)이 있었다. 천하게 지으면 무

병장수 한다고 여겼다. 험한 꼴을 뜻하는 '오쟁이', 벽돌처럼 수명이 단단하라고 '벽돌이', 벽같이 명이 길라고 '벽수', 개똥을 의미하는 '개똥이' 등의 이름이 그것이다. 여자아이는 '언년이', '돼지', '똥강아지' 등으로 불렸다. 특히 언년이의 경우 그 명칭이 곧바로 정식의 이름이 되기도 하였다. 이름이 천할수록 아이들에게 놀림감이 되었는데, 나중에는 아이가 커서 부르는 명칭을 바꾸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⑤ 백일과 돌

백일에는 백설기를 만들어 백 명의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 좋다고 하는 속신이 있어서 많은 양을 만들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다. 평상시에는 떡을 돌리고 접시를 되돌려 받을 때에는 돈을 받기도 하지만, 백일 떡에는 돈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 대신 실이나 양말 등을 받았다. 대부분의 경우 광목 실 한 타래 정도를 받았으며, 받은 실은 아이의 명이 길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이의 목에 걸어 준다.

돌은 아이가 태어난 지 일 년이 되는 날로서 아이에게는 첫 번째 생일이 된다. 돌에는 가정의 형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음식을 풍성하게 장만한다. 백설기, 팥떡, 인절미, 나물, 과일, 잡채 등을 준비하며, 반드시 삼신에게 올려서 삼신을 위한 후 식구들



그림 10. 오늘날의 백일

이나 친척, 주위 사람들과 나누어 먹는다. 이날에는 돌잡이를 한다. 돌상에 연필, 공책, 실, 돈을 올려놓고 아이가 잡는 물품으로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다. 이때 연필과 공책을 쥐면 공부를 잘 할 것으로 믿고, 실을 잡으면 수명이 길 것이라고 여기고, 돈을 잡으면 부자가 될 것이라고 한다. 돌 이후에도 10세가 될 때까지 아이의 생일 때마다 수수팥떡을 하여 아이에게 잡귀들이 범접을 못하도록 하고, 아이의 무병장수를 기원한다.

3) 인천광역시 강화도

① 기자

17살 때 시집을 온 박채난씨(강화도 길상면)는 아들을 낳기 위해 특별히 노력한 것은 없다. 임신을 해서는 태몽을 꾸었는데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는 산에 가서 밤과 감을 따 먹는 꿈을 꾸었다. 둘째 아들을 임신했을 때는 큰 구렁이 꿈을 꾸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꿈에 우물에 갔는데 냇가 물이 그냥 텅텅 내려왔다. 웬일인지 궁금하여 가보니 구멍이 뚫려 있었다. 그래서

구멍을 들여다보니까 큰 구렁이가 머리를 내밀고 박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만약 생시였다면 '아이고 무서워'하고 도망갔을 것인데 꿈이라 그랬는지 전혀 무섭지 않았다. 그리고 박씨는 구렁이 앞에 서서 꿈이라 이렇게 말을 했다. "아이고 이 더러운 몸에 왜 깨끗한 몸을 보이십니까. 가만히 구멍에 들어가 계세요." 이렇게 말했더니 구렁이가 구멍에 쑥 들어갔다. 그리고 꿈을 깼다. 첫째 딸을 임신했을 때는 박씨가 동산에 가서 밤을 줍는 꿈을 꾸엇다. 동산에 올라가니 밤 두 톨이 떨어져 있었다. 그래서 밤을 주웠다. 박씨는 평소에 밤 꿈을 꾸면 아들을 낳는다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딸을 낳아서 처음에는 약간 의아해 했다. 하지만 딸을 낳고 보니 밤 꿈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 꿈에 밤을 두 개 주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딸을 둘 낳았다. 최근 증손자의 태몽을 꾸었다. 본인이 보기에 증손자의 태몽은 부자가 될 꿈이었다. 그래서 아직 아무한테도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

② 임신

임신을 했을 때 특별하게 행동을 조심하라는 시어미니의 주의는 없었다. 평소에도 특별한 외출할 일이 없었다. 보통 시장은 집안 어른들이 다녀왔기 때문에 박씨는 어른들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외출을 해 본 적이 없다. 다만 임신 기간 동안 음식을

가려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게 지켰다. 하지만 부잣집이 아니었던 박씨의 시댁 형편에서 모든 것을 가려서 할 수는 없었다. 당시 부잣집 며느리는 임신을 하면 밥도 좋은 그릇에 담아 먹었고 남은 밥은 절대 먹지 않았다. 그리고 좋은 음식만 먹어야 훌륭한 아들이 태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박씨와 같은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아무 그릇에나 밥을 먹기도 했고 남은 밥도 먹었다. 그러나 열 달 내내 마음가짐에서는 정성을 드렸다. 가령 열 달 내내 물이 많이 나오는 채소를 먹지 않았다. 잘못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부스럼이 자주 생긴다고 해서이다. 또 박씨는 원래 생선이나 고기류를 안 좋아해서 임신기간 동안 간장, 된장, 고추장만 먹었다. 김치도 먹지 않았다. 왜냐하면 김치를 많이 먹으면 아기의 이가 상한다고 했다. 또 임신 기간 동안 개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 만약 먹게 되면 아이가 귓병을 앓게 된다. 닭고기는 살만 먹고 뼈와 껍질을 먹으면 안 된다. 닭 껍질을 먹고 아이를 낳으면 아이의 피부가 닭 껍질처럼 된다고 하였다. 쇠고기나 돼지고기도 살이 많은 부분만 먹어야 한다. 바다에서 나는 홍어, 광어 같이 넓적하게 생긴 생선을 먹으면 안 된다. 만약 먹게 되면 살갗 안이 불쑥해져서 부스럼이 난다고 한다. 이런 정보는 대부분 시어머니로부터 전해 듣고 지키려 노력했다. 또한 시어머니는 임신했을 때 몸가짐을 조심하

도록 여러 가지를 일러 주었다. 가령 앉을 때는 자리꼬굼[자리를 여러 개 폈을 때 자리와 자리의 경계 부분]에 앉지 말도록 했다. 또한 남한테 거친 말을 하지 말도록 했다. 박씨가 처음 임신했을 때는 체구도 작고 힘이 들어서 밥도 해먹지 못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물을 길어다가 밥을 지어 주었다.

③ 출산준비

기저귀는 눈목(넓은 헝겊)을 끊어서 준비했다. 헝겊은 공자에서 샀다. 보통 두 필을 끊었는데 한 필을 바로 쓰고 남은 한 필은 다음 아이 때 섰다. 당시 가난한 집에서 헝겊을 따로 끊어서 기저귀를 만들지 못하고 헤진 바지 등을 기저귀로 사용했다. 아이가 2-3살까지 기저귀를 채웠다.

배냇저고리는 무명을 끊어다가 박씨가 직접 만들었다. 맏아들의 배냇저고리를 대학시험 보는 사람이 지니고 시험을 보면 합격한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박씨는 맏아들의 배냇저고리를 보관했었는데 주변의 이웃 아들이 대학교 입학시험 볼 때 빌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빌려줬다. 배냇저고리는 보통 태어나서 보름까지 입힌다. 이불도 박씨가 직접 만들었다. 첫아이 때 한 채만 만들어서 그걸로 나머지 아이들을 낳았을 때

함께 썼다. 포대기는 무명을 끊어다가 박씨가 직접 만들었다.[62)]

④ 출산의례

출산이 다가오자 아랫목의 자리를 걷고 짚을 깔았다. 아기를 낳은 후에는 이 짚을 태웠다. 홑바지를 입고 아기를 출산했다. 탯줄은 본인이 자른 적이 없다. 보통 그 당시에 산모 혼자서 아기를 낳는 경우도 많아서 이때는 산모가 직접 탯줄을 자르기도 했다. 먼저 탯줄의 양쪽으로 피를 모은 후 실로 가운데를 묶는다. 그리고 가운데를 이빨로 잘랐다. 탯줄을 자른 후 산모 쪽의 탯줄을 꼭 붙잡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태가 산모 몸속으로 들어가서 산모가 죽는다. 산모 쪽 탯줄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산모가 힘을 주면 태반이 나온다.

아기 낳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기 때문에 난산이라고 해서 특별히 주술적인 음식을 먹은 적이 없다. 다만 시어머니는 하방에 물 쏟아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즉 물이 콸콸 쏟아지는 것처럼 아이도 그렇게 쉽게 낳게 해달라는 뜻이다.

강화도에서는 아기를 낳았다고 금줄을 치지 않는다. 박씨는 금줄을 치는 일은 도시에서나 하는 것으로 들었다. 그 대신에 강화도에서는 새빨간 흙을 파다가 대문 앞에 뿌렸다. 딸이면 세

62)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일생의례편』, 2002, 78-81쪽 요약정리.

무더기, 아들을 낳으면 다섯 무더기를 놓았다. 이 흙도 아기 태어난 지 3일이 지나면 쓸어냈다. 이를 두고 황토 피는 것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안 한다.

박씨는 아들을 낳고 일주일까지는 외부 사람을 집에 들이지 않았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 낳고 바로 산실에 들어갈 수 있었으나 외부 사람들은 3일이 지나야 올 수 있었다. 하지만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야 사람들이 올 수 있었다. 아기는 태어난 후부터 매일 씻겼다.

아이를 낳고 보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미역국과 밥을 해다 주면 먹기만 했다. 몸을 잘 보호해야 오래 살고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뜻에서 그랬다. 시어머니는 한 보름 정도 산바라지를 해주었는데 산모의 밥과 국은 먹을 때마다 새로 해서 주었다.

아이가 태어난 후 박씨의 시누이들이 미역과 실을 사왔다. 그 외에 큰 아들을 낳았을 때는 오는 사람마다 실을 사들고 왔다. 하지만 큰 아들은 자기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젊어서 죽었다. 따라서 실을 사갖고 오는 것도 실제의 수명과는 관계없이 기분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아이의 이름은 집안의 할아버지들이 책을 보고 항렬을 넣어 지었다. 출생신고는 박씨의 남편이 면사무소에 가서 했다. 당

시에는 태어난 아기가 백일이 되지 않아 죽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는 실제 태어난 날로 출생신고를 했다.

⑤ 백일의례

태어난 지 백일이 되는 날 백일잔치를 했다. 백일떡은 백 사람이 다 먹어야 아기의 수명이 길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대두한 말을 준비하여 떡을 한 시루 쪄서 아랫마을과 윗마을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돌렸다. 백일잔치에 온 친척이나 이웃들은 대부분 돈을 갖고 왔다. 1941년 당시 쌀 한가마가 30원 정도를 했는데 많이 가져오는 경우 30원, 보통은 20원이나 10원이었다. 초대를 했으나 오지 못한 이웃들에게도 백일떡을 돌렸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린애 떡을 그냥 먹을 수 없다며 돈을 10원이나 20원씩 주었다.

첫재 아들의 백일잔치에 마련한 음식은 쌀밥, 미역국, 콩나물, 녹두나물, 배추김치, 깎두기와 같이 평상시에 먹던 반찬이 주류를 이루었다. 아이의 옷으로는 분홍저고리, 남색 바지, 두루마기, 복건, 마고자 등을 준비했다. 그중에서도 복건과 마고자는 박씨가 직접 만들었다. 백일잔치를 하면서 읍내에 있는 사진사를 불렀다. 아이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⑥ 돌의례

아이가 태어난 지 만 일 년이 되는 날 돌잔치를 했다. 돌찬지도 시어머니가 모든 준비를 했다. 박씨는 도와주었을 뿐이다. 백설기, 수수팥떡, 찰떡, 송편 등을 집에서 직접 만들었다. 이외에도 돌상 위에는 사고고임, 배고임 등이 있었다. 돌상에 차리는 음식은 모두 고임을 하여 마치 환갑상 차리듯이 꾸몄다. 돌잡이는 아이에 따라 밥을 머는 아이, 책을 집는 아이, 돈을 집는 아이 등이 있다. 밥을 먹는 아이는 미련하다고 했다. 돈이나 책을 잡아야 어른들이 좋아했다. 돌잡이는 손님들이 아침식사를 할 때 함께 이루어졌다. 돌잡이가 끝나도 후에 오는 사람들이 돌상을 보라고 헐지 않고 그대로 놔두었다. 돌 옷은 한복과 평상복을 별도로 마련했다. 한복 돌 옷은 박씨가 직접 만들었다. 박씨는 백일잔치 때 입었던 빨간 치마에 노랑저고리를 입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행주치마를 걸쳤다. 돌 사진도 역시 읍내의 사진사를 불렀다. 집 마당에 병풍을 치고 앞에 돌상을 놓고서 아이를 앉히고 찍었다.[63]

63) 경기도박물관,『경기민속지 일생의례편』, 2002, 117-120쪽 요약정리.

6. 청양 지역 산속의 특징과 활용방안

1) 특징

사람이 태어나서 죽기까지를 일생 또는 일평생이라 한다. 일생을 확대하여 해석하면 세상에서 태어나기 전 부모의 기자(祈子)로부터 출생, 성년, 혼인, 회갑, 죽음과 제사까지를 포함한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동안에 여러 가지 의례를 거치는데 이것을 일생의례라 한다.[64)]

일생의례와 유사한 개념으로 서구적인 용어인 통과의례(Rittes of passage)라는 말이 있다. 통과의례는 일생을 주기로 출생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경과하면서 마디가 되는 곳에서 행하는 의례이므로 생애분기의례(Life-crisis rites)라고도 말한다.

비단 일생의례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의례는 일정한 생활문화권에서 오랜 생활습관을 통해 약속된 방식이므로 언어와 생활방식이 다르면 의례도 달라질 수 있다. 같은 언어를 쓰더라도 높은 산이나 강이 가로 막히면 생활의 방식이 다르므로 일정한 지역과 다른 지역의 의례에는 차이가 나기도 한다. 또한 시대에 따라서 의례는 변화한다.[65)] 정용태 역시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

64)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168쪽.

65)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170쪽.

의례는 원천적으로 인정을 외형으로 표현하는 한 형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은 적합하여야 하며, 너무 형식이 지나쳐서 과례(過禮)가 되거나, 형식이 너무 미흡해서 배례(拜禮)가 되었고, 예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과례와 배례를 구분하는 의례 형식의 기준은 반드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사회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함께 사회적, 시대적 상황, 그리고 각 개인의 생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각 가정은 그 가문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내실보다는 형식 위주가 되었고 그 가문은 예면(禮面)을 세우기 위하여 허례허식에 흘렸던 것이다.[66)]

일생의례와 관련된 산속은 여타의 의례와 비교해 볼 때 지역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지역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성년의례, 혼례, 상장례 등에 비해 지역만의 특징적인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본문에서 소개한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지역만이 지닌 특이한 사례 내지 특성이 눈에 띄지 않는다. 더욱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내용은 산속은 지역성보다는 개인이 처한 상황 내지 집안의 관습에 따라 다양한 양상이 나타나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기존 청양 지역의 산속 관련 자료를 비롯해 금번 조사 과정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 지역만의 특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전국적인 양상을 꼼꼼히 살피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66) 정용태, 「한국농촌의 의식구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청주대논문집』8집 5월, 청주대학교, 1974, 228쪽.

하겠지만 다양한 자료에 입각해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본격적으로 청양 지역 산속의 특징을 다루기 전에 주목할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까지도 청양 지역에서 간헐적으로나마 산속문화가 남아 있다는 것이다. 산속이란 단순히 아이를 임신하고 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전과 산후, 그리고 육아 과정에서의 기원, 의례, 주술적인 내용을 말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까지 사라지지 않은 채 계승되고 있는 부분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최첨단 과학이 등장하고, 가정이 아닌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시대에도 이러한 의례가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청양 지역의 산속을 살피는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하는 또 다른 내용은 임신을 한 부모의 성향도 영향을 주지만 시부모, 특히 시어머니 역할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전통사회에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부분이 전적으로 여성들이 몫이라는 점도 배제할 수 없겠지만 시아버지나 혹은 남편의 성향보다는 시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사실을 조사와 자료를 정리하면서 느낄 수 있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는 비교적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자신앙인데, 아들을 낳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삼신할머니 혹은 산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은 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이다.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도 시어머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청양 지역 산속의 지속과 변화 과정을 고려볼 때 청양 지역에서 행해지던 산속 가운데 적지 않은 것들이 현재에는 전승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례 혹은 풍습이 등장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청양 지역 산속의 지속과 변화에 영향을 끼친 요인이 있기 마련인데, 의학과 과학의 발달이 대표적인 것이라 하겠다.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면서 집에서 아이를 낳는 풍습이 사라지고, 청양 지역 산모들 대부분은 산부인과를 찾게 되었다. 다만 청양 지역에는 산부인과가 없어 대천이나 천안에 있는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물론 청양 지역의 산모들이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개인이나 집안의 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이긴 하겠지만 2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낳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아이를 출산하는 장소의 변화는 청양 지역 산속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집에서 아이를 낳는 시절과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산속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를 자르거나 처리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의 위험도 역

시 이전과 이후는 분명 다를 수밖에 없었다. 어찌 되었든 청양 지역의 산속 전반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이 내용은 무척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산부인과나 혹은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던 때까지를 대상으로 청양 지역의 산속이 지닌 몇 가지 특징을 산전과 산후로 구분하여 살피고자 한다.

청양 지역 산전의례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기자신앙에서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 주목할 부분은 다양한 형태가 보인다는 점이다. 개별 지역마다 차이가 있긴 하나 절을 찾는 사람도 있고 마을에서 가까운 기자 혹은 산신 바위를 찾아 아들을 점지해달라는 양상도 보였다. 일부는 집안의 장독대 등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기도 하였다. 기도와 치성과 달리 아들을 낳은 여성의 속옷과 금줄을 훔쳐오는 사례도 있었다. 이전에 비해 이러한 양상이 줄긴 했지만 오늘날에도 아들 혹은 아이를 낳지 못한 집에서는 종종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

두 번째 특징은 아이를 낳기 전에 지켜야할 금기 사항이 무척 많았다는 점이다.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한 특성이 두드러진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임신 중에 가려야 할 음식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동거지이다. 이러한 금기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집안의 가족들 역시 각별히 신경 쓸 게 많았다.

금번 조사와 기존의 조사 내용에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오리고기에 관한 내용이다. 임신한 여성은 오리고기를 멀리 해야 한다는 것인데 비교적 여러 지역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가재와 닭, 그리고 버섯 등에 관한 내용도 있긴 하지만 임신한 여성은 절대로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내용에 비하면 두드러지지 않은 편이다.

행동에 관한 것으로는 불을 멀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목해야 한다. 임신한 상태에서 불을 보게 되면 뱃속에 아이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인데 실제로 여러 지역에서 만난 제보자들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언급하였다. 또 다른 내용은 한 집안에 두 명의 임산부가 있을 경우에는 한 명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이다. 청양 지역에서는 한 지붕 밑에서 한 해에 두 사람의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속설이 전해져 온다. 지금이야 그러한 문화가 사라졌지만 집안에서 아이를 낳던 시절에는 이 부분을 중요시 했다고 한다.

산전의례 가운데서 청양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는 세 번째 내용은 뱃속의 아이의 성별에 관한 것이다. 이것 역시 비교적 다양한 사례가 조사되었는데 재미있는 것으로는 밤[栗]을 들 수 있다.

밤[栗]은 해석이 아들과 딸로 양분된다. 6인이 아들로, 6인이 딸로 답

했다. 각각 경험담도 1회씩 동등하다. 특히 치마에 밤을 안고 오는 꿈을 꾸고 아들을 낳았다는 경험담이 있다. 반면 밤송이 5개가 주렁주렁 달린 꿈을 꾸고 5명의 딸을 연달아 낳았다는 경험담이 있고, 딱 벌어진 밤이나 가시가 있는 밤 송아리는 딸이라는 견해도 있지만, 그냥 알밤이 딸이라는 견해도 2곳에서 나타난다. 한편, 구분해서 알밤은 아들이고, 딱 벌어진 밤송이는 딸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꿈에 호도를 보아도 견해가 나뉜다. 시퍼런 호도를 보거나, 주어서 끓여 먹으면 딸이고, 반면 익은 호두를 먹거나, 주어먹는 경우에는 아들로 인식했다. 꿈에 (누런)복숭아는 아들로 인식했다. 대추가 나와도 전체적으로 아들이라는 데에 동일하다. 반면 감이 나타나면 딸이다. 벌어진 감을 보거나, 따서 가지고 오거나, 따 먹으면 모두 딸로 인식했다. 그 외에 각각 1회에 불과하지만 배는 딸, 모과는 아들로 나타났다.[67]

산전의례와 마찬가지로 산후의례에서도 청양 지역에서 보이는 몇 가지 특징을 도출할 수가 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출산 과정에서 태의 처리 방식은 무척 의미 있는 자료라 생각된다. 일반적인 양상, 다시 말하자면 태를 자르는 부분은 다른 지역과 큰 차이가 없다. 남편이나 혹은 시어머니가 자르는 것도 그렇고 자를 때는 이빨, 사금바리, 가위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보통 집안에 보관해 두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리를 하는데, 금번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특징으로는 일정 기관 보관해 두었다가 그 태를 볏짚과 함께 강물에 띄어 멀리

67) 청양문화원, 『청양의 금기어, 길조어』, 2004, 41쪽.

보내는 것이다.

산후의례의 두 번째 특징은 아이를 출산 후에 임산부가 먹었던 음식에 관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산모의 산후조리와 관련된 것인데 청양지역에서는 주로 미역을 먹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는 닭을 고아 먹는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미역을 준비해 두었다가 이를 먹는데, 미역국을 먹는 이유는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 때문이다.

세 번째 특징은 집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에 아이가 유산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70-80대 이상의 여성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출산 후에도 몇 달도 되지 않아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도 비일비재하였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무척 가슴 아픈 일이지만 먹고 살기 힘든 시절에는 그러한 감정을 집안 식구들에게 보여줄 수가 없었다고 한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출산 후 삼신을 위한 의례인 삼신모시기에 관한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서도 이러한 의례가 있긴 하나 청양 지역에서도 특별하게 행해졌다는 부분이 의미가 있는 셈이다. 청양 지역에서는 3일, 한이레, 두이레, 세이레, 백일, 돌, 칠석날 삼신을 모시며 산실 방 뒷문 앞쪽에 바닥에 깐 짚이나 남편 옷을 깔고, 앞에 흰쌀밥과 미역국을 놓은 상을 놓고 삼신을 모신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안일 경우에는 냉수만 떠 놓기

도 한다. 밥과 국은 한 그릇씩 놓으며, 세 그릇씩 놓는 경우도 있다. 삼신상에 올렸던 밥은 산모가 모두 먹거나, 산모가 한 숟갈 뜨고 나서 아이들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68)]

마지막으로 출산 이후에 행하는 아이와 관련된 의례, 다시 말하자면 백일과 돌에 관한 내용이다. 청양 지역에서도 백일과 돌은 무척 의미 있는 행사였다. 백일과 돌의 의미가 이전에 비해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례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 형편에 따라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결국 여유가 있는 집에서는 의례를 행하지만 그렇지 않은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일과 돌 가운데 하나의 의례만큼은 반드시 행하였다고 한다. 여유가 없어 백일을 못한 경우에는 다가오는 돌에는 간단하게 음식을 준비하여 이웃과 함께 돌잔치를 하였다. 반대로 백일에 떡을 돌려 이웃들에게 나눠준 경우라면 돌을 그냥 넘어 가기도 했다고 한다. 청양 지역의 백일과 돌에서 눈여겨 볼 부분은 반드시 이날이 되면 사진을 찍는 것이다. 아이를 데리고 시내의 사진관을 찾는 사람도 있었고 친인척 중에 사진기가 있는 분에게 부탁하여 사진을 찍곤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사례를 통해 볼 때 청양 지역의 산속은 나름대로 독창성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일생의례 중에서 산속이 지

68)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 『칠갑문화』 13집, 청양문화원, 2003.10, 30쪽.

닌 특성을 고려한다면 그러한 독창성은 반드시 청양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조사된 자료가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사실만 놓고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양 지역의 산속은 나름대로 지역의 자연 및 인문환경의 토대 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왔다. 그런 점만으로 청양 지역의 산속은 충분한 매력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2) 활용방안

일생의례에 속한 세부적인 의례 대부분이 그러하겠지만 산속은 활용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인 부분이 많은 분야라 할 수 있다. 임신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 형태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콘텐츠로서의 매력이 다른 것에 비해 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이다. 일생의례 가운데 성년의례와 혼례, 그리고 상장례의 경우에는 관광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활용이 진행되고 있긴 하나 산속을 활용한 경우는 박물관이나 전시관 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현실은 산속의 활용성이 약하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산속이 지닌 이러한 한계로 인해 청양 지역의 산속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해야 하는 부분은 과연 활용을 할 수 있는 가치 내지 가능성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활용의 목적도 고려해야 하고 어떠한 대상에게 활용할 것인가를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비단 청양 지역의 산속만이 그러한 것은 아니겠지만 산속이라는 분야는 교육적 활용 가치, 특히 아이들 교육에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여타의 다른 민속 중에는 관광이나 축제와 같이 행사 위주의 활용이 가능하겠지만 산속이라는 장르는 그러한 부분과는 조금 거리가 멀어 보인다. 물론 과감하게 산속을 지역 축제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의 매력이나 상품성을 지니고 있는지는 단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진행을 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일생의례를 소재로 진행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교육 프로그램을 참고할 만하다. 이 프로그램은 표현예술치료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예술 치료는 학습자, 즉 내담자의 정신 심리상의 위기 혹은 고비를 다룬다는 점에서 일생의례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일생의례가 분리-전환-통합의 단계를 거친다면 표현예술 치료는 탐핵-인식-변화-성장-통합의 과정을 거친다. 유사한 부분이 있기에 표현예술 치료의 콘텐츠로 충분히 산속을 비롯한 일생의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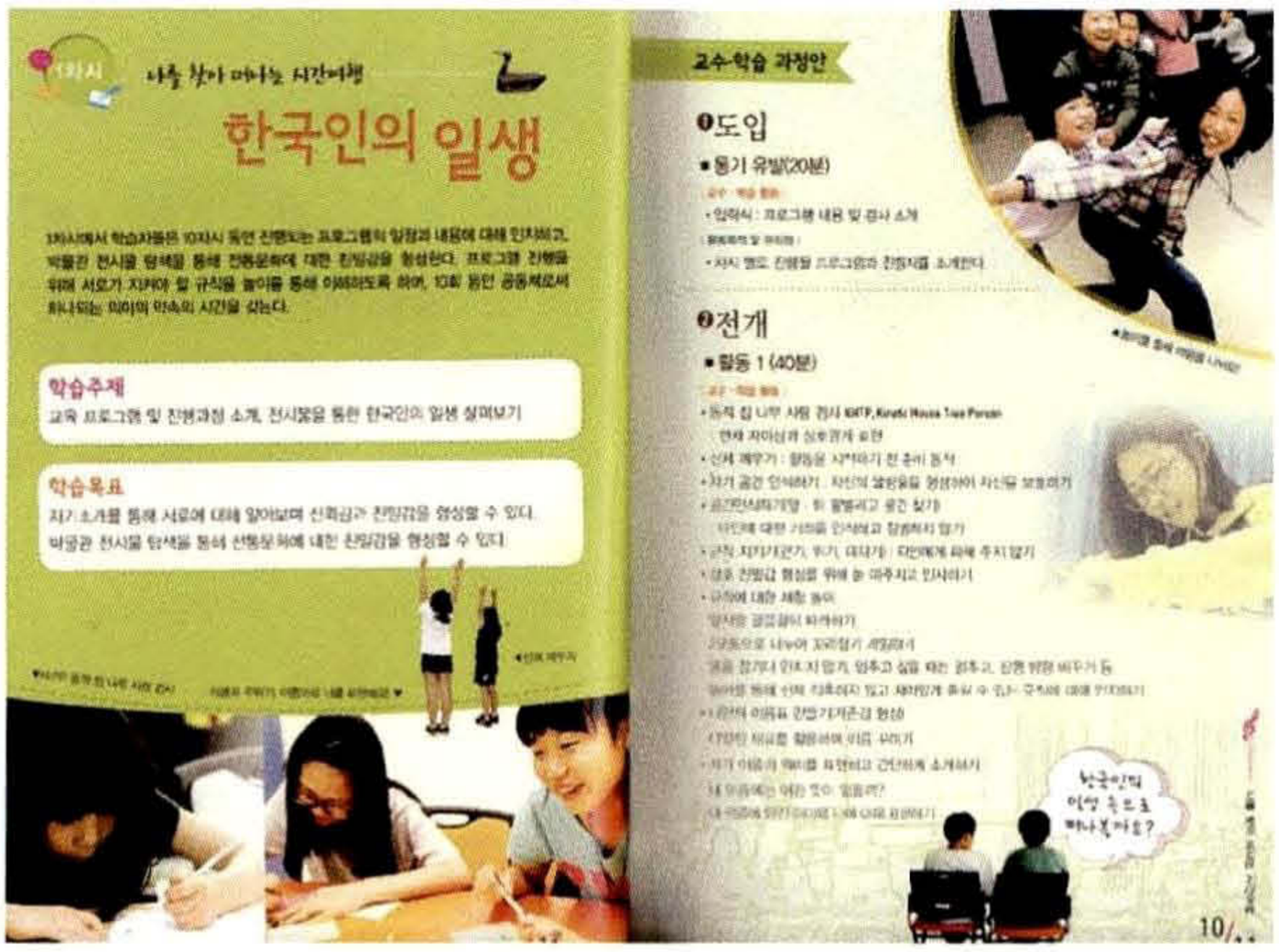


그림 11. 국립민속박물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워크북

활용할 수가 있는 셈이다.[69]

일생의례는 사람의 삶에서 단계적으로 자신의 지위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행해지는 의례이다. 따라서 그것을 치루는 사회 집단의 주도적 인간관(人間觀)과 생사관(生死觀)에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일생의례는 당시 사회에 풍미했던 신앙이나 당대의 지배적인 종교이념이 반영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생의의 교육적 의의 중 하나는 한국인의 일생에 대한 고유한 사고의 근저(根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란 하나는 일생의례를 통해 다른 의례의 요소와 융합되었고, 창조로 이어져왔는지를 알 수 있다.[70] 그리고 일생의례는 오랜 시간을 거쳐 접했던 다양한 문화들이 포함되면서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지만 현재에도 우리가 실천하는 의례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특정한 의식이 지닌 상징

69) 전소윤,「어린이를 위한 일생의례 활용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방안-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0-21쪽.

70) 전소윤,「어린이를 위한 일생의례 활용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방안-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쪽.

과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의미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일생의례는 지속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일생의례를 주제로 어린이들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다면 우리의 역사와 민속에 대해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71] 그런 측면에서 산속을 활용한 교육에서는 자신이 태어나게 된 과정을 이해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특히 청양 지역에서 전승되거나 혹은 전승되었던 내용에 입각하여 그러한 문화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느끼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된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되었던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 여행' 프로그램 가운데 산속에 해당되는 교육은 총 3회(2-4차시)로 진행되었다. 여기에서는 2회 차에 실시된 태어나기와 관련한 프로그램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국립민속북말관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교육

71) 전소윤, 「어린이를 위한 일생의례 활용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방안-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4-25쪽.

출산까지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출산의례에 대해 알아보았다. 출산의례는 아이의 탄생을 기준으로 출산 전과 출산 후로 나누어져 있다. 이와 같은 출산의례는 어린이들에게 태어나기 전부터 중요한 사람이었음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태어나는 과정부터 태어나기까지를 하나의 주제로 선정하였다.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기자신앙을 비롯하여 왜 조선시대에는 아들, 남자가 중요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유물을 통해 이해시켰다. 또한 태어나기 전에 이루어지는 태점, 태몽, 금기 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의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런 시간을 통해 모든 태교와 금기는 산모와 아이 모두 무사하기를 바라는 마음과 아이가 무사히 건강하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음을 이해시켰다. 또한 아이가 태어난 후 즉 산후 금기에 해당하는 금줄의 의미와 금줄에 매달은 고추, 솔가지, 숯, 종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시간을 제공하였다. 조선시대와 달리 현재 어린이들이 태어날 날 부모님이 꾸셨을 태몽과 태교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어머니 뱃속에 자리를 잡은 순간부터 소중한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 학습을 거친 후에 연계된 체험활동은 탄력성 있는 천 주머니를 활용하여 자궁 속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긴 터널 같은 천을 통해 나오면서 탄생의 순간을 경험하고 경험에 대한 느낌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출산 후에 집에 걸었던 금줄로 사용되었던 왼새끼를 직접 만들어 보았다. 이와 같은 체험활동을 통해 아이의 출생에 대한 소중히 여겼던 그 정성을 직접 경험해 보았다. 금줄에는 남자, 여자를 상징하는 고추와 솔가지, 그리고 종이와 숯을 걸어놓았다. 금줄에 걸었던 물건들의 의미와 상징을 알아보고, 종이에 자신이 바라는 바를 적어 금줄에 걸어보는 시간을 통해서 탄생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 보았다.[72)]

---

72) 전소윤,「어린이를 위한 일생의례 활용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방안-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33-35쪽.

개인적을 산속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내용은 백일과 돌잡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돌잡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이들에게 호기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돌과 관련된 의례보다는 그날 행해지는 돌잡이에 아이들이 관심이 많아 보인다.

돌잡이는 비교적 다양한 형태의 교육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청양문화원에서 전략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진행시키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대만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돌잡이를 활용한 소소한 형태의 전시 및 체험이 진행된 경우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연구자가 직접 경험한 대만에서는 돌림판에 돌잡이 과정에서 놓는 물건들, 가령 돈을 비롯해, 청진기 등을 표시한 다음 관람객이 버튼을 눌러 멈추게 한 다음 관련된 점궤를 확인하도록 해놓았다.

참고로 아래의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한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가운데 돌잔치와 관련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한 교육관련 강의안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교육명** : 첫 번째 생일, 특별한 선물
■ **학습주제** : 첫 생일의 문화를 이해하고 나의 첫 생일 경험하기
■ **학습목표** : 돌잔치의 유래를 이해하고 과거와 현대의 첫 생일의례의 변화를 알 수 잇다. 나만의 돌상을 만들어 자신의 존재를 표현하고 자신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
■ **도입** : 동기유발(25분)
– 인사하기 : 즐거운 공간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환영의 인사, 눈을 마주치며 인사하기를 통해 공감형성
– 신체깨우기 : 활동을 시작하기 전 준비 동작
– 모둠나누기 : 눈을 가기로 촉감만으로 상대를 찾아 4명씩 모둠 형성
■ **전개** : 활동1(25분)
– 첫 생일의례 이해하기 : 백일잔치, 돌찬지의 의미, 유래에 대해 이해하기, 배내옷과 타래버선. 돌 관련 음식 등 첫 생일의례와 관련된 옷, 음식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려본다.
■ **전개** : 활동2(50분)
– 전시실 탐색 : 첫 생일의례와 관련된 전시 유물 탐색하기
– 천인천자문 완성하기 : 박물관 관람객 등 주변인에게 천인천지문 받아오기, 타인과 언어 소통을 통해 미션 수행 평가하기
■ **전개** : 활동3(50분)
– 그림으로 돌상 표현하기 : 돌상을 그리고 자신이 잡고 싶은 것을 그려본다.
– 돌잡이 표현하기 : 내가 돌잡이 때 잡았던 물건은 무엇일까요?, 아이의 첫 생일을 축하하고 기념하고자 했던 부모님의 마음 떠올려 보기
■ **정리** : 나눔(30분)
– 활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서로 만든 돌상에 대해 발표하고 소감 말하기, 돌떡을 만들고 나누어 먹는 문화 경험해 보기
– 학습 내용 정리 및 인사[73)]

73) 국립민속박물관,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집,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2012, 30-33쪽.

일생의례 가운데 산속, 특히 청양 지역의 산속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활용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이라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였다.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산속이 지닌 속성과 특성을 고려해 볼 때 청양 지역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제안을 해본 것이다. 청양군이나 청양문화원에서 다른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이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산속을 활용한 교육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내용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청양 지역의 산속과 관련된 물질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수집이 중요하다. 일생의례가 지닌 속성을 감안해 볼 때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쉽지 않겠지만 출산 전후에 사용했던 배냇저고리를 비롯해, 태를 묻는 항아리, 백일과 돌 사진, 기자바위, 출산도구 등이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청양문화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이다.

두 번째는 청양의 문화예술교육 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을 고민했으면 좋겠다. 청양군이나 청양문화원에서 문화예술교육 강사를 양성하여 이러한 교육을 진행할 수도 있겠지만 융복합적인 교육, 특히 오늘날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수준의 전문가 혹은 단체와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교육청과 연계한 일생의례 교육이다. 산속이라는 소재 역시 큰 틀에서 보면 일생의례에 속하기 때문에 산속을 포함한 일생의례 교육을 교육청과 협업하여 청양군 관내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진진하게 고민했으면 한다.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라나는 청양 지역의 아이들에게 우리 지역의 문화를 올바르게 알려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부분에 일생의례가 적극 활용되었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앞서 소개한 국립민속박물관의 체험교육을 벤치마킹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립민속박물관과 협업을 통해 지역에서 이러한 교육을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된다.

아무쪼록 청양 지역 주민들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산속을 비롯해 일생의례가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문화가 아닌 오늘날까지도 우리네 삶에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자라라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청양 지역에서 널리 활성화되길 기대해 본다. 어쩌면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은 현대를 살고 있는 어른들의 역할이자 책무가 아닐까 싶다.

[참고문헌]

경기도박물관, 『경기민속지 일생의례편』, 2002.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25편, 산속』, 1994.
국립문화재연구소, 『한국인의 일생의례-충청북도』, 2011.
국립민속박물관, 『2012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례집, 나를 찾아 떠나는 시간여행』, 2012.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4.
서종원, 「근대적 사고를 통해 본 일생의례의 변화양상 고찰」, 『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 2013.
이광규, 『한국인의 일생』, 형성출판사, 1985.
이상익, 「한국 사사상에 있어서 근대성의 발흥」, 『한국사회와 철학』, 사회와철학연구구회, 2001.
임동권, 『청양의 구비문학』, 2001.
장두식 · 김영순 옮김, 『조선의 습속(조선총독부편)』, 민속원, 2013.
주영하, 「출산의례의 변용과 근대적 변화:1940-1990」,『일생의례로 보는 근대 한국인의 삶』,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편, 2013.
전소윤, 「어린이를 위한 일생의례 활용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개선방안-국립민속박물관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정형호, 「청양의 산속과 민간의료」,『칠갑문화』13, 2003.
청양문화원, 『청양의 민속』, 1973.
청양문화원, 『청양의 구비문학」, 2001.
청양문화원, 『청양의 길조어, 금기어』, 2004.
청양군지편찬위원회, 『청양군지』하, 2005.
정용태, 「한국농촌의 의식구조,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청주대논문집』 8집 5월, 청주대학교, 1974.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디지털진도문화대전).
홍순례, 「기자신앙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1.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성년식

임 장 혁(중앙대학교 교수)





| 차 례 |

1. 성년식의 의미

2. 주자가례에 의한 관례

1) 관례의 절차

3. 민중의 성년식

1) 청양의 두레 가입의례

2) 타 지역의 성년식으로 들돌들기

4. 현대사회의 성인식

사회적 의무와 권리를 인정하는 성년식

1. 성년식의 의미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서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 성년기, 노년기를 거쳐 생을 마감한다. 아동은 대개 13세에서 15세까지 가사 일을 도와주는 정도로 가사노동을 맡는데 가축에게 줄 사료로 풀을 뜯어오거나 청소를 하는 수준에 머물러 부모를 도와주거나 동생을 돌본다. 지역사회는 아동에게 마을일을 맡기지는 않기에 사회적 의무와 책임은 없었으며, 아동들은 명절에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에 참여하는 정도였다. 그러나 성년이 되면 의식을 치루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성년이란 인간이 육체적 성숙하여 남자는 남성으로 여자는 여성으로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이며, 또한 정신적으로도 성숙하여 부모의 보호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성년식은 성인으로 자신 스스로 의무와 책임을 진다는 사회적 의미를 갖고 있다. 성년으로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 이성교제와 결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성년식은 거의 모든 민족에서 행해지고 있으며 의례과정에 고통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성년식은 고통을 극복함으로서 성년으로 인정되어 지역사회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공동체회의나 공동노동에 참여하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게 보편적이다. 즉 일정한 나이에 이르렀다고만 해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며 성인식을 행함으로서 본인 스스로 성인이 되었음을 자각하고 친척이나 지역사회의 주민들로부터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게 된다. 성년은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는 하나의 주체자로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성년식은, 양반은 유교에 의한 의례로 행하였으나, 일반 민중은 놀이형태로 각각 행하였다. 유교에 의한 성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성인식으로 구분되는데, 남성은 '관례(冠禮)', 여성은 성인식을 '계례(笄禮)'라 하여 유교의 절차에 따라 각각 향교에서 진행하였다. 관례는 보통 15세가 되면 상투를 틀어 관건(冠巾-갓)을 씌우는 의식을 중심으로 절차에 따라 행하는 성인식이다. 한편 계례는 머리에 쪽을 찌어 올리고 비녀를 꽂는 의례로 남자와 마찬가지로 보통 15세 전후에 행한다. 성인이 되기 이전의 어린이는 남자는 머리를 묶으며 여자아이는 길게 따서 댕기머리를 하고 다녔었다. 관례와 계례의 중요한 의례는 '머리를 올린다'는 절차에 있다. 따라서 성년식은 댕기머리에서 상투를 트거나 비녀로 쪽을 찌는 등 머리를 올리는 의식으로 외형적으로 성인이 됨을 알리는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반 민간에서의 성년식은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성년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성은 초경-결혼-임신-폐경으로 이어지는 신체적 특징과 변화가 있기에 성년식을 하지 않더라도 성년임을 자각할 수 있으나, 남성은 여성에 비해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고 한다. 따라서 동양이나 서양에서 성년식은 남자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민간에서의 성년식은 두레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성년이 되면 공동노동에 참여할 수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두레가 처음 참여하는 자에게 성년식이 일종의 가입의례로 지역에 따라 달리 전승되었다.

2. 주자가례에 의한 관례

유교(儒敎)는 중국의 공자(孔子)에 의해 만들어진 종교이며 철학사상이다. 관례와 계례는 유교적 사상인 예교(禮敎)에서 비롯된 것으로 조선시대부터 유교가 민간에 보급되기 시작하고 유교적 가정의례인 가례(家禮)를 도입하면서 널리 행하였다. 유교의 가장 큰 덕목으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예절이란 예의와 범절을 뜻하는 말이다. 예의(禮儀)란 남의 인격을 존중하고 경애하는 정신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

내는 것을 말하며, 범절(凡節)이란 일상생활의 모든 일의 순서나 절차에 맞게 말투나 몸가짐, 행동을 바르게 행하는 것이다. 즉, 예절이란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 즉 '동쪽에 있는 예의의 나라'라고 불렀다.

유교가 처음 전래된 때는 대략 삼국시대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유교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실정에 맞게 변화되어 전승된다. 삼국시대의 성인식은 유교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삼국사기』라는 문헌에는 고구려 태조왕(109년)에 처음으로 관례에 대한 기록이 나온다. 이때의 기록은 왕태자에게 의관(衣冠)을 내림으로 관례를 행하였다고 나오며, 이때부터 관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에는 왕태자에게 관례를 행하고 연희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있다.

불교가 국가의 종교였던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도 왕이 직접 유교적 의례인 관례를 치렀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관례가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며, 유교의 영향이 그만큼 중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위에 오르기 전에 관례를 행한다는 것은 관례가 필수적인 의식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유교를 정치적 지배사상으로 채택하

면서 본격적인 유교사회를 이루게 된다. 조선시대 유교의 특징은 실천성을 강조하는 종교이다. 즉 부모나 조상을 대하는 마음가짐도 중요하지만 격식에 맞게 절차에 따라 경의를 표할 때에 비로서 예를 다한 것으로 여겼다. 따라서 모든 의례를 유교식 절차에 맞추어 수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사례(四禮-冠婚喪祭)의 하나인 관례, 계례라는 말에는 공통적으로 예(禮)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 예란 우리사회에의 풍속으로 형성된 행위 준칙, 도덕, 규범 등의 각종 예절을 말한다. 양반들의 자녀가 성년식으로 행하는 관례나 계례는 유교식 성인식으로 복잡한 절차에 따라 행하였다.

1) 관례의 절차

관례의 절차는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진다. 먼저 관례를 치르기 전의 준비과정과 관례를 실제로 행하는 의례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례의식을 마친다는 종결단계이다. 부모가 아들의 성년식을 하기로 정하면 관례를 행할 날짜를 결정한다. 만약 집안에 상(喪)을 당하거나 우환이 있으면 날짜를 차후로 미루는데 이것은 효사상과 관련이 있다. 관례를 행하기 3일전에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관례를 한다는 인사를 한다. 그리고 관례를 주관할 사람인 빈(賓·主禮)을 정한다. 빈은 주로 친척 중에서 어

질고 예를 잘 아는 어른을 모셔 빈으로 삼는다. 관례 때 입는 관복(冠服), 두(幞頭), 모자(帽子), 관(冠,) 계(笄), 건(巾), 세면대, 수건 등 관례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관례 하루 전에는 관례장소인 대청이나 마당을 정돈한다.

관례는 시가례(始加禮)→재가례(再加禮)→삼가례(三加禮)→초례(醮禮)→자관자례(字冠者禮)로 절차에 따라 행한다. 성년이 된 사람은 미리 마련된 세면대에 손을 씻으며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가다듬은 후에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시가례(始加禮)**: 관자는 방안에서 남쪽을 향해 앉아 있다가 자리로 나와 꿇어앉는다. 그러면 시중을 드는 찬자(贊者)가 관자(冠者)의 머리를 빗기고 상투로 틀고 망건을 씌운다. 어른의 평상복을 입힌 다음 축사를 읽고 머리에 관을 씌우고 대(帶)를 매어준다.
- **재가례(再加禮)**: 어른의 외출복을 입히고 머리에 모자(초립)를 씌운다. 관자는 방에 들어가 심의를 벗고 조삼(청포)에 혁대를 띠고 신을 신고 나온다. 성인이 되긴 전의 옷을 벗고 어른의 옷을 입음으로 인해 어른이 되는 의미가 있다.
- **삼가례(三加禮)**: 찬자가 초립을 벗기면 빈이 머리에 갓을 씌운 다음 축사를 한다.
- **초례(醮禮)**: 찬자가 관자의 왼편에 서서 술을 따라 전해주면, 관자는 남쪽을 향하여 마시고 난 후에 잔을 돌려준다. 또는 술

을 마시고 어른으로서 서약을 한다. 이때 술을 마시는 것은 천지신명께 성년으로서 행동하겠다는 서약을 의미한다.

- **자관자례(字冠者禮)**: 빈은 새로운 이름인 자(字)를 지어주는 것이다. 관자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 받음으로서 어른으로 새로 거듭난다는 의미이다. 성년이 되면 주변 사람들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자를 부르게 된다.

본 의례가 끝나면 종결단계로 사당에 가서 조상님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친척과 이웃어른들을 찾아뵙고 어른이 되었다는 인사를 한다. 이렇게 의례를 지냄으로 조상이나 친척, 이웃에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고 인정받게 된다.

향교에서도 유생들이 관례를 행하였다. 향교는 고려시대 역대 왕이 새 정치이념인 유교를 사회질서의 근간으로 하여 정치권력구조를 조직하려 하였다. 또한 고려는 민간에게 유교이념을 보급하기 위해 이를 구현하는 기구로 향교를 건립하였다. 조선왕조는 향교를 각 군현에 세우고 유학교육을 실시하여 숭유억불정책을 확고히 하였다. 청양향교는 유교교육과 성현을 제향하기 위해 설치되어 유생들이 공부하는 명륜당과 숙소인 동재와 서재 그리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성현 27분의 위패를 모신 대성전이 있다. 유생의 관례는 명륜당에서 행하였다. 향교의 관례는 삼가례에서 갓 대신에 유생(儒生)들이 쓰는 두건인 유건

을 쓰는 차이가 있다. 청양향교와 정산향교는 봄에 석전제만 지내고 있으며 관례는 행하지 않고 있다.



그림 13. 대성전 앞 마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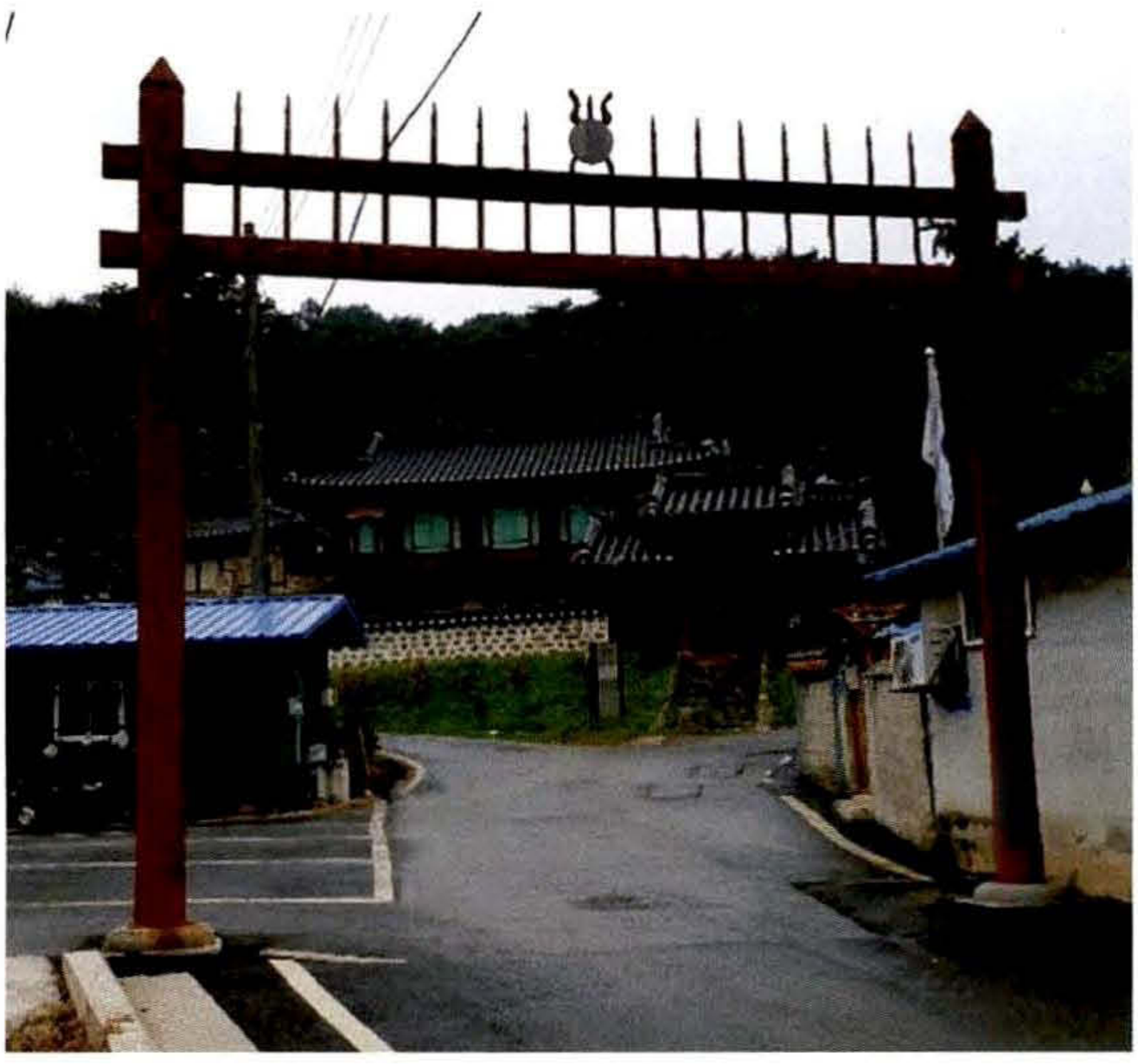


그림 14. 청양향교 전경

2) 계례의 절차

계례는 여자의 성인식으로 초경을 하거나 15세에 혼례를 앞둔 여자에게 비녀를 꽂아주어 쪽을 찌어주는 성년의례다. 계례의 절차는 관례와 비슷하나 의복을 한 번만 갈아입고 진행이 관례보다는 간소하다. 계례가 관례와 차이점은 머리를 올려 쪽을 찌는 것과 비녀를 꼽는 것이다. 그리고 관례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행하는 반면 계례는 어머니가 중심이 되어 빈을 정할 때도 친척 중에서 어질고 예법을 아는 부인을 주례(主禮)로 정한다.

머리에 비녀를 꽂아 쪽을 찌는 것은 머리를 올리는 것으로 성인이 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이다. 또한 남녀의 구분이 확실한 유교사상은 계례에서도 나타난다. 계례를 치룬 여성은 이때부터 바깥출입을 삼가고 주로 집에서 어머니로부터 바느질과 상차림을 배우며 시집갈 교육을 받는다. 주부는 가족의 음식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어머니는 장 담그기부터 음식을 조리하는 방법 등을 성년이 된 딸에게 신부수업을 가르치게 된다.

3. 민중의 성년식

1) 청양의 두레 가입의례

두레는 벼농사가 많은 평야지대에서 모내기와 김매기를 위해

조직되는 공동노동조직으로 단기간에 마쳐야하기에 단기집약 농경을 위해 조직되었다. 청양에서는 두레를 '둘회', '둥구레', '둥그레' 등으로 불린다. 둘회는 '두루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마을의 기금을 마련하고, 마을사람이 모두 모인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두레는 마을의 각 집에서 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기에 마을의 각 집에서 두루 참여하는 데서 어원을 엿볼 수 있다. 두레꾼은 주로 20~40대 남성으로 구성되는데, 자신의 몫을 감당할 수 있어야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두레의 규모는 마을의 가구 수와 관련이 있기에 마을의 규모와 비례하기마련이다. 청양의 두레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좌상**: '좌상공원', '공좌상', '두레장', '사령' 등으로 불리는데, 두레의 총책임자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두레회의에서 선출된다.
- **공원**: 좌상을 보좌하여 두레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좌상의 지시를 일꾼에게 전달하고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 **일꾼**: 두레패에서 농사일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하는 구성원이다.
- **총각대방**: 일꾼 중에서 한 사람을 정해 공원을 돕고 일꾼과 의사소통을 한다. 총각 일꾼 중에서 결혼하지 않은 나이 많은 사람이 맡는다.
- **서사**: 두레의 품값을 장부에 기록하고 참여 일꾼의 명단을 관

리 한다.

– **꽁뱅이**: 일꾼 가장 어리거나 처음 참여자를 지칭한다.

처음 참여하는 꽁뱅이나 어른대신 참여하는 아이는 농사일에 익숙하지 않기에 잡일을 담당하는데 좌상의 담배 불을 붙이는데 사용할 화로를 담당하거나 일꾼들의 신발을 들고 다니며 관리한다. 꽁뱅이는 처음 두레에 참여하면 일꾼과 씨름을 하기도 하는데 힘든 농사일을 할 수 있을 만큼 성인이 되었는지를 테스트해 보기도 한다. 성년식은 통과의례의 하나인데, 통과의례는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며 이를 극복하여야 동료로 인정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두레에 처음 참여한 꽁뱅이는 동료 일꾼들에게 술을 내는데 이를 '꽁뱅이 술'이라고 한다. 일꾼이 꽁뱅이의 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두레의 동료로 인정하는 것으로 성년식의 사회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2) 타 지역의 성년식으로 들돌들기

남성성인식은 '들돌들기'가 있다. 들돌들기는 마을에 있는 90Kg 정도의 무거운 둥근 돌을 마을사람들 앞에서 들어 올림으로서 성인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놀이이다. 옛 농경사회에서 노동력은 생업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였다. 논일이나 밭일에는

힘든 인력이 필요하다. 민간에서는 남녀 없이 가족 구성원 모두 노동에 참여하여 노동생활을 했다. 특히 남자는 논밭을 갈고 수확 때에는 쌀가마를 번쩍 들어 올리며 운반을 해야 했기에 힘든 일손을 담당해야 했다. 따라서 들돌들기는 이렇게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통과의례였던 것이다.

들돌들기는 마을에 공동 노동조직에서 새로운 성원을 받아들일 때 미리 정해놓은 돌을 들게 함으로서 가입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행하는 의례이다. 공동노동은 참여 하게 되면 힘든 일을 수행해야 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인내를 요구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일을 인내하고 견디어 낼 수 있지를 알아보기 위해 고통을 수반하는 일을 시켜서 무사히 해낼 때에 공동체구성원으로 인정하게 된다. 이를 지칭하는 의례를 '들참례'. '입참례'. '신참례' 등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다. 들돌이라는 명칭도 '들독'.'등돌'. '든돌'. '진쇠돌'. '당산돌'. '신돌' 등으로 불려진다. 들돌의 모양은 대부분 원형이나 타원형의 형태이다. 들돌은 마을의 정자나무 아래나 당집 앞에 놓여 있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들돌들기는 마을 청장년들이 서로 힘을 겨루거나 신체를 단련하는 놀이로 행하거나 공동노동조직인 두레에 있어 가입의례로서 행하였다. 마을의 장정들은 들돌을 올리거나 등 뒤로 넘기

며 힘을 겨루고 체력을 단련하였다. 또한 모내기, 김매기처럼 단기간 내에 대규모의 노동력을 집약적으로 필요할 때 우리 조상들은 두레라는 조직을 만들었다. 두레는 한 마을의 공동 작업이 있을 때 협력하여 작업을 하는 공동조직이다. 들돌들기는 두레패의 구성원으로 인정할 지를 테스트하는 놀이이다.

음력으로 7월 15일을 백중날 혹은 머슴날이라고 하는데, 이날은 7월 보름 경 벼농사 중 가장 힘들다고 하는 논매기가 끝나고 쉬는 날로 머슴들이 모여 들돌들기나 씨름을 하며 힘을 겨루는 축제의 날이다. 전라남도 보성군 노동면 거석리에서는 정월 대보름에 들돌 놀이를 하는데, 약 80kg의 돌을 들어 넘기는 놀이로 1등에게는 황소를 준다. 그리고 충청남도 홍성군 구항면 황곡리 하대 마을에서는 '들돌'에 제의를 지내는데, 음력 2월 초하루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평안과 풍년을 기원하는 목적으로 갖가지 음식을 놓고 지낸다.

성년이 되기 위한 관문인 '들돌들기'는 정월 대보름이나 2월 초하루전에 마을사람들이 모여 들돌들기를 하는데 성년이 되었어도 들돌을 들지 못하면 어른대접을 받지 못하였다. 즉 성년이 되기 전에는 간단한 농사일을 돕거나 소를 풀밭으로 몰고가서 풀을 먹도록 하는 정도로 그친다. 힘든 들돌들기를 해냄으로서 본격적인 논일이나 밭일 하여 자기 몫을 다하는 성년으로 인

정받는다. 자신의 몫을 다한다는 것은 성년으로서 결혼하여 자신의 가정을 갖아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으로 보았기에 성년이 된다는 것은 결혼을 할 자격이 있음을 인정받는 것이기도 하다.

4. 현대사회의 성인식

오늘날에는 두발형태도 바뀌었으며 관례, 계례 그리고 들돌들기 같은 전통적인 성인식이 이미 사라졌으며 현대사회에 맞는 성인식이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성인식을 하는데, 매년 5월 셋째주 월요일을 '성년의 날'로 정하여져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이나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19세가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이때부터 투표에 참여 할 수 있고 군대에 갈 수 있으며 또한 술집에도 출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즉 성년이 되면서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해야 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성년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성년이 된 젊은 연인들은 성년의 날에 화장품, 향수, 장미꽃 등을 선물하며 축하해준다. 여자는 성년이 되어 화장을 해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고등학교까지 엄격히 규제를 받아온 여학생들은 성년이 되면서 화장을 해도 좋다는 사회적 의미

가 선물 속에 담겨 있다. 또한 남녀교제가 비교적 엄격한 한국 사회에서 성년이 되면서 자유연애가 부모로부터 허락되는 시기도 성년부터 이기에 성년의 날에 연인이 키스를 하는 풍속도 있다고 한다. 남자에 있어선 군대 입대는 성년으로 인정받는 계기도 되는데 흔히 군대를 제대하면 자신의 몫을 스스로 감당하고 부모의 울타리로부터 독립하고 사회에 진출하며 결혼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엄격한 유교의 규범이 점차 사라지는 오늘날 성년식은 점차 사라지고 있지만, 성인으로 인정받는 사회적 관문은 그 기능을 작용하고 있다.

남녀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혼례

임 장 혁(중앙대학교 교수)



I 차 례 I

1. 혼례의 의미

2.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

3. 청양의 혼례

1) 중매
2) 함보내기
3) 대례(大禮)
4) 초야(初夜)
5) 신행(新行)
6) 폐백과 재행 · 근친

4. 타 지역과 전통혼례의 비교

5. 근대화이후 결혼식의 변화

남녀 결합을 사회적으로 인정하는 혼례

1. 혼례의 의미

결혼은 성인의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결혼의 의미는 남녀의 성적결합에서 우선권을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며, 결혼한 두 사람은 경제적 협력관계이며 정치적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동맹의 관계를 맺는 사회적 의미가 있다. 성인 남녀가 부부로서 지역사회 또는 친족으로 부터 인정받는 의례가 혼례이다. 결혼으로 한 가족을 이루고 자식을 낳음으로써 집의 존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혼례는 이성이 서로 결합하여 사회가 인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부가 되는 의식이다. 혼례를 통해 남과 여는 부모와는 독립된 가족을 구성하게 되며, 특정한 사회적 범주와 조건, 그리고 요건을 갖춘 사람들 사이에서 혼례가 이루어진다. 혼례는 일정한 사회적 규정 속에서 행해지는데, 단지 개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배경, 경제적 조건, 사회적 조건 등의 영향을 받는다. 성년이 결혼을 하는 계기는 자유연애 혹은 중매에 의해 계기가 되는데, 자유연애는 마을 내에서 성년의 남녀 간에 자연스런 교제를 말한다. 그러나 중매는 각기 다른 마을 간에 남녀가 중신애비를

통해 의해 의사타진 후에 결혼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결혼은 자유연애에서 중매결혼으로 변화하였다. 중매결혼은 타 지역이나 마을과 주로 혼사가 성립되는데, 청양은 광천 · 대천 · 부여 · 공주 등의 지역과 혼사가 성립되기도 한다. 타 지역과의 주로 혼사가 성립하는 지역적 범위를 통혼권(通婚圈)이라 한다. 통혼권은 오일장이 서는 전통시장(市場)의 주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시장의 상인은 5일장을 인근 지역을 주기적으로 돌며 개설하였다. 따라서 타 지역의 정보는 상인들에 의해 전달되는데, 각 지역의 단골들의 가정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때로는 중매의 역할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기에 통혼권은 전통시장의 주기적 개설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우리의 고유한 혼례 풍속은 유교의『주자가례』의 영향에 따른 혼례과정이 점차 정착되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혼례 풍속은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른 뒤 신부의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나『주자가례』에 의한 혼례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 신랑 집에서 혼례를 치르기 때문에 친영(親迎)의 과정이 반드시 수반되었다. 이러한 민간에서의 습속과 조선시대 유교적 절차의 차이로 유교적 혼례방식이 정착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민간에서는 오히려 신부의 집에서 혼례를 치르는 것이 보편적으로 드러난다.

2. 주자가례에 의한 혼례

전통혼례는 육례(六禮)와 사례(四禮)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중국 주나라에서 시행된 육례는 납채 · 문명 · 납길 · 납징 · 청기 · 친영의 과정으로 시행된다. 한편 주자(朱子)가 주장하여 『가례(家禮)』의 혼례조에서 의혼 · 납채 · 납폐 · 친영의 네 단계로 행할 것을 권하였다. 이러한 사례가 조선조에 수용되어 널리 행하였다. 그러나 사례의 전승은 지방에 따라 혹은 가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사례를 살펴보고 청양의 혼례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 **의혼(議婚)**: 신랑과 신부 양측 집안에서 중매인 등을 써서 혼인을 성사시키는 과정으로 청혼을 하고 이를 허락해 결혼할 것을 결정짓는 것까지를 말한다. 민간에서는 의혼이란 말 보다는 중매를 통해 혼담이 오가고 양가의 혼인의사를 밝힌다.
- **납채(納采)**: 혼담이 결정되면 남자 측에서 여자 집에 남자의 생년월시를 적은 사주단자와 청혼장을 보내는데 이를 납채라 한다. 여자 측에서는 이 사주에 따라 길흉을 점쳐 '연길(涓吉)'이라고 써서 봉한 택일단자를 붉은 보자기에 싸서 남자 집에 보낸다.
- **납폐(納幣)**: 여자 집에서 택한 날짜에 식을 올리는데, 그 전날 남자 측에서는 청홍보자기에 싼 혼서지와 납폐를 보내며, 예식이 끝나고 여자가 시집에 갈 때에 폐백을 남자 집에 드린다.

– **친영(親迎)**: 신랑이 혼례를 치루기 위해 신부 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사당에서 초례를 드린 후 떠나는데 이를 초행(初行)이라 한다. 신랑일행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간단하게 요기를 한다. 신랑은 신부 집 앞마당에서 촛대, 꽃병, 밤, 대추, 쌀, 보자기에 싼 암닭 등을 놓은 교배상을 놓고 신부와 절을 하고 술잔을 교환한다. 혼례 후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3. 청양의 혼례

1) 중매

근래에는 결혼이 주로 30세 전후로 개인차도 크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 남자는 20세 전후, 여자는 16~18세, 늦어도 20세 전에 결혼을 했다. 당시에는 자유연애에 의해 결혼이 아니라 중매에 의해 양가의 어른들의 결정에 의해 결혼의 성사여부가 결정되었다. 중매하는 사람을 '중신애비'라 하는데 양가에 대해 잘 알고 있어 혼인의사 여부를 타진한다. 중신애비는 친척이나 이웃사람이 중매를 하는데 다른 마을로 시집을 가거나 분가를 하여 양가의 중매를 하였다. 중신애비는 여자와 남자의 집안의 내력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양가의 부모는 궁합을 보고 혼사여부를 결정한다. 납채에서 남자의 사주단자를 여자 집에 형

식적으로 전하지만 실제에 있어선 사주단자가 전해지면 양가는 결혼이 수락한 것으로 본다. 혼사가 성사되면 중신애비에게 답례로 닭 한 마리나 떡 한소쿠리를 주기도 했다.

2) 함보내기

대례일이 결정되면 본격적으로 혼례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신랑 집에서는 신부 집으로 함을 보낸다. 함은 대례를 치르기 3일 전에 함진아비가 들고 오기도 하고, 신랑이 대례를 치르러 올 때 함진아비도 함께 대동해 오는 경우도 있다. 함진아비는 신랑 집에서 부리는 하인이거나 마을의 대소사를 도와주는 사람으로 나무로 만든 함에 붉은 보자기를 씌워서 메고 온다. 함 속에는 청실홍실과 치마·저고리 두벌을 종이에 싸서 넣는데, 시댁이 풍족한 집안인 경우 바지, 단속곳, 버선, 저고리 3개(파란색, 분홍색, 노란색)와 치마 3개(검은색, 남색, 붉은색) 등을 보내주기도 했다. 이렇게 함을 보내는 것을 납채(納采), 혹은 채단(綵緞)이라 한다.

함진아비가 신부 집 앞에서 '함 드립니다'하고 외치면 복수가 나와서 받는데, 복수는 아이를 많이 낳고 부부 내외의 사이가 좋은 복 있는 여자이다. 복수가 함을 받는 것은 시집가는 여자도 복수처럼 잘 살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복수는 함을 받아서 피팥떡

(시루떡)을 한 봉채시루 위에 올리고, 그 위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3번 반복한 뒤 방으로 옮긴다. 신부집은 납폐에 대한 준비로 멍석을 깔고 상을 놓고 병풍을 쳐놓으면 함진아비는 함을 벗어 상 위에 놓는다. 신부 측에서 다복한 여자가 함을 받아 놓는다.

함이 들어오면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신부의 어머니는 함 속을 보지 않고 손만 넣어서 물건을 꺼내어 본다. 이 때 노란색이 나오면 좋고, 남색 물건을 꺼내면 부부가 남이 된다고 하고, 검은색 물건을 꺼내면 이별수가 있어서 좋지 않다고 한다. 함진아비는 신분이 낮거나 나이가 어리더라도 절대로 하대하지 않으며, 함을 받으면 함진아비에게 크게 한상을 차려주는데 함을 가져온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이다.



그림 1. 신랑 동료가 메고 온 함



그림 2. 신부 집에서 납폐 준비하고 함을 받는다

3) 대례(大禮)

혼례를 대례 또는 전안례라고 하는데, 청양에서는 주로 신부의 집에서 대례를 치렀다. 대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신랑과 신부는 대례복을 갖추어야 한다. 신랑은 바지저고리에 두루마기를 입고, 사모관대를 하며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검은 신을 신는다. 신부는 빨간 치마와 파란 저고리 위에 원삼을 입으며, 머리에는 족두리를 쓰고 큰 댕기를 내린다. 그리고 이마와 양 볼에는 빨간 색지를 잘라 연지곤지를 찍는데, 시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이마와 양 볼에 붙이고 계시지 않으면 두 볼에만 붙인다.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은 비단으로 만든 특별한 옷으로 부잣집에

서는 직접 만들 수 있어도 대부분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구입해 놓은 혼례복을 빌려 입었다. 이러한 경우 신부의 마을에 혼례복을 빌릴 수 있으면 신부의 집에서 빌리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신랑이 혼례복을 가지고 오는데, 신부의 옷은 함에 함께 넣어서 가지고 온다. 신부의 화장과 옷을 입는데 도와주는 사람은 신부네 마을사람이나 친척 중에 결혼한 여자가 맡아서 해주는데 이분을 '진각시'라 한다.

신랑이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기 위해 오는 것을 '장가온다'고 하는데, 시아버지나 시댁의 남자 어른이 동행하며 이를 '바양' 또는 '후행'이라 한다.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들어올 때는 대문 앞에 박을 엎어 놓고 이를 밟아 깨트린 후 들어온다. 신랑은 대례 당일이나 하루 전에 청색, 홍색의 천으로 싼 나무오리를 가지고 신부 집으로 오는데,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오리를 초례상 앞에 내려놓고 절을 한다. 그러면 신부의 어머니는 오리를 몰래 치마 속에 감춰서 채독그릇(쌀 항아리)에 숨겨 두었다가 대례 때 꺼내어 사용한다.

대례를 치르는 앞마당에는 차양을 치고 병풍을 두르고 대례상을 차리는데, 대례 상을 독대상이라고도 한다. 앞마당은 일상적인 공간이지만, 병풍을 치면서 성스러운 공간으로 연출되며 대례상을 병풍 앞에 놓는다. 대례상 위에는 곶감, 밤, 닭, 청

실홍실, 용떡(또는 용꼬리떡), 대나무, 소나무(또는 사철나무)를 올리는데, 대나무와 소나무는 평생 변치 않고 푸르게 살라는 의미로 흰 병에 꽂아서 신랑 쪽에는 청실, 신부 쪽에는 홍실을 걸어 둔다. 용 떡은 흰떡을 청색과 홍색으로 물들여 용 모양으로 말아 올린 것으로 팥을 섞은 찰밥을 대신 올리기도 한다. 닭은 암수를 각각 한 마리씩 보자기에 싸서 상에 놓는다. 대례가 시작되면 신랑은 동쪽, 신부는 서쪽에 서는데, 집의 방향과 생기 복덕에 따라 손이 없는 방향으로 서기도 한다. 신랑신부가 서로 절을 하고 합근례(合巹禮)라 하여 술잔을 주고받는다. 술잔은 표주박을 반으로 쪼개서 신랑신부가 각기 술잔으로 사용한다. 예로부터 여자 집에서는 그해에 딸의 혼사 있으면 표주박을 심어서 혼례에 술잔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표주박 하나를 갈라서 신랑신부가 각기 나누어 갖고 술잔으로 사용하는 것은 표주박 잔을 합치면 하나가 되듯이 부부의 합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서양의 결혼식에서 신랑신부가 케익을 같이 자르고 함께 먹고 또한 커플링을 서로 끼워주듯이 모두 둘을 하나로 합일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례이다. 합근례는 두 사람의 합일을 표현한 전통적 의례라 할 수 있다. 술을 마신 후에 신랑은 밤을 먹고, 신부는 대추를 먹는다. 이는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의미로 밤은 아들, 대추는 딸을 상징한다. 밤과 대추를 먹이면서 장

난을 치기 위해 밤 속에 고춧가루를 넣기도 한다.

대례를 치르는 동안에는 부정한 사람이 혼례를 보는 것을 금기하며, 신랑이 들어갈 때나 신부가 들어갈 때 신랑, 신부와 지장살이 닿는 사람이 있으면 집 밖으로 다 나가게 한다. 신부나 신랑이 들어갈 때 살이 다면 죽기 때문에 그러하며 그것을 '임동티' 또는 '동티난다'라고도 한다. 이는 모두 지장살이 닿는다고 하여 부정을 막기 위해 모든 위험요소를 배제한다. 대례가 끝나면 닭을 날려 보내고, 상 위에 있던 오리를 장모가 훔쳐간다.

대례가 모두 끝나면 '하문시키기'라고 해서 혼례가 끝난 뒤 마당에 쳐 놓은 병풍 뒤에서 신랑, 신부를 잠깐 동안 만나도록 배려한다.



그림 3. 병풍 앞에 차린 대례상 앞의 신랑 신부

4) 초야(初夜)

신혼 첫날밤에 조배상이라고 갖다 놓는다. 신랑은 술을 마시지만 신부는 거의 먹지 않는다. 신랑과 신부는 안방에서 첫날밤을 지내게 되는데, 신부가 먼저 방에서 기다리고, 신랑이 들어오면 아들 낳기를 바라는 뜻으로 밤을 소리 내서 깨문다. 신부의 옷은 반드시 남편이 벗겨 주어야 잘 산다고 하고, 신랑이 신부의 버선 아래부터 뽑거나 오여발(왼발)부터 벗겨야 아들을 낳는다고 믿는다. 신랑신부가 첫날밤을 보내는데 가족들과 동네 사람들은 문에 구멍을 뚫고 들여다보기도 한다. 이를 '수신방'이라 하는데 사람이 뚫어서 보지 않으면 귀신이 뚫어서 보기 때문이라고도 하고 신랑이 서툴어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도 한다. 신부는 결혼하며 주부가 되어 불씨를 관리해야 하기에 불을 어떻게 끄는지 보기위한 것이라고 한다. 즉 신부는 입으로 불어서 꺼서는 않되고 손이나 이불자락으로 꺼야 한다. 문구멍으로 지켜보던 사람들은 불을 끄면 돌아간다고 한다.

초야를 치르고 다음날 새벽에 아침식사 전에 신방으로 떡국을 끓여서 넣어 주는데, 이를 '자리소반' 또는 '의안상'이라고 한다. 혼례식을 치룬 다음날 저녁에는 신부집 동네사람들이 와서 신랑다루기를 한다. 술과 고기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청년단이 신랑에게 짓궂은 질문을 하고 답을 못하면 발을 위에 매달아 놓

고 방망이나 북어로 발바닥을 때린다. 이를 '신랑 다루기'라 한다. 신랑을 괴롭히는 것은 색시를 빼앗아갔다는 의미로 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신랑다루기는 신랑의 사회적 위치가 결혼함으로서 새로운 가정의 가장으로 이행(移行)하는 과정에 있기에 고통을 이겨내어야 인정하는 사회적 의미가 담겨 있다. 통과의례에서 이행의 과정은 대부분 고통을 수반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한다.

5) 신행(新行)

첫날밤을 보낸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본가로 가게 되는데, 보통 하루를 자고 시댁으로 떠나지만 거리가 멀다면 3일정도 지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 신랑신부가 신행을 갈 때는 신부집에서 준비한 폐백닭과 신부가 입을 옷, 신랑의 숟가락、밥그릇을 준비해 사령구(네 명이 메는 가마)를 타고 신행을 가는데, 이 때 신부를 보살피기 위해 큰아버지나 삼촌 등 신부의 남자 친척이 따라가는데, 이를 후양[後行], 바양, 각시바양이라고 한다. 바양은 신부의 친척 중에서 아들을 낳았던 어른이 동행하는데, 이는 혼인하게 되는 부부도 바양을 간 사람처럼 아들을 잘 낳기를 바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바양과 함께 한님도 신부를 따라서 가는데, 한님은 시댁에 가서 신부를 돕는 사람이다.

신행을 가는 길에 서낭당을 지나게 되면 헝겊을 걸어두는데, 잡귀(雜鬼)가 붙지 말라는 뜻이다. 가마가 마을에 도착하면 진각시들이 마을 입구로 마중을 나오는데, 진각시는 신랑 집안의 여자 중 첫 아들을 낳고 복이 많은 사람으로 정하고, 신부가 손님맞이를 하는 3일 동안 옷을 갈아입히거나 밥을 먹여주는 등 신부를 돕는다. 또한 청양에서는 신부가 신행을 올 때 옥녀각시를 따져서 온다. 옥녀각시는 신행 갈 때 피해야 하는 방향으로 '옥녀각시를 옆구리에 끼고 와야 좋다.'는 말이 전한다.

옥녀각시는 청양의 혼례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으로 3개월마다 동-남-서-북으로 순환하는 신행의 금기방위를 따지는 속신이다. 즉, 1~3월은 옥녀각시가 동쪽에 있고, 4~6월은 남쪽, 7~9월은 서쪽, 10~12월은 북쪽에 있어 신부 집에서 바라본 신랑의 집이 옥녀각시의 방향과 일치하는 경우 신행길을 돌아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옥녀각시 속신의 행위다. 하지만 그 믿음이 강해지면서 신행일(新行日), 시댁의 출입방향, 신부의 좌향(坐向)까지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난다. 옥녀각시는 신행방향을 보는 것과 시댁으로 오는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옥녀각시를 앞에 두고 가면 시댁이 망하고, 뒤에 두고 가면 앞에 두고 가며, 옆에 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속신이 회자된다.

옥녀각시는 주로 경쟁이를 중심으로 암자승, 지관, 선거리 등 음양오행과 역법을 통해 택일이나 사주 등을 볼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전승되었다. 옥녀각시는 『천기대요』에 기록된 '옥녀살'의 원리와 일치하며 경쟁이가 전파의 중심적 역할을 했다. 경쟁이는 무당으로써 혼인에 택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직접 여성들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또한 암자승은 경쟁이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반승반무적(半僧半巫的) 존재이며, 이들이 정주하는 암자는 경쟁이의 학습공간이기 때문에 옥녀각시와 관련이 깊다. 이 외에도 길일을 보는 지관과 여자 점쟁이인 선거리 등도 옥녀각시 에 대한 속신을 민간에 보급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6) 폐백과 재행 · 근친

(1) 폐백

신행 온 다음날 폐백을 한다. 시루떡, 밤, 대추 등과 신부가 가지고 온 닭을 흰 종이에 싸서 상에 올린다. 폐백에 사용하는 닭은 머리를 자르지 않고 털만 뽑아 삶아서 청색 종이와 붉은색 종이를 잘라 닭털처럼 삶은 닭 위를 장식한다. 폐백 상을 모두 차리고 나면 신랑과 신부는 시댁 어른의 순서대로 술을 올리고

절을 한다. 시부모와 어른이 술과 절을 받는 것은 며느리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다. 시부모는 신부의 치마폭에 자식과 아들을 많이 낳으라는 상징적인 밤과 대추를 던져준다.

폐백이 끝나면 신부는 한복을 입고 3일간 손님맞이를 하여 피로연을 연다. 피로연 끝난 후부터 신부는 부엌에 가서 소당(솥뚜껑)을 들어 본 뒤 집안일을 시작한다. 또한 신부는 몇일간 시부모에게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문안인사를 드린다.

(2) 재행

혼례를 치루고 일주일 안에 신부는 친정을 방문한다. 시부모의 허락이 있으면 신랑은 신부 집에서 온 사람을 따라 동행하는데 이를 자양[再行]이라고 하며, 신부는 혼례를 잘 치르고 시댁의 식구로 받아들여졌음을 친정에 알린다. 이 때 처가에서는 신랑이 오면 '나이떡'이라 하여 인절미를 나이 수만큼 쌓고 그 위에 커다랗게 만든 떡을 얹어서 먹기 어렵게 해서 주는데, 신랑이 떡을 어떻게 지혜롭게 빼서 먹는지 보고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했다고 한다.

(3) 근친

신부는 일 년에 한번 정도로 친정을 방문할 수 있는데 이를 근친이라 한다. 근친은 시어머니가 허락을 해 주어야 갈 수 있

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다. 주로 농한기일 때에는 바로 근친을 갈 수 있었지만 농번기일 때에는 농사가 끝난 가을이 되어야 근친을 갈 수 있었다. 근친을 갈 때는 '이바지'를 해서 갖고 가는데, 이바지에는 인절미 3말, 하얀 떡 3말, 맑은 술, 묵, 찐 생선을 가져간다. 생선도 실고추가루를 묻혀서 예쁘게 찐다. 근친을 갈 때에는 신랑은 가지 않기 때문에 시아버지나 시댁의 남자 어른이 신부를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고 시아버지는 바로 돌아오며, 신부는 며칠을 지내고 돌아온다. 신부가 시댁으로 돌아올 때에도 이바지를 해 오는데, 음식뿐만 아니라 시댁식구들 수만큼의 버선도 마련해서 가지고 갔다.

4. 타 지역과 전통혼례의 비교

문화재관리국이 『한국민속종합보고서』에 발간한 1970년대의 보고서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군(郡)단위에서의 혼례의 형식은 구식결혼 즉 전통혼례가 지배적인 것으로 전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중매혼인이 일반적이며 '중매애비','매파'(평안도 · 함경도),'중매쟁이' 등으로 불리는 중매인에 의에 혼담이 오가고 결혼이 성립되었다. 전통혼례는 1970년대까지 지속되었지만 조혼(早婚)의 풍속은 1920 · 30년대에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그

러나 재가승부락(在家僧部落)은 1950년대 까지 지속되었다. 이들은 일반인들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기에 자기들끼리만 혼인이 가능하였고, 남녀 간에 접근을 금하는 내외법이 적었기에 자유연애가 가능하였고 부모간의 합의로 혼사가 성립되었는데 당사자의 의견을 존중하였다.[1] 결혼은 마을 내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자유연애에서 타 지역이나 이웃마을에서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매결혼으로 이행되었다. 또한 모계사회에서 부계사회로 이행되었기에 혼례를 신부 집에서 행하는 것은 모계사회의 잔존이라 할 수 있다. 유교가 지배하는 전통사회에서 혼례를 신랑집이 아닌 신부 집에서 행하는 것도 이러한 영향이라 할 수 있다.

혼례의 날자를 정하는 것을 '날받이'이라고도 하는데, 주자가례에는 연길이라 하여 신부집에서 정하여 알리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신부집 또는 신랑집에서 정하는 경우가 반씩 차지하고 있다. 양반의 경우에는 신부집에서 경우가 많으며, 일반 서민은 신랑집에서 정하는 경우가 많다.[2] 즉 양반은 주자가례에 따라 신부 집에서 택일을 하도록 하였다. 택일은 함경도에서는 복술에게 의뢰하는데 즉 무당에게 점을 보아 날을 받는다. 점술가에게 택일을 의뢰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전승되었다. 특히 일반민중은 대부분 문자를 모르기에 책력이나 점술책을 읽을 수 없

1)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함경남북도편』, 61쪽.
2)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상남도편』, 146쪽.

기에 무당에게 날을 받아야 했다. 지역에 따라 무당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가 있기에 청양의 옥녀각시 전승은 타 지역에 잘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전승이라 할 수 있다. 충청도는 앉아서 독경으로 굿을 하는 무당이 많다. 이들은 '정각' 또는 '정각쟁이'라 불리는 남성무당으로 북과 꽹과리를 두드리며 독경을 하는데 타 지역의 여성무당과 굿 형식에 차이가 있다. 충청도 앉은굿은 대전을 비롯한 충청도 지역에 전승되는 굿의 한 종류로서, 앉아서 하는 굿이라는 의미로 앉은굿이라고 한다. 충청도 일대에서는 법사(法師) 또는 법사라고 하는데 이들은 경(經)을 읊조리면서 굿을 하는데, 이를 독경(讀經) 혹은 설위설경(設位說經)이라고 한다. 설위는 경을 읽는 장소인 경청(經廳)을 차리는 것을 의미하고 설경은 〈옥추경(玉樞經)〉이라는 경을 읽는 종교 의식을 의미한다. 설위는 경청에 모시는 신장(神將)들의 위계를 나타내는 위목(位目)을 설치하고 그 위목에 맞는 종이를 잘라 오린 각종 신들의 형상을 설치한다. 법사는 방위와 관련하여 신의 위치를 정한다. 법사는 앉아서 징, 북, 꽹과리 등의 악기를 직접 연주하면서 설경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굿처럼 별도의 악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청양의 옥녀각시 속신은 신행일일(新行日), 시댁의 출입방향, 신부의 좌향(坐向)까지도 영향을 주어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난다. 옥녀각시는 신행방향을 보는 것과

시댁으로 오는 전 과정에서 옥녀각시를 보는 경우도 나타나는데, '옥녀각시를 앞에 두고 가면 시댁이 망하고, 뒤에 두고 가면 앞에 두고 가며, 옆에 두고 가는 것이 좋다.'는 속신이 회자된다. 이러한 속신은 법사에 의한 혼례풍속으로 전승되고 있다.

청양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는 신행에 잡귀가 붙지 않도록 서낭당을 지나며 헝겊을 걸어둔다 했다. 신행은 일반적으로 신랑 집 앞에 짚불을 피워 재위를 지나도록하여 부정을 막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북 안동에서는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올 때에 대문 앞에 불을 피워놓고 콩과 팥을 가마 위에 던진다.[3] 콩이나 팥은 부정을 제거하기 위해 뿌리기도 하지만, 다산을 위해 뿌리기도 한다. 콩물로서 부정을 쫓거나 다산을 기원하는 주술적인은 방법은 국내뿐만이 아니라 농경민족이 널리 전승되고 있다. 어쩌면 청양의 혼례에 곡물을 의례적으로 사용은 현재 전승되고 있지 않지만 어쩌면 소멸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5. 근대화이후 결혼식의 변화

근대화와 더불어 서양식 혼례 수용되어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혼례는 친족이나 마을 이웃이 혼례를 도와주고 대례를 보고

3)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보고서-경상북도편』, 134쪽.

축하한다. 즉 전통혼례는 사람들 앞에서 혼례를 하는 인전결혼(人前結婚)이다. 그러나 서양의 결혼식은 교회에서 목사의 주제하에 신 앞에서 혼례를 치루기에 신전결혼(神前結婚)이라 할 수 있다. 근대화에 따라 서양의 결혼에 전해지면서 1960년대에 결혼식장이 등장하게 되었고 목사를 대신에 주례가 혼례를 주제(主祭)하게 되었고, 결혼식장이 1960년대부터 도시에 등장하게 되었다. 청양읍내에 예식장이 들어서게 된 것은 2000년대 이후이다.

서양의 혼례가 보급되면서 현대식 결혼의 변화는 혼례복이 일반화되었으며 신부는 면사포에 흰색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검은 양복을 예복으로 입었다. 현대 결혼식이 정착되었지만 전통적 방식이 지속된 것은 폐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즉 신부 집에서 행하던 대례는 예식장에서 서양식으로 수용하였지만, 시댁에서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의례인 폐백은 전통적 방식이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폐백에는 전통 혼례복으로 갈아입고 행하고 있다. 단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성 평등이 확산되면서 인식의 변화가 있어 근년에는 신부의 부모에게도 폐백을 드리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유교적 혼례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변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적 혼례의 정착은 혼례에서 신혼여행이 일반화되었다.

서양이나 동양에서 신혼여행은 본래 혼례를 올린 후에 여러 신에게 알리기 위해 순례를 떠났다. 우리의 전통혼례는 혼례를 치룬 후에 사당에 모신 조상의 위폐에 고하는 정도였다. 즉 한국의 불교의례에서 전통적으로 순례는 없었다. 서양의 혼례를 치룬 후에 신랑신부의 순례는 신혼여행으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결혼직후에 신혼여행을 떠나는 풍속이 정착되었다. 1960년대에는 신혼여행이 온천을 가는 정도였고 198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과 더불어 제주도를 선호하였다. 또한 해외여행자유화가 실시되면서 신혼여행은 1990년대 이후에는 해외여행으로 발전하였다. 근년 들어 신혼여행은 세계적인 휴양지를 선호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

전통혼례에 참여자는 친척과 마을의 청년단이 적극 참여하지만, 현대 결혼식은 신랑신부 부모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이나 동료가 대다수가 참여한다. 결혼식장에 놓여 진 화환은 부모의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표상물이라 할 수 있다. 어쩌면 혼례의 주인공은 신랑신부이지만, 근년에는 혼례가 양가부모가 며느리와 사위를 받아들이는 축하의 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혼례보다는 피로연이 신랑신부의 축하의 장이기도 하지만 양가의 부모가 하객들로부터 주목을 받는 장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대는 혼례보다도 피로연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결혼이 화려하게 행하였으나 점차 간소하게 신랑과 신부의 가까운 동료와 친족이 중심이 되어 참석하여 간소하게 지내고 있다. 근년에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을 간소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만혼 또는 독신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결혼식장도 점차 소규모화로 변화하고 있기에 혼례의 방식도 이벤트로 형태가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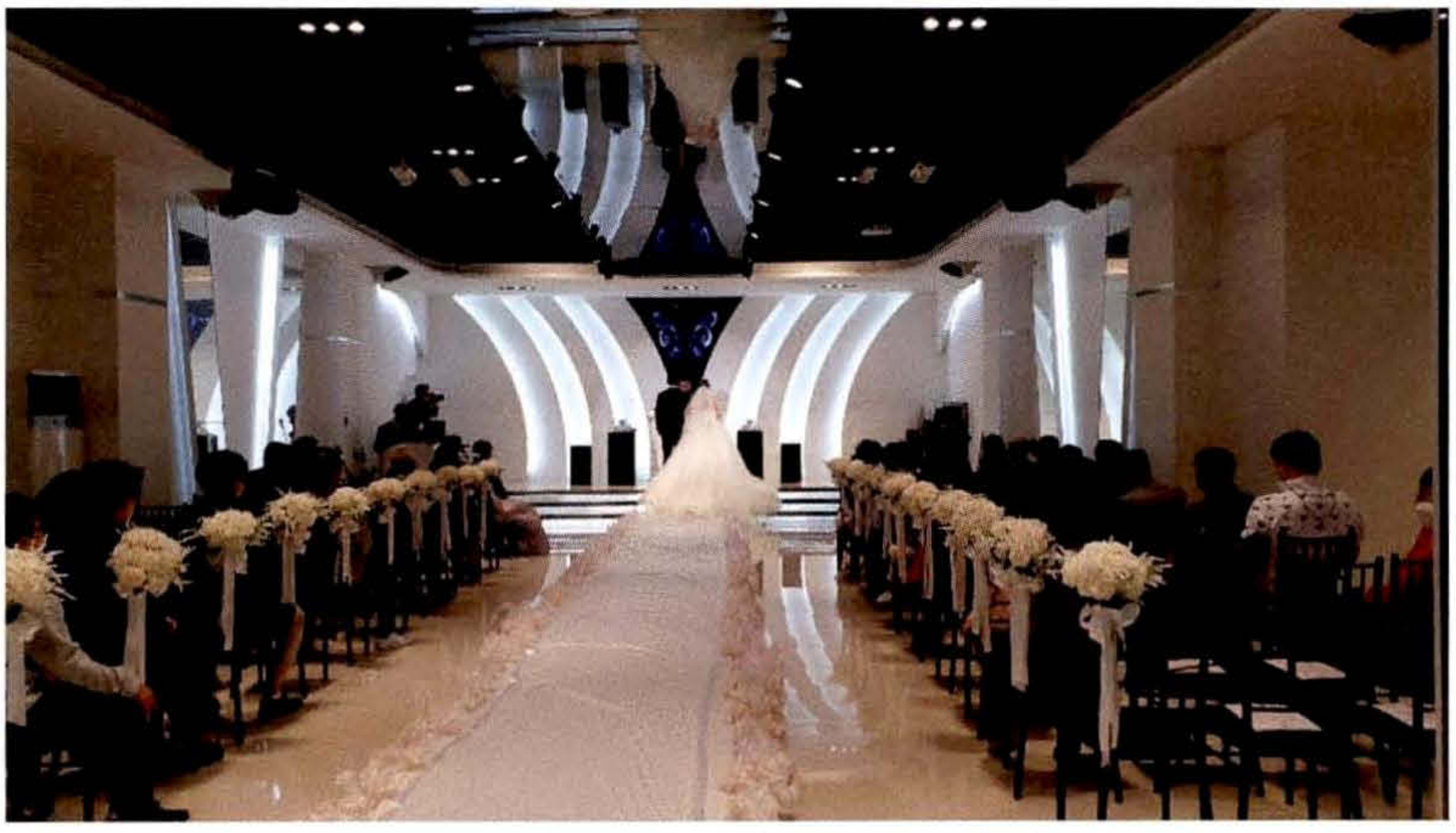


그림 4. 청양읍내 결혼식장에서의 혼례

[참고문헌]

문화재관리국,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남도편』(3집), 1972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상북도편』(4집), 1974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청북도편』(7집), 1976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황해 · 평안남북도편』(11집), 1980
————————,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함경남북도편』(12집), 1981
민속학회, 『한국민속학의 이해』, 문학아카데미, 1995
임동권 · 정형호 · 임장혁, 『청양의 두레』, 청양문화원, 2007
————————————, 『청양의 冠婚喪祭와 風水』, 청양문화원, 2003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상례

정 형 호(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I 차 례 I

1. 머리말

2. 청양의 전통적 상례

1) 초종의식단계　2) 염습단계
3) 조문단계　4) 산역치장 단계
5) 장송의식단계　6) 매장 단계
7) 흉제 단계

3. 청양 상례의 현대적 변화 양상

1) 장례식장의 일반화에 따른 변화　2) 초종, 염습단계의 변화
3) 상복과 조문방식의 변화　4) 운상 및 장법의 변화
5) 장례 이후의 변화

4. 상례의 의미와 인식체계

1) 저승에 대한 인식　2) 영혼에 대한 인식
3) 자연친화적 속성　4) 주술성과 부정의 정화
5) 상여 문양에 나타난 문화상징성　6) 장례공동체
7) 상례의 문화예술적 의미

5. 상례문화의 현대적 전승방안

삶과 죽음을 연결하는 상례

1. 머리말

상례(喪禮)는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마지막 의례로서, 일명 죽음의 의례이며, 장례를 포함하기 때문에 상장례(喪葬禮)라고도 한다. 전통적인 관혼상제의 중요한 의례 중의 하나이다. 어느 민족이든지 상례는 가장 보수적 전통성을 지니고 있지만 이마저도 근래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인다.

우리의 일생은 어찌 보면 각종 의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일생의례라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은 다음에 후손에 의한 제사까지 모든 과정을 말한다. 곧 태어날 때의 산속(출생의례), 인생의 새 출발인 혼례, 장수 축하연인 회갑, 죽어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장례의식이 있다. 사후에는 후손에 의해 제례가 행해지는데, 모두를 포괄해서 일생의례라 한다. 그리고 해마다 돌아오는 각종 명절의식, 생일, 시향(時享)도 세시적 주기성을 지닌다.

일생의례 중에 상례는 죽은 자에 대한 산 자의 마지막 의례이면

서 후손에 의해 이루어지는 의례이다. 따라서 이 의례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죽음의 의례이자 죽은 이에 대한 의례이다. 그러면서 삶의 의례와 이어지고 산 자에 의한 의례가 된다.

실제 죽음과 초월적 영혼의 세계는 삶의 세계와 죽음의 세계, 이승과 저승, 또는 전생과 현생에 의해 이원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죽음의 세계와 저승, 전생은 모두 관념의 세계일 따름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죽음은 삶의 종말로서 이승에 그대로 주검으로 실재한다.[1] 이런 점에서 상례는 산 자와 죽은 자, 이승과 저승, 관념과 실재가 혼재하는 의례적 성격을 지닌다.

상례문화는 유교와 불교, 민간신앙, 무속 등이 결합되어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이런 의례는 집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특히 예부터 가가례(家家禮)라는 말이 전할 정도로 집안마다 차이가 있다. 이런 의례의 과정은 혈연적 친족집단, 지연적 마을집단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 속에서 전승되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다. 그리고 그런 집단적 의식 속에서 구성원은 자아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장례보다는 상례가 더 넓은 범주에 속한다. 장례는 숨이 끊어지면서부터 땅에 매장하기까지의 과정이지만, 상례는 이보다 범주가 넓어서 죽기 전의 여러 준비 절차부터 매장

1)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 107쪽.



그림 1. 바위절마을의 상여(서울 암사동)

이후의 3년상을 치르는 과정을 포괄한다, 따라서 수의와 관을 준비하는 것은 장례는 아니지만 상례의 과정에 속하며, 매장을 하고 나서 삼우제, 상식 올리기와 시묘살이, 사십구재, 소상과 대상 등의 모든 과정은 상례에 속한다.

전통적 장례의 경우, 절차도 까다롭고 준비과정과 절차가 복잡하다. 그러나 장례는 죽은 자를 마지막으로 떠나보내는 절차로, 산 자가 죽은 자에게 베풀어주는 마지막 의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의 일반적 장례식에 가면 경건한 상가집의 분위기가 아니고, 수많은 문상객들이 음주와 잡기를 하는 떠들썩한 분위기를 보여주며, 이것이 우리 식의 장례문화의 전통이다.

이미 고구려 시대의 장례를 보면, 시종일관 곡을 하며 슬피 울다가 막상 장례를 치를 때에는 북을 치고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면서 죽은 자를 떠나보냈다.[2] 이런 장례의 전통을 볼 때에 우리는 영혼불멸사상에 의해 죽음을 비극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으며, 때가 되면 기꺼이 떠날 준비를 했다. 그리고 음악과 춤을 통해 상가의 분위기를 바꾸고 즐겁게 떠나 보냈다.

이 글에서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논의를 전개하겠다. 우선 청양의 전통적인 상례문화에 대해 2003년에 조사한 구술조사와 출간도서를 중심으로 하고, 2020년에 조사한 자료를 추가했다. 따라서 상례를 초종의식, 염습, 조문, 산역치장, 장송의식, 매장, 흉제의 7단계로 살펴보겠다. 그리고 2020년에 조사한 장례지도사를 통해 현재의 변화된 상례를 5단계로 나누어 장례식장의 장례, 초종 · 염습단계, 상복조문방식, 운상장법, 장례 이후의 변화로 구분해서 살펴보겠다. 청양 상례의 의미와 인식에 대해 저승관, 영혼관, 자연친화적 속성, 주술성과 부정의 정화, 상여문양의 상징, 장례공동체, 상례의 문화예술적 의미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이 항목에는 청양만의 상례적 특징이 있고, 일반적 상례문화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에 청양 상례문화의 현대적 전승방안을 제시해 보겠다.

---

2) 初終哭泣 葬則鼓舞作樂以送之(『수서』, 제 46 동이, 고구려)

2. 청양의 전통적 상례

전통적 상례의 중요한 문헌인 조선 후기 이재의『사례편람』의 상례 부분에서는 19단계로 구분했다. 곧 죽음에 대한 준비부터 3년상을 치르는 과정까지 복잡한 단계[3]로 이루어져 있다.

상례는 대체로 유교식 상례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상례에 대해 현장조사를 하면 실상은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또한 상례는 지역 및 가문에 따라서도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유교식 상례와 실제 청양 지역 상례를 모두 고려해서 크게 초종의식, 염습(시신수습), 조문, 산역치장, 장송의식, 매장, 흉제의 7단계로[4] 구분해서 논의를 전개하겠다. 핵심 자료는 2003년도에 실시한 청양의 상례 조사자료[5]와 2020년에 추가조사한 자료[6]를 바탕으로 하겠다.

---

3) 초종(初終),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斂), 성복(成服), 조상(弔喪), 문상(問喪), 치장(治葬), 천구(遷柩), 발인(發靷), 급묘(及墓), 반곡(反哭), 우제(虞祭), 졸곡(卒哭), 부제(祔祭), 소상(小喪), 대상(大祥), 담제(禫祭), 길제(吉祭)의 19단계로 되어 있다. (이재,『사례편람(四禮便覽)』)

4) 정형호,『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서울특별시, 2018.

5)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청양의 관혼상제와 풍수』, 청양문화원, 2003.11.

6) 안연길(남, 1950년생, 송학리 출생, 장승제작자),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자택, 2020.10.11. 정형호 조사.
이찬연(남, 1961년생, 2대 장의사, 청양 읍내리 출생), 청양군 청양읍내주공아파트 자택, 2020.10.12. 정형호 조사.

1) 초종의식 단계

초종(初終)은 임종이 된 후에 부고를 내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망자의 임종을 확인하고 1차 시신을 수습하며, 이어 육신과 분리된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 呼復), 그리고 장례를 위한 역할 분담, 관의 준비, 임종을 알리는 부고 내는 과정 등이 해당된다. 이 항목 중에 특히 사자상은 유교식 의례에는 나타나지 않는 항목이다.

죽음의 확인은 맥을 짚거나 탈지면 등으로 코에 대서 확인한다. 돌아가신 것을 확인하면 청양 지역에서는 망자를 안방으로 옮기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객사를 하는 경우에도 모두 집 안방으로 모시게 된다. 돌아가시기 전에 사랑채에 거처하더라도 반드시 안방으로 모시는데, 이런 과정을 '정침(正寢)'이라고 한다.

시신은 안방의 웃묵에다 모시고, 병풍을 친다. 그리고 여름철이라도 방에 불을 때게 되므로, 시신이 더욱 부패하기 쉽다. 따라서 시신 밑에 짚을 뭉쳐서 깔고, 바닥에는 마른 재를 뿌려서 시신 부패를 지연시키고, 시신의 냄새를 제거한다.[7)]

보통 장례는 3일장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 5일장도 있다. 5일장일 경우에는 장례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외지에 나간 자식

7) 안연길(남, 1950년생, 송학리 출생, 장승제작자), 청양군 정산면 송학리 자택, 2020.10.11. 정형호 조사.

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에 해당되지만 청양에서는 드문 경우이다. 그리고 시신의 손발과 허리 등을 일단 잘 펴고, 옷을 찢어 손가락과 무릎, 엄지발가락을 시신이 굳기 전에 잘 묶어 틀어지지 않게 한다.

이어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을 한다. 청양에서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망자의 윗옷을 흔들며, "○○ ○씨 복복복"이라고 외친다. 곧 본관과 성을 부르고, 복이란 말을 3번 외친다.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른데, '○○생'(출생 간지), 또는 이름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상주는 망자의 장자(長子)가 맡으며, 장자가 아니면 큰손자인 장손(長孫)이 맡는다. 자손이 없을 경우에는 가까운 촌수의 친족 중에 나이 많은 사람이 상주가 된다. 아내상에는 남편이 맡게 된다.

그리고 사망 사실을 알리는 부고를 낸다.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부고장을 '○○(본관) ○공 대인(조부) 숙환(노환) ○○○○년 ○월 ○일 ○시 ○○○(망자 이름) 고부(告訃)' 와 같은 형식이다. 예전에는 손으로 직접 글을 썼으며, 하인들이 노란 봉투에 넣어 직접 방문해서 대문 밖의 부고함이나 새끼줄에 끼워놓

는다.[8] 『사례편람』에 의하면, 부고의 형식은 '○○(상주)의 어른 ○○공이 오래 병을 앓으시다가 불행히 금월 모일 모시에 별세하였으므로, 사람을 시켜(혹은 글을 띄워) 알립니다'[9]라고 쓰고, 다음에 연호와 보내는 날짜, 호상 이름, 받는 자의 이름을 쓴다.

초혼이 끝난 다음에는 사자상을 차린다. 이것은 유교식 예서에는 없는 과정으로, 민간에서는 널리 퍼져 있다. 청양의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대문 왼쪽에 상을 차리고 위에 밥 3그릇을 놓고, 동전 3개, 상 옆에 짚신 3켤레를 놓는다. 비봉면 중묵리의 이용희는 이것을 저승사자가 셋이기 때문에 3가지씩 놓는다고 말한다. 이런 풍습은 저승사자를 위한 사자상에서 출발했다. 곧 강림차사, 일직사자, 월직사자 셋이기 때문에 밥, 동전, 짚신을 각각 3개씩 올리게 된다. 한편 망자 자신이 험한 저승길 과정에 미리 밥을 든든히 먹고, 가다가 노자돈으로 쓰며, 신발을 바꿔 신으라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저승사자를 위하는 사자상이 후대에 와서 점차 다른 시각으로 해석이 된다. 한편 대문 앞의 사자상은 초상이 난 것을 외부 사람에게 알리는 역할도 한다.

예전에는 각 마을마다 상례 관련 상포계가 있었다. 청양에서는 위친계, 울친계, 연반계 등의 명칭을 쓴다. 농소리 최재만은

---

8) 최재만, 청양군 대치면 농소리, 2003.

9) 某親某公 以宿患不幸於今月某日某時別世 專人(爲書)訃告 (『사례편람(四禮便覽)』, 부고.)

연반계를 '반을 이어서 돕는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며, 국어사전에 한자표기로는 '延燔契'라고 쓴다. 남양면 매곡리에는 위친계라고 하는데, 위친계는 부모를 위한다는 뜻이며, 그 목적에 따라 상례을 위할 계인지, 또는 환갑이나 그외 다른 것을 위할 계인지를 나눈다, 운곡면 위라리에는 연반계, 또는 울친계(위친계)라고 한다. 부모를 구분해서 계를 들며, 두 분을 위한 계이면 두 사람치의 가입비를 낸다. 혜택도 상포, 술, 쌀 등으로 구분해서 가입을 한다. 이 마을은 상례와 관련해서 이런 계의 회원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이 손을 빌려 주었다.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연반계라는 명칭을 쓴다. 마을이 여러 반으로 나누어 있으며, 다른 반에서 상을 당했으면 직접 상여를 매거나 부조를 하지 않고 대신 몸으로 움직이며 일만을 한다. 정산면 송학리의 연반계는 남자들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불을 때고 여자들은 음식을 준비한다. 이 마을은 정기적으로 걷지는 않고 모아놓은 기금을 사용하지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특별히 추입금으로 쌀 1말이나 1말 반을 낸다. 지금은 연반계 대신에 대동계로 바뀌었지만 운영방식은 예전과 유사하다.

청양에서 위친계나 울친계의 의미는 부모를 위한다는 뜻이며, 연반계는 계원들이 연대해서 돕는 계라는 의미를 지닌다.

2) 염습 단계

염습(殮襲)은 시신 수습 단계로, 망자를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며, 반합(飯盒)을 하고, 시신을 베로 잘 싸서 묶은 다음에 관에 넣는 과정까지를 말한다. 이는 시신을 목욕시키고 옷을 입히는 습(襲), 시신을 옷과 홑이불로 싸서 묶는 소렴(小殮), 시신을 묶어 관에 넣는 대렴(大殮)의 3단계로 다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염과 습은 구분되지만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염습이라고 지칭한다. 보통 '염습한다', 또는 '염한다'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염습한 이후에 관에 모시는 입관 작업을 하게 된다.

염습은 보통 집안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의탁한다. 특히 엄격한 집안에서는 시신을 다른 집안 사람이 손을 대지 못하게 해서 가까운 가족들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염습은 주로 남자가 했으며, 여자가 염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청남면 천내리에서는 염습을 하기 전에는 곡을 하지 않는데, 이것은 아직 죽은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습(襲)은 죽은 사람을 목욕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다음 반합(飯含)까지 하는 절차이다. 대개 망자의 머리를 빗기고 목욕을 시킨 뒤에 옷을 갈아입힌다.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큰 방으

로 옮기고 부고를 알린 뒤에 습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따스한 물, 목욕 수건, 빗, 작은 주머니 5개, 돈과 쌀, 버드나무 숟가락, 대야 등을 준비한다.

대치면 농소리의 최재만이 구술한 염습 과정을 보면, 염을 시작할 때에 우선 시신의 중요 부위를 가리기 위해 하의를 입힌다. 다음에 바닥에 매장(묶는 끈)을 놓고, 그 위에 이불을 핀 다음에, 상의 저고리를 깔고 다시 위에 시신을 옮긴다. 이어 저고리를 입히되, 단추는 반대로 여민다. 그런 다음에 버선을 신기고 악수(장갑 씌우듯)를 손에 묶고 검정 두건을 씌운다. 옷을 다 입히면 여자의 경우에는 얼굴에 분칠을 하고, 머리는 쌍갈래로 해준다. 남자는 예전에는 상투를 했다고 한다. 다음으로 반합을 하고 귀, 콧구멍을 탈지면으로 막는다. 이것은 오염물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때는 버드나무 수저 뒷면을 이용한다. 다음에 상주와 가족들이 곡을 하고, 마지막으로 얼굴을 덮는 면모를 한다. 이어 처음에 깔아둔 베로 묶는데, 이것을 '매장 조른다'라고 한다. 이때에는 힘껏 묶어야 하는데, 나중에 산골(散骨), 곧 뼈가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시신을 닦을 때에는 청양에서는 대개 향나무를 끓인 물을 사용하고 솜을 이용해서 닦는다. 한편 손발톱과 머리를 자르는데, 이때 잘라서 작은 주머니니에 넣는다. 청양에서는 조발랑

(운곡면 위라리, 남양면 매곡리), 또는 오낭주머니(청양읍)라고 한다.

청양읍에서 장의사인 부친으로부터 배워 2대에 걸쳐 장례지도사를 하는 이찬연은 예전에는 면도칼로 손톱, 발톱, 머리 등을 깎아서 오낭주머니에 넣었다고 한다. 이 주머니는 복주머니 형태인데, 명함의 2/3 정도의 크기이다. 양쪽 손, 가슴에 하나씩, 머리 위에 하나씩 놓는다. 대개 오낭주머니는 장의사로부터 수의를 구입하면 함께 받게 된다.

운곡면 위라리의 김석환은 조발랭이를 담는 이유에 대해, 미리 머리와 손발톱을 깎아서 보다 깨끗한 상태에서 저승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곧 저승길에 오르기 전에 몸을 새로이 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조발랭이 주머니는 양쪽 손톱은 각각의 손에 흰 천으로 동여매고, 발톱도 양쪽 발에 동여맨다. 남양면 매곡리에서는 각각의 신체 밑에 넣어두기도 한다. 그 명칭에 대해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발톱을 깎아서 담아둔 주머니를 조(足)발랑이라 하고 버선 쪽에 두며, 손톱을 깎아서 담아둔 주머니를 수발랑이라 하고 손바닥 쪽에 둔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세 번 잘라서 머리 밑의 두발랑 주머니에 두는데, 이런 주머니는 삼베로 만들었다.

한편 얼굴에 두건을 덮기 전에 반함(飯含)을 하는데, 이것은

불린 쌀을 시신의 입에 넣고, 동전을 손에 쥐어주는 의식이다. 이런 과정은 죽어서도 재산을 갖고 간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함으로 정산면 송학리 안연길은 얼굴 두건을 덮을 때에, 쌀을 3-4개씩 입에 넣으며 "한석이요, 천석이요, 만석이요" 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동전을 도끼로 반을 잘라서 "한냥이요, 천냥이요, 만냥이요"라면서 주먹에 쥐어드린다. 일종의 노자돈이라고 한다. 속담에 "죽어서 동전 3개도 못 가지고 가고, 3조각만 갖고 가는 인생, 뭐하러 무슨 일을 그리 열심히 하느냐?"라는 말이 있다. 이때 3조각은 동전을 자른 것을 말한다.

지역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쌀을 불린 것을 버드나무 수저로 입에 넣으며 "천석이요, 만석이요, 억만석이요."이라 하고, 또 구리 동전 세 쪽을 "천냥이요, 만냥이요, 억만냥이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불린 쌀을 숟가락에 담아서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라고 세 번 넣으며, 구슬을 3개 넣으면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 라고 말한다. 다만 구멍이 없는 구슬을 쓰며 '무공주'를 넣는다고 말한다. 그리고 때에 따라 약식으로 돈을 3개로 쪼개서 사용한다. 부모님에게 제대로 하려면 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것을 일종의 노자돈이라 말한다.

염습에 쓰이는 수의는 미리 준비한다. 수의는 망인이 생전에

윤달에 직접 삼베로 짜거나, 아니면 자손들이 짜 놓는다. 수의로 삼베를 쓰는 것은 이런 재질이 잘 썩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염습이 끝나면 입관을 하는데,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창호지에 황토를 넣어 둥글게 말거나 아니면 탈지면으로 3개를 말아서 목에 채운다. 이것은 시신을 묶을 때에 앞으로 수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3) 조문 단계

조문 단계는 성복(成服), 문상(問喪), 부의(賻儀), 곡(哭) 등이 해당된다. 성복은 상주들이 상복을 입는 것이며, 문상은 조문객들이 상가집을 찾아 조의를 표시하는 것이고, 부의는 조문객들이 가지고 가는 재물과 돈을 말한다. 한편 조문객들에게도 일정한 금기가 설정되며, 예전에는 곡(哭)을 하는 방식도 일정한 격식이 있었다.

성복(成服)은 상주가 상복으로 갈아입는 것을 말한다. 대렴과 소렴이 끝나면 비로소 성복을 한다. 염습을 하기 전에 남자 상주는 두루마기를 입는다. 이때 고인의 성별에 따라서 오른쪽이나 왼쪽 팔을 뺀다. 그리고 입관을 한 후에는 정식으로 남녀에 따라 상복을 입는다.

상주가 입는 옷으로 그 집안에서 남녀 중에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 운곡면 위라리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상의 오른쪽 팔을 빼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왼쪽 팔을 뺀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상의 허리에 동아줄로 띠를 메고, 어머니인 경우에는 삼베로 만든 끈을 묶는다. 또 건은 그 모양이 같으나 마무리 부분이 다른데, 부친이 돌아가신 경우는 왼쪽으로 하고, 모친이 돌아가신 경우는 오른쪽으로 한다. 대치면 개곡리에서도 부친일 경우는 오른쪽 팔, 모친은 왼쪽 팔을 빼는 것은 동일하다.

대체로 남자 상주의 복식을 보면, 속에 흰색의 바지 저고리를



그림 2. 남녀 상주의 상복(서울 암사동 바위절마을)

입고 위에 상의에 해당되는 베로 된 최의(衰衣)를 입는다. 허리에는 요질을 두르고 있으며, 발목에는 베로 된 행전(行纏)을 차고 있다. 요질(腰絰)은 상복의 허리에 두르는 띠로, 짚에 삼을 섞어서 굵은 동아줄처럼 만든 것이다. 머리에는 굴건(屈巾)을 하며, 그 하단에 수질(首絰)을 빙 둘러 굴건을 고정시킨다. 수질은 볏짚과 새끼를 꼬아 만든 머리띠로, 왼새끼로 꼬아야 한다. 상주가 짚는 대나무 지팡이를 상장(喪杖)이라고 한다. 길이는 땅에서 허리 정도의 높이에 해당된다. 상주가 제대로 먹지 못해 몸이 쇠약해지므로 지팡이에 몸을 기대는 역할을 하며, 3년상을 치르는데 사용된다. 행전(行纏)은 무릎 아래 차는 것으로 베로 만든다.[10] 신발은 예전에는 짚신을 신었다.

여자 상주의 복식은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그 위에 베로 짠 팔이 없는 상의를 입고 있다. 머리에는 좌우로 긴 사각의 베를 쓰고 주위에 수질(首絰)을 하는데, 원래 삼껍질 띠로 빙 둘러 고정시키지만 새끼를 쓰기도 한다. 그리고 손에 흰 장갑을 끼고, 발에는 갓신을 신고 있다. 문헌에 나타난 전통적인 여자 상복은 큰 소매 있는 상의와 긴 치마 형태인 대수장군(大袖長裙)이다. 머리에는 쓰개 형태인 개두(蓋頭)를 쓴다. 그리고 포총(布總)은 머리를 묶는 베로 된 헝겊을 말하는데, 속칭 '백댕

10) 유송옥, 「상복」,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기'라고 한다. 그 외에 지팡이인 상장(喪杖), 신발인 구(屨)는 남자와 같으나 크기가 약간 작고 가늘게 만든다.[11] 문상은 주로 마루에서 받게 된다.

장례는 부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모인 경우나 제사가 든 경우에는 상가집의 출입을 삼간다. 그리고 운곡면 위라리에서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차지 않은 산모는 상가출입을 삼가며 또 일주일 이내에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경우도 절대적으로 피한다. 또한 혼인 날짜가 잡혀있는 신랑신부도 상가출입을 자제한다.

대치면 개곡리에서는 상이 나면 상이 난 집만의 부정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부정으로 보기 때문에 마을 전체는 삼가하고 가린다. 고성방가를 삼가며, 심지어 부부간의 동침도 삼가한다. 이러한 금기는 7일동안 지킨다. 이런 양상은 다른 지역에도 일반화되어 있다.

문상 갈 때에 조문객이 가져가는 물품이나 돈을 부의(賻儀)라고 한다. 청양 지역에서 부의로는 팥죽이 많이 나타난다. 곧 비봉면 중묵리, 대치면 농소리, 대치면 개곡리, 청남면 천내리의 예전 조사에서 모두 팥죽부조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팥죽은 밤참으로 먹기 좋으며, 붉은 색이기 때문에 잡귀를 쫓는다는 의

11) 유송옥, 「상복」, 앞의 책.

미도 있다. 특히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상주가 된밥을 먹기 힘들기 때문에, 상주의 건강을 위해 먹기 쉬운 팥죽을 먹는다는 구술이 나온다. 그 외에 청양 지역 부조에는 계란, 백지, 양초, 쌀, 명태, 술, 포, 녹두죽과 수제비, 돈 등도 나타난다.

정산면 송학리 안연길에 의하면 1970년대 중반의 혼례나 장례 부조는 돈으로 100-200원 정도였다고 말한다. 당시 일일 품삯이 700원을 받던 시절이다. 다만 그 시기에 오면 장례 때에 팥죽 부조는 사라졌으며, 전부 돈으로 부조를 했다고 한다. 한편 동네 연반계에서는 술 5-7통 정도를 내놨다고 한다.

조문객들은 예전에 밤을 세우기 위해 대화를 나누거나 화투를 많이 했다. 심지어 남양면 매곡리에서는 화투 이외에 투전이나 윷놀이를 하며 밤을 세우기도 했다.

4) 산역치장 단계

산역치장(山役治葬)은 산에 매장을 위해 장지를 정하고 묘지를 조성하는 일을 말한다. 원래 운상과 시신의 매장까지를 포함하지만, 여기에서는 묘지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 하겠다. 먼저 산에 가서 산신이나 토지신에 대한 간단한 의례인 산신제와 개토제를 지내고, 이어 묘지 조성을 위해 땅을 파는 천광(穿壙)작업을 한다.

대개 장지 결정은 산에 직접 가서 그 형세를 보고 결정한다. 이것은 음택 풍수에 해당된다. 풍수(風水)는 바람 · 물 · 땅 · 산이 서로 어울리는 이치에 따른 일정한 법칙에 바탕을 둔다. 원래 이 말은 '장풍득수'(藏風得水)에서 온 말이며, 바람은 머금고, 물은 얻는 곳이란 뜻이다. 곧 장풍(藏風)은 사방이 둘러싸여 바람을 받지 않아 생기가 흩어지지 않는 곳이다. 이를 위해 주변의 산을 살펴봐야 하는데, 혈을 중심으로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의 사신사(四神砂)를 중요하게 본다. 득수(得水)는 생기가 흐르다가 물을 만나 멈추는 곳을 말하는데, 물이 길한 곳에서 흘러 들어와 흉한 곳으로 흘러나가는 것이 좋다고 여겼다. 또 산은 음이요, 물은 양이므로 산수가 조화를 이루어야 음양이 맞는다 여겼다.

대치면 개곡리 지관 김종환은 명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묘자리를 정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물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수맥이 터져 시신을 매장할 때 수장될 위험도 있다. 이럴 때에는 자손에게 큰 탈이 생기게 된다. 땅을 파보았을 때의 토양 색깔도 중요하다. 황토가 좋은 토양이며, 오색깔의 토양이 발견된다면 최상으로 본다. 토양의 종류에 따라 땅의 깊이가 결정된다. 땅마다 정도가 다르고 들어가는 사람의 시운(時運)과도 관계가 있다. 혈(穴)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의 마

디와 같다. 봉우리가 준엄하게 솟은 높은 곳에서부터 맥이 잘 뻗어 쭉 내려와, 그 형세가 힘이 넘치는 것을 맥이 잘 풀렸다고 한다. 좋은 형국은 좌로는 청룡형이요, 우로는 백호형이다. 특히 날이 사납게 풀려 바위가 많고 절벽으로 내몰리는 형국은 묘를 쓰지 않는 피하는 곳이다. 이렇게 국이 정해지면 혈을 보는데, 혈은 사람의 마디와 같아서 침 놓는 자리를 찾는 것처럼 쉽지 않다. 묘자리를 이렇게 심오하고 힘들게 잡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하는 일이지만, 자손이 대대로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12)]

한편 운곡면 위라리 김석환은 명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장지를 잡을 때는 산의 맥을 보고, 또 그 산의 형세를 보고, 마지막으로 혈을 보는데, 이것은 지극히 공간적인 개념이다. 공간적으로 보았을 때 자리라는 것은 사람의 몸처럼 마디마다 힘줄과 핏줄이 있는데, 힘줄을 길한 자리라 하고, 핏줄은 물줄기라 해서 피해야 하는 자리로 본다. 장지를 잘 잡아도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시(時)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적인 개념이다. 장소에 따라 그것이 길한 시간이 있으며, 또 시간에 따라 땅을 파야 한다. 시간은 또 망인의 일진과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무리 좋은 자리가 있다 하더라도 망인과 일진이 맞지 않으면 길한 자리라고 할 수 없다. 자리를 잡고 하관할 때 역시

12) 김종환(남, 당시 76세, 대치면 개곡리), 2003.7.8., 성시우 조사.

방이라는 것이 있다. 방은 24방으로 나뉘며 연중 사용 가능한 방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방오향'이라는 말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본다는 말인데, 하관시 머리를 남쪽에 두는 것을 말한다. 일진이 '자방오향'이 아니라면 시가 닿는 날까지 다시 기다려야 한다. 또 모든 것이 맞아도 생기복덕한 날을 골라 자손에게 해가 닿지 않는 날을 보는 것이 좋다. 산의 힘줄에 날이 뭉치는 국을 잡으며, 또한 수맥을 피하고 황토흙의 자리가 좋은 곳인데, 그런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13)]

청양에서 거론된 좋은 명당 자리는 뱀머리형인 '사두혈'이 좋으며, 호랑이가 엎드려 있는 형상의 '복호형'의 경우에 앞에 개바위가 있으면 최고 명당으로 친다. '금계포란형'도 명당이지만 오래되면 새끼가 커서 나갈 수 있어서 '복호형'보다 좋은 명당자리로 치지 않는다. 조리 모양 형태인 '조랭이 형극'도 조랭이가 꽉 차면 흘린다는 이유로 '복호형'보다는 좋은 명당자리라 하지 않는다.[14)] '무맥혈'은 물이 있어 시신을 상하게 하고, 후손에게 좋지 않다는 혈이며, '도망혈'은 시신을 도둑맞는다는 혈이고, 범이 자고 있는 형상인 '숙호혈'도 좋지 않다고 한다.[15)]

한편 삼살은 묘자리로 쓰지 않는데, 일년에 3방향이 있으며, 보

13) 김석환(남, 당시 70세, 운곡면 위라리, 10대 거주, 지관), 2003.7.9., 성시우 조사.
14) 신영구(남, 당시 64세, 화성면 기덕리, 7대 거주), 2003.7.10., 정형호, 김승유 조사.
15) 김지영(남, 당시 63세, 청남면 천내리, 17대 거주), 2003.7.11., 성시우 조사.

통 묘, 진, 인이 삼살이다.[16] 운곡면 위라리 김석환은 청양에서 대치면의 상갑리는 주산인 차령산맥의 기운이 좋게 내려와 좋은 마을이라 하며, 청양읍내 향교터도 칠갑산을 청룡으로 차령산맥 방향은 백호로 위시한 좋은 형국으로 친다. 한편 개인묘로는 운곡면 송요찬 장군의 선친 묘를 좋은 자리로 여긴다.

장지 같은 경우는 망인이 생전에 상주와 미리 자리를 잡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관의 도움을 받아 장지와 장일을 정한다. 지관은 마을에 보통 한 명씩 상주하고 있는데 마을에 없을 경우 옆 마을에서 데려온다. 매장 자리가 마땅치 않을 경우에도 고인이 미리 정한 곳에 매장하되, 좌향을 조금 틀어놓아 부정을 방지한다. 만약, 어쩔 수 없이 좌향을 틀어서 묘를 쓰고 자손에게 불길한 일이 생기면 바로 이장을 한다.

장례의 산역은 특별히 나가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남자들이 다 같이 참여한다. 이때에 지관이 산역에 가서 자리와 방향을 봐준다. 그런데 근래에 산역은 모두 포크레인으로 대신한다.

산역(山役)을 하기 전에 먼저 매장 지역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이것은 산신에게 미리 고하는 과정으로 간단한 술, 과일, 어포 등을 준비한다. 곧 산신에게 술을 올리며 절을 하

16) 이용희(남, 당시 73세, 비봉면 중묵리), 2001.7.29., 홍정모, 김선숙 조사.

고, 술을 땅에 뿌리거나 제물 일부를 던지기도 한다. 산신제는 민간신앙의 과정이며, 유교식 의례에는 개토제만 실시한다. 요즘은 산역 작업자가 대신하며, 특히 근래에는 포클레인 기사가 약식으로 진행한다.[17]

땅을 파기 전에 개토제(開土祭)를 지내는데, 이것은 유교식 예법으로, 묘소에서 땅에 손을 대기 전에 치르는 제사의식이다. 『사례편람 四禮便覽』의 상례조에는 묘의 영역 공사를 시작하면서 사토제(祠土祭)를 지낸다. 곧 묘자리의 네 모퉁이를 파고 각각 표목을 세우고, 먼 친척이나 손님 중에서 한 사람이 제관이 되어 후토(后土), 곧 토지신에게 축문을 읽고 절을 한다.[18] 이 과정은 일종의 땅의 영원한 주인인 산신에게 고하는 과정이다.

시신을 묻을 땅을 파는 것을 천광(穿壙)이라고 한다. 지관의 지시에 따라 관이 놓을 방향, 광중의 깊이와 넓이 등을 측정해서 땅을 파게 된다. 관이 묻힐 공간을 광중(壙中)이라 하며, 석회와 가는 모래, 황토를 섞어서 구덩이 안의 네 벽을 다진다. 지석(誌石)에는 죽은 사람의 이름, 생전의 치적, 자손 등을 간단히 적어서 구덩이에 묻는다.

---

17) 이용희(남, 당시 73세, 비봉면 중묵리), 2001.7.29., 홍정모, 김선숙 조사.
18) 최길성, 「개토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권,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5) 장송의식 단계

장송은 시신을 상여에 옮겨 장지까지 운구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에는 발인 전날에 이루어지는 상여메기 예행연습인 빈상여놀이, 마지막으로 조상께 고하는 천구(遷柩) 등이 있다. 그리고 발인 당일에 행하는 발인제, 운상, 여러 운구행렬, 상여소리, 노제 등이 있다.

청양의 '상여흘르기'는 일종의 상여메기 예행연습이며, 이 과정에 약간의 놀이적 성격이 가미된다. 대체로 호상이고, 여유가 있는 집에서만 이 놀이를 한다. 비봉면 중묵리 상여흘리기는 전날 저녁에 불을 밝히고, 상여를 화려하게 꾸며서 동네의 좋은 길을 왕복하며 진행한다. 생전에 망인의 효자문이 있으면 이곳을 통과하고, 생시에 좋아하던 곳을 두루 다닌다. 간혹 요령을 흔드는 선소리꾼을 상여에 태우기도 한다. 대치면 농소리의 상여흘르기는 전날 저녁에 빈상여를 들고 동네 한바퀴를 도는데, 다른 지역과 달리 닭을 상여 네 귀퉁이에 매단다. 나중에 매달았던 닭으로 온반죽(닭죽 형태)을 쑤어먹고 술을 마시며 논다. 운곡면 위라리에서는 횃불을 들고 상여를 메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것이다. 이 때 상여를 흘리는 사람은 망자 사위에게 엄포를 놓으며 술을 얻어먹으며, 상여를 흘리는 동안 상주는 상여의 뒤를 따르며 곡을 한다. 대치면 개곡리에서는 상여놀리기라 하

는데, 방식은 유사하고, 역시 상주는 상여를 뒤따르며 구슬프게 곡을 하고, 나중에 상여 놀린 사람들에게 후하게 술을 대접한다. 정산면 송학리의 '상여 흘리기'는 부자집에서만 한다. 요령잡이가 선소리를 하고, 상여꾼들이 상송에서 아래 하송 주막집에 가서 술을 한잔 먹고 온다. 중간에 장난도 하는데, 선소리꾼이 상주에게 다리 건너야 되니 노자돈을 내라고 요구하며 봉투를 내놓게 한다. 이렇게 걷은 돈은 동네 기금으로 사용한다.

상여흘리기는 일종의 빈상여놀이라 할 수 있다. 지방에 따라서는 대돋움, 걸걸이, 조장놀이라고도 한다. 이것은 출상 전에 미리 상여를 메면서 손발을 맞춰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가집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의미도 있다. 매우 즉흥적이며, 지역에 따라 극적인 성격도 지닌다. 다른 지역도 호상일 경우에만 실시하며, 가짜 상주 놀리기, 거짓 상주 노릇하기, 사위 놀리기, 성의 부각 등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천구(遷柩)는 발인 전날에 시신을 입관한 영구(靈柩, 시신 모신 관)를 받들어 사당에 가서 조상께 고하고, 대청으로 옮기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사당에 계신 조상께 마지막으로 떠난다고 인사하는 과정이며, 이때 친척과 손님들이 사당에 술을 올린다. 이어 발인에 필요한 각종 도구인 명정, 만장, 요여, 삽 등을 순서에 따라 진열해서 발인 준비를 한다.

한편 발인할 때에 년과 월일을 따져서 잘 맞지 않을 때에는 '중상매기'라는 것을 한다. 이것이 청양의 여러 지역에 두루 나타나는 일종의 축귀의식이다. 원래 중상일이 겹치면 이날은 피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 하게 된다. 중상이란 말은 상이 거듭 겹친다는 의미이다. 만약 중상일에 장례를 치르면 초상이 두 번 난다는 속설이 있어서, 가능하면 장례일을 다음날로 연기한다. 부득이하게 당일에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관을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중상이요, 중상이요, 중상이요"를 3번 외치고 나간다.[19] 중상매기의 방식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다. 남양면 매곡리에서는 안방의 동서남북 네 귀퉁이에 관 머리를 부딪치는 방식으로 액을 막는다. 화성면 기덕리 지관 신영구는 중상일에 대해, 정월과 칠월은 갑, 경일. 삼월, 유월, 구월, 십이월은 무, 기일, 이월, 팔월은 을, 신일, 사월, 시월은 병, 임일, 오월, 십일월은 정, 계일이 중상일이라고 말한다.

발인(發靷)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 상여가 집을 떠나는 절차이다. 집안에서 관을 상여로 옮기고, 이어 장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다.

발인제(發靷祭)는 상여에 시신(영구)를 얹어 묶은 다음에 옆에 영좌(영위를 모신 자리)를 설치하고 지낸다. 대개 안마당에

19)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청양의 관혼상제와 풍수』, 청양문화원, 2003.11.

서 하며, 일반 제사를 지내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제물을 차리고 맏상주가 분향, 헌작하고 축관이 축을 읽는다. 이어 모두 곡을 한 다음 재배하며 끝을 맺는다. 이때 발인제 음식은 상여꾼들이 나누어 먹는다.

발인할 때에 발로 바가지를 엎어놓고 발로 밟아서 깨는 풍습이 청양에는 많이 나타난다. 이것은 일종의 축귀의식으로, 청양에서는 방문 앞, 마루밑, 대문 앞 등에서 실시한다. 남양면 매곡리에서는 문지방을 나서기 전에 관을 들고 가던 사람이 문지방 앞에 있는 바가지를 밟아서 액을 막는데, 중상일과 관련은 없다. 정산면 송학리에서는 발인 이후에 상여가 대문을 나가면서 대문 앞에서 바가지를 깨며 소리로 액을 쫓는다. 이때 동네 어른이 뭐라고 말을 하면서 깨는데, 구술한 안연길은 오래 되어 기억하지 못한다.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관이 방안에서 나갈 때에 마루 밑에다 바가지를 놓고 발로 밟아 깬다.

상여는 발인 전날에 미리 조립한다.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평상시에 상여를 관리하는 사람을 '상여장모'라고 한다. 대체로 남자가 하며 상여를 말리고 관리하는 일을 담당한다. 동네에서는 그에게 장례 한번 치를 때마다 쌀 한말씩을 준다.

상여를 메는 사람을 상두꾼, 또는 상여꾼이라고 한다. 상황에 따라 상여를 메는 사람의 수가 다르다. 대개 8명, 10명, 12명,



그림 3. 상여와 상주(2016.6.18. 경남 고성농요보존회)

20명, 24명 등의 짝수로 메게 된다. 청양에서는 전통적 상여인 경우에는 보통 12인이 매며, 여기에 선소리꾼 1인이 추가된다. 부유한 집에서 메는 복합상여인 경우에는 양쪽에 두 줄씩 24명이 멘다. 그리고 근래의 일회용 꽃상여는 8명, 10명이 메는 것이 일반적이다.

상여가 가는 길은 다양하며, 부득이 남의 동네 앞을 지나갈 때에는 미리 이장이나 노인회장에게 양해를 구한다. 청양에서 상여의 행렬은 지역마다 시대마다 다르지만, 비봉면 중묵리 이용희는 영정, 공포, 요여, 요령꾼, 상여, 상주, 복인, 조객의 순서로 위치한다고 말한다. 이때도 만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만장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시신을 넣는 관은 예전에는 직접 짜서 사용했다. 대체로 옻나무관을 최고로 여겼다. 대치면 농소리에서는 목수가 옻나무를 거상톱으로 잘라서 관을 짜는데, 보통 공이(옹이)는 잘 썩지 않아 나중에 뼈랑 섞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쓰지 않는다. 정산면 송학리에서 오래 전부터 장승을 깎아온 안연길은 목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한다. 옛날에는 관을 짤 때에 옻나무를 최상으로 쳤는데, 나무가 귀해서 오동나무를 대신 썼다. 오동나무는 물을 안 빨아들이고, 나무를 손으로 누르면 손톱이 들어가는 성질이 있다. 그리고 땅에 묻으면 이 나무는 오래 가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밤나무, 낙엽송으로 만든 관도 튼튼하지만 오히려 오동나무를 따라오지 못한다. 그는 오백년쯤 된 14대조 할아버지 묘를 이장하면서, 파묘를 하니 회다짐을 한 상태의 옻나무 관이 일부 썩지 않았다고 말한다. 지금은 중국산 오동나무가 들어와서 예전보다 흔해졌다. 일반 가정에서는 소나무관을 많이 사용하며, 근래에는 관을 마을에서 직접 짜지 않고 구입해서 사용한다.

명정은 명주로 된 천에 빨간색에다가 분가루로 글씨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은 대렴 후에 쓰며, 이것을 걸고 성복제를 한다. 발인하기 전에는 빈소에 두고, 발인제를 할 때에는 상여

중간에다 놓는다. 청양에서 명정을 쓰는 방식은 "學生 ○○ ○公之柩" 8자를 쓰는데, 앞의 ○○에는 본관, 뒤의 ○에는 망인의 성을 쓴다. 근래에는 학생을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벼슬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일반적인 방식이고, 학생 대신에 벼슬이나 직책을 쓴다. 크기는 가로가 30cm, 세로가 2m이고, 색깔은 빨간색이며 글씨는 백색으로 쓴다.

만장은 영혼을 위로하는 글을 쓴 깃발이다. 대치면 농소리의 최재만은 예전에 큰 장례를 치를 경우에 만장이 20~30개까지 사용된 적이 있다고 말한다. 보통 서당 훈장들이 글을 많이 써 주었으며, 내용은 주로 고인의 업적을 칭송하는 글이다. 네 글자씩 한자로 쓰는 경우가 많다. 바탕색은 오색 중에 어느 색으로 쓰든지 상관없지만, 검은색은 쓰지 않았다. 만장을 쓰기 위해 포목, 종이, 깃대 등을 수십 장 준비한다.

상여가 나갈 때에는 요령쟁이(요령잽이)가 선소리를 한다. 곧 요령쟁이의 메기는 소리에 따라 상여 메는 사람들이 발맞춰서 "어-허-하-해-해-허-하"라는 후렴구를 받는다. 가사는 주로 회심곡에서 많이 따온다. 상여의 선소리꾼은 예전에는 마을마다 한 사람씩은 있었으나, 점차 숫자가 줄어들면서 지금은 면 단위에 한두사람에 그치는 실정이며, 이마저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다.

노제(路祭)는 망자의 자식, 절친한 친지의 집에서 지낸다. 제물을 차리고 술을 올린 다음에 절을 하는 것이 일반적 절차이다. 노제의 제물은 대부분 자식이나 친척집에서 준비한다. 한편 개울이나 언덕이 있을 때는 상여를 임시로 멈추는데 이것을 정상(停喪)이라 하며, 그때마다 상주나 사위가 봉투를 내며 나중에 마을 기금으로 사용된다.

6) 매장 단계

매장의 단계를 예서에서는 '급묘(及墓)'라고 하며, 장지에 도착해서 장사 지내는 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장법, 하관, 달구질과 달구질소리, 반혼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법은 전통적으로 매장이 주류였다가 근래에는 화장으로 점차 바뀌는 추세에 있다. 전통적으로 집에서 장례를 치르고 상여를 이용해 장지로 운구해서 매장하는 방식이다. 간혹 해안가나 도서지방에 초분이란 방식이 남아 있는데, 청양에서는 초분 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초분은 시신을 지상에 3년 정도 가매장했다가 3년 후에 뼈를 추려 상여에 모시고 정식으로 장례를 치르는 이중장, 복장의 형태이다.

대치면 개곡리 김종환은 예전에는 집 밖에서 죽은 사람은 객사라 해서 함부로 집안에 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것은 "집에서 죽

은 귀신이 아니다"해서 불길하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밖에서 시신을 모시고 바로 장지로 간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객사라 하더라도 집안에 모시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나이가 차지 않고 미혼인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면 애장이라 해서 정식 장례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묘도 깊은 산 속에 별도로 매장하며, 풍수를 보지 않고, 묘비도 세워주지 않는다. 이런 애장의 형태는 여러 마을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대치면 개곡리 조사에서 합장의 경우에는 시간을 중요하게 따진다. 예를 들어 부친이 먼저 돌아가시면 옆에 모친이 들어갈 자리를 미리 마련한다. 그런데 모친이 먼저 돌아가셨을 때에 미리 준비한 자리가 모친의 일진과 맞지 않으면, 다른 곳에 매장했다가 나중에 시간과 운을 따져 다시 이장을 해서 합장한다. 그리고 미혼합장이 있는데, 이것는 과년한 처녀 · 총각을 사후에 영혼끼리 결혼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도 중간에 중매쟁이가 있으며, 미리 양가에서 합의에 의해 진행한다. 이때 두 시신을 기혼의 합장처럼 나란히 매장하며, 제사도 올리게 된다.

하관(下官)은 매장의 장소에 관을 내려 시신을 묻는 절차를 말한다. 상여가 묘지에 도착하면 관을 내려 임시로 병풍을 치고 비와 햇빛을 가리기 위해 천막을 설치한다. 여기에 횡대(橫帶)를 깔고 임시로 시신을 안치한다. 그리고 제물을 차려 놓고 하

관할 때까지 조문객을 받는다. 하관 시간이 되면 지관의 지시에 따라 관을 동여맨 바를 풀고 삼베 헝겊으로 된 공포(功布)로 관을 닦는다. 그리고 상주들이 관을 묶었던 줄을 풀고 관을 천천히 내린다. 석회를 이용하거나 석곽(石槨)을 사용할 경우, 관에서 시신만을 꺼내 광중(壙中) 안에 묻고 관은 태워버린다. 보통 시신의 머리는 동쪽을, 발은 남쪽을 향하도록 좌향(坐向)을 한다.

관이 놓이면 관과 흙벽 사이의 빈 곳을 황토로 메워 관 높이까지 채운다. 이를 보토(補土)라고 한다. 만약 관을 빼고 시신만을 묻을 때는 시신의 윗면까지 덮는다. 보토가 끝나면 관을 명정으로 덮고, 왼편에는 운삽(雲翣), 오른편에 불삽(黻翣)을 꽂고 제사를 지낸다.[20] 이어 맏상제가 삽으로 흙을 떠서 세 번 실토(實土)하고, 이어서 복인들이 차례로 실토한 뒤에 일꾼들이 마무리를 한다. 하관이 끝나고 관 주변에 흙을 채워서 본래의 높이로 평평하게 다지면 신주를 모시고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관에 시신을 넣기 전에 바닥에 칠성판을 깔고, 이어서 '지금'을 깐다. '지금'은 사방에 바다 해(海)자를 쓴 청색 비단으로, 시신 밑에 요처럼 까는 것을 말한다. 다음에 시신을 넣고, 위에 '피백'이라고 해서 청실과 홍실을 넣는다. 그리고 '홍대'를 덮고, '훈토'를 한다. 따라서 밑에서부터 '칠

20) 표인주, 「치장(治葬)」, 『한국향토문화대전-전남 영암편』, 한국학중앙연구원.

성', '지금', '시신', 그 위에 '명정', '피백', '홍대'가 놓이며, 위에 백회'를 덮은 다음에 '훈토' 하게 된다. '훈토'는 자손들이 흙을 조금씩 덮는 것을 말한다. 네 귀퉁이에 회를 하고, 물과 흙을 섞어서 바른다. 그러면 콘크리트처럼 굳어서 물이 쓰며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심지어 나무뿌리도 들어가지 않으며, 또한 도굴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지석은 묘 위에다 묻는다. 대체로 하관할 때에는 끈을 여러 개 둘러서 양쪽에서 들고 천천히 내린다. 이 일은 팔촌 이내의 복인이 하게 된다. 그런데 사람이 적거나 하는 것이 서투르면 산역꾼이 하기도 한다.

비봉면 중묵리 이용희는 하관상충(下官相衝)일 경우에는 하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 하관상충은 하관하는 날짜와 생년월일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송학리 안연길도 같은 말을 한다. 예를 들어 갑자일이면 갑자와 일진이 반대되는 경우에는 보지 않는다. 따라서 지관이 "~띠 보지 마세요", 오늘은 " 을미생 보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심지어 상주와 가족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청양은 대부분 시신을 탈관해서 모신다. 송학리의 안연길은 생전에 입관하는 경우를 공주에서 한 번 봤으며, 모두 탈관을 한다고 한다.

달구질은 하관 이후에 흙을 덮고 땅을 다지는 과정을 말한다.

이때는 상여 맬 때 사용했던 연추대나 대나무를 가지고 땅을 다지고, 또한 발로 밟으면서 20-30분 정도 잘 다진다. 대략 7-9인이 한 조가 되어 선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 달구질은 봉분의 기초공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해야 나중에 봉분이 무너지지 않는다. 달구질을 할 때에 선소리꾼에 맞추어 부르는 소리를 '달구질소리'라고 하며, 회를 넣고 다진다는 뜻에서 '회(灰)다지소리'라고도 한다. 상여 메고 갔던 사람들이 연춧대를 들고 빙빙 돌면서 발로 땅을 다지면서 '에헤라 영차'하며 소리를 한다.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다지고 흙이 질퍽거릴 정도로 30분 정도를 다진다. 상주들은 달구질하는 사람에게 잘 밟아달라는 의미에서 봉투에 돈을 넣어 주기도 한다.

정산면 송학리에서 회다지는 대개 10명이 참여하지만 교대를 하기 때문에 인원이 일정하지는 않다. 긴 막대로 땅을 다지면서 선소리에 맞추어 달구지소리를 하는데, 대개 상여 선소리꾼들이 회다지 선소리도 선창한다. 봉분까지 다 한 다음에 평토제를 지내며 축을 읽기도 한다.

반혼(返魂)은 장례가 끝나면 묘지에서 혼백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절차를 말한다. 이것을 예서에는 반곡(反哭)이라고 하며,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비봉면 중묵리의 이용희는 반혼은 평토 후에 장지로 갔던 길로 반드시 되돌아와야 하는데, 그래야

영혼이 돌아온다고 말한다. 그리고 망자가 입던 옷이나 이불, 사용하던 생활도구 등은 장례가 끝난 다음에 소각을 한다. 이런 것에는 부정이 깃들어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7) 흉제 단계

흉제(凶祭)는 매장 이후 첫 제사인 우제부터 3년상을 치르고 상복을 벗는 길제까지의 과정을 말한다. 이에는 우제, 졸곡, 부제, 조석상, 49재, 소상, 대상, 담제, 길제 등이 포함된다. 이 과정에 대한 상례의식은 근래에 와서 크게 생략되는 경향을 보인다.

우제(虞祭)는 장사를 마친 뒤에 망자의 혼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 지내는 제사로서, 3일에 걸쳐 연속으로 3번 지낸다. 장사 당일 지내는 초우제(初虞祭), 다음날 지내는 재우제(再虞祭), 3일째 지내는 삼우제(三虞祭)가 있다. 매장 전에는 시신에 지내는 제사를 전(奠)이라 하는데, 이것은 정식 제사가 아니고 임시로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그러나 우제부터는 정식 제사(祭祀)가 된다. 일반적인 제사는 참신이라 해서 3번 절을 한다. 그런데 우제 때에는 참신 대신에 신주 앞에서 슬프게 곡을 하는 입곡(入哭)을 한다. 입곡은 우제, 졸곡, 소상, 대상 등에도 이루어진다.[21] 요즘에도 삼우제를 지내는 경향이 많다.

---

21) 김시덕, 『한국의 상례문화』, 민속원, 2012. 152쪽.

사십구재는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49일째에 치르는 천도재를 말한다. 이것은 유교식 예법에는 없는 불교식 의례이다. 불교에서는 죽은 다음에 일정 기간 머무는 중유(中有)의 세계가 있다. 곧 생과 사를 반복하면서 최대 7·7일, 곧 49일을 거치게 된다는 점에서 칠칠재(七七齋)의 성격을 지닌다. 사십구재는 사찰 법당에 망자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반혼재를 치르면서 입재를 한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초재를 지내고, 이어 매 7일마다 2재, 3재, 4재, 5재, 6재까지 간단히 지내고, 마지막 7재는 유족과 친지를 모시고 성대하게 재를 지내는데, 이것을 사십구재라 한다.

불교에서 사십구재의 의식은 대령, 관욕, 상단권공, 관음시식, 봉송으로 진행된다. 대령(對靈)은 법당에서 위패와 영정의 망혼(죽은 사람의 넋)을 좌정해서 대접하며 절을 올리는 과정이다. 관욕(灌浴)은 망혼이 생전에 몸과 입, 마음으로 지은 업을 씻는 단계이다. 관욕단을 별도로 설치해서 종이옷을 태워 업을 씻는 과정을 재현한다. 상단권공(上壇勸供)은 사십구재의 핵심으로, 불단에 재물을 차리고 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한다. 관음시식(觀音施食)은 망혼에게 음식을 대접하며 유족과 친지들이 절을 올리며 제사를 지내는 단계이다. 봉송은 망혼을 다시 돌려보내는 단계이다. 모두 불보살에게 절을 올리고, 법당을

돈 다음에 소대에서 망자의 옷과 물품을 태우는 의례이다. 전반적으로 수륙재 의식을 축소한 듯한 과정을 거친다.[22] 사람이 죽으면 명부를 다스리는 열명의 시왕(十王)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므로, 49일째에 사십구재라는 의식를 지내어 망자의 구원을 기원한다.

예전에 삼년상을 치르던 시기에는 고현을 설치해 상식을 올린다. 정산면 송학리 안연길은 영정을 모시고 탈상 때까지 아침 저녁으로 상식으로 밥을 올렸다고 한다. 주로 부자집이나 여유 있는 집에서 고현을 설치해서, 매달 초하루, 보름, 삭망 제사도 지냈다. 이때는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집에서 곡을 하고, 직접 산소에 다녀온다. 어려운 집에서는 상식 대신에 물 한 그릇을 올리는 것으로 대신했다. 이런 풍습은 50년 전까지 있었으나 지금은 소멸되어 볼 수가 없다.

졸곡제는 초상 후 100일이 되어 복(服)을 벗는 8촌 이내의 사람들이 하는 제사를 말한다. 졸곡(卒哭)의 의미는 수시로 하는 곡인 "무시곡(無時哭)을 그만 둔다"는 뜻을 지닌다. 예서에는 대체로 삼우가 지난 뒤 3개월 뒤의 강일(剛日)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따라서 실제 졸곡제는 대략 100일쯤 되는 시기이거나, 또는 3개월째 되는 날 아침에 지낸다. 졸곡 이후에는 아침 저녁

22) 구미래, 「사십구재」,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10.

으로만 곡을 하게 된다. 졸곡 다음날에 부제(祔祭)라는 제사를 지내는데, 망자를 조상에게 합사하는 가묘제의 과정이다. 일반 가정에서는 부제를 소상이나 대상 다음날에 지내기도 한다.

소상(小祥)이란 1주년인 기년(朞年)을 맞아 고인을 추모하는 제사로서, 세상을 떠난 지 13개월이 되는 날에 치른다. 전통적 상례에서는 소상 후에 남자는 머리의 수질, 여자는 허리의 요질을 떼어낸다. 소상을 지내면 아침저녁으로 곡을 하지 않으며, 상주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기 시작한다. 대상(大祥)은 장례를 치른 후 두번째 해에 지내는 제사로서, 대체로 25개월 후가 된다. 영좌를 철거하고, 상복을 벗고 소복으로 갈아입으며, 지팡이를 부러뜨린다. 따라서 대상을 지내면 탈상(脫喪)이 된다.[23]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소상이 되면 상주들은 옷을 갈아 입는다. 곧 건 위에 쓴 둥근 테 모양의 수질(首絰)을 뺀다. 이어 대상에는 '노질'이라고 해서 건만 남기고 상옷, 제옷을 다 벗으며, 허리띠도 뺀다.

담제(禫祭)는 3년상을 치른 뒤에 상주가 일상생활로 되돌아감을 알리는 제사이다. 대개 대상 2달 후, 세상을 떠난 후로는 27개월 만에 지낸다. 비봉면 중묵리에서 담제는 대상 후 100일 되는 시기에 했다고 한다. 이것은 이미 3년상 치른 뒤에 하는 담제가 100일 후의 탈상으로 바뀐 것을 나타난다. 따라서 상주

23) 김시덕, 앞의 책, 154-155쪽.

를 끝낸다는 뜻으로 제사를 지내며, 백일간 썼던 건을 벗는다.

길제(吉祭)는 담제 다음날에 지내는 제사로 상례의 마지막 절차에 해당된다. 이날부터 상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며, 일상생활로 복귀한다. 또한 집안의 대를 이를 장손이 바뀌었음을 공표하는 날이다.

앞에서 제시한 장례 이후의 과정은 현대에 와서 대부분 사라졌다. 현재는 3일장이 끝나고 바로 평상복으로 갈아입는다. 대개 일부에서 삼우제, 불교 신자의 사십구재 등의 의례만 실시하고 있다,

3. 청양 상례의 현대적 변화 양상

1) 장례식장의 일반화에 따른 변화

청양에서 장례식장이 처음 생긴 것은 대략 2000년대 초반이다. 30여년간 장례지도사에 종사한 이찬연[24]에 의하면, 2003-2004년에 개인이 처음 장례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이것을 나중에 농협에서 인수해서 청양농협장례식장이 되었다고 한다. 원래 개인이 2-3년간 장례식장을 운영했던 것을 지금부터

24) 이찬연(남, 1961년생, 농협장례식장 장례지도사, 30여년 종사), 청양읍 자택, 2020.10.12., 정형호 조사.

15년 전 쯤에 농협에서 인수를 해서 운영하게 된 것다. 그런데 청양농협장례식장 홈페이지에 가면 2009년 8월 17일에 충절로 1379번지에 개장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정산면 송학리에 사는 안연길에 의하면 청양에서 가정집 장례를 치르는 것은 이미 20여년 전에 거의 사라지고, 따라서 동네 상여도 20년 전쯤에 없어졌다고 한다. 그리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9년에 세상을 떠나면서 화장해 달라고 유언을 하면서 그때부터 화장이 더 유행했다고 말한다.

이찬연에 의하면, 학당리 청양농협 장례식장은 농업협동조합이 주도적으로 운영한다. 농협이 대행 운영하고 있으며, 상조회사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농협에서 일체의 의식을 대행하고, 음식과 장소를 제공한다. 장례식장의 직원들은 염습자격증(염사)을 갖고 있다. 현재 농협 직원이 6-7명 정도가 1-2교대로



그림 4. 청양농협장례식장의 전경(청양읍)



그림 5. 청양농협장례식장의 내부(청양읍)

일을 하고 있다.

청양의 장례식장은 인근의 공주, 대천보다 오히려 늦게 생겼다. 이곳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타 지역보다 7-8년 정도 후에 생겼다고 말한다. 따라서 인근 지역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장례식장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양 주민들은 20여년 전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했고, 집안에서 장례가 점차 사라지는 시기를 2000년 전후로 기억하고 있다.

현재 청양에는 장례식장이 3곳 운영된다. 청양농협장례식장, 미당장례식장, 훈병원장례식장이 있다. 그 중에 청양 주민들은 청양농협 장례식장을 가장 많이 이용하며, 개인이 운영하는 미당장례식장, 요양병원 병설인 훈병원장례식장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리고 청양 내에서도 목면 주민은 공주의 장례식장을, 장평면의 주민은 부여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림 6. 정산미당장례식장(정산면 미당리)

한편 화장장은 현재 청양에는 없다. 따라서 청양 주민들은 예전에는 홍성의 화장장을 주로 이용하고, 인근 공주, 예산의 화장장도 이용한다. 이찬연에 의하면, 현재 청양 주민이 공주나례원에서 화장을 하면 10만원의 비용을 내고, 홍성의 화장장은 청양군민이 타군이라 해서 30만원을 받고 있다고 한다.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장례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 일체의 장례절차, 장례도구와 복식, 운구 등을 대행하기 때문에 가정 중심, 마을 중심의 장례문화가 급격하게 바뀌게 되었다. 장례식장이 생기기 이전에 일차적으로 장례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장의사가 생기면서 나타난다. 장의사가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1976년에 사단법인 전국장의협회가 생겼다는 점에서 대략 산업화, 도시화가 이뤄지기 시작하는 1970년대에 이미 장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장례지도사 국가자

격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전에 자격과 관계없이 염습을 현장에서 습득해서 장례 대행을 했던 '염사'라는 직업이 이미 존재했다.

장의사가 취급하는 물품은 다양하다. 수의, 탈지면, 창호지, 사고지 등을 많이 취급하고, 기타 목관, 관줄, 홍대칠성, 알코올 등의 품목도 취급했다. 대부분 염습에 필요한 물품이다. 창호지는 염습에서 말아서 7매듭으로 접을 때에 필요하며, 사고지는 탈지면을 싸써 목과 무릎에 댈 때에 사용한다. 사고지는 창호지보다 더 얇으며, 습자지와 비슷하다. 홍대칠성은 하관을 할 때에 7장을 사용하는데, 오동나무로 만들고 가로 70-80cm, 세로 40cm 정도의 크기이다. 매장 할 때에 7장을 덮는데, 대개 6장을 쓰고 반을 잘라 6장 반을 쓴다. 매듭도 7매, 홍대칠성도 7장을 사용한다. 그리고 시신 닦을 때에 사용하는 알코올을 취급하기도 했다.

이찬연은 부친이 장의사를 했으며, 20대부터 부친의 장의사를 도우며 일을 익히기 시작했다. 당시 가장 많이 취급한 것은 수의이다. 수의 짜는 베를 많이 취급하며, 직접 짠 수의를 취급하기도 했다. 곧 시골 동네에서 베를 사다가 연세 많은 할머니들에게 맡겨서 바느질로 수의를 짓게 했다. 이때 주문을 받아서 짓기도 하고, 미리 지어 놓기도 하는데, 대중소 구분없이 무

조건 크게 짓는다. 큰 소매인 홍태[25]를 고려하면 두루마기보다 1.5배 이상으로 크게 만든다고 한다. 할머니들이 바느질로 한 벌을 만드는데, 보통 1주일 이상 걸렸다고 하며, 급하면 하루에 만들기도 한다.

이찬연에 의하면, 시골에서는 30년 전쯤에는 베 1자에 1만 2천원-3천원 정도에 구입했다고 한다. 청양에서는 운곡면 추광리와 광암리, 남양면 내곡리에서 베를 많이 재배했다. 대부분 국산을 사용하지만, 간혹 중국산도 사용했다. 그렇지만 값싼 중국산 수의는 주로 화장을 할 경우에 사용한다. 수의 한 벌을 만드는데 베가 150자가 필요하며, 국산 베로 만든 수의는 250-300만원 정도, 중국산 수의는 보통 화장용 수의는 20-60만원 정도부터 150만원까지 있다. 요즘 화장이 일반적인 경향이라 좋은 수의를 쓰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금은 자기 산에만 매장을 허용하고, 공동묘지는 매장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탈관 후에 대부분 관을 소각하기 때문에 관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고 한다.

장례식장, 상조회사 등이 생기면서 장의사는 지금은 거의 사라지는 직업이 되었다. 특히 지방은 농협 장례식장을 주로 이용하며, 일반 상조회사에 가입하면 그곳에서 와서 일체를 대행한다. 장례식장은 모든 물품도 공급하며, 장례식 비용에 노재와

25) 홍태는 수의에서 큰 소매를 지칭하는 말임.

봉분재 비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개인이 사십구재를 할 경우에는 미리 비용을 지불하면, 일체의 제물을 준비해준다.

이찬연은 부친이 운영하는 장의사를 도우면서 처음에 묘 작업을 시작했다. 대략 1990년 시기이며, 당시는 염사 자격증은 없던 시기이다. 그리고 묘 작업 이외에 입관법과 염습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당시는 대개 가정에서 상을 치르던 시기이다. 현재 장례지도사로 30년 이상 이 일에 종사하고 있다. 그는 청양농협장례식장에 5년간 근무했으며, 1년 전에 사고를 당해 현재 휴직중이다.

그의 부친 이회열(1932-2004년)은 상포장사를 하면서 장의사도 겸했다. 부친은 읍내 사거리 근처에서 성심장의사를 했다. 원래 부친은 공무원으로 있었는데, 군청 산림계에 근무하던 시절에 주위에서 청탁이 빈번해지자 힘들어서 공무원을 그만두고, 50대 초반에 장의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약 20여년간 장의사를 했다. 부친은 시신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장례 현장에서 익혀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가정, 가문, 마을 중심의 장례문화는 20c 후반기부터 장의사가 대행하고, 1990년대부터 장례식장을 이용하면서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곧 전통적 장례 과정이 생략되고, 모든 의식과 도구, 제물 등을 대행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제는 상례에 관심이 크게 줄어들었으며, 일반인들은 점차 장례 절차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초종, 염습단계의 변화

요즘 염습은 모두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직원에 의해 대행된다. 따라서 가족의 손을 거의 거치지 않지만, 간혹 염습에 가족 중에 일부가 참관해서 장례지도사에게 집안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찬연에 의하면, 요즘은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서 사망 후의 처리 방식도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면 일단 지구대로 연락을 한다. 그러면 경찰이 집 입구부터 촬영을 한 후에 지방청으로 연락을 한다. 이어 감식반이 와서 감식을 해서 사망원인을 판명한다. 이어 의료원으로 가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는다. 그리고 시신을 농협 장례식장으로 모시고 간다. 예전에는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직접 모시기만 하면 되었는데, 요즘은 수속이 다소 복잡해졌다.

장례식장에서는 시신이 도착하면 우선 수세를 한다. 시신 상태가 다양한데, 굽은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다. 우선 시신을 임시로 안치시키는 나무판 위에 올린다. 이 나무의 크기는 길이 2m, 폭 40cm 정도이다. 다른 곳에서는 시신

을 그냥 판 위에 올려놓는데, 농협 장례식장에서는 수세복으로 갈아 입히고 우선 머리를 깨끗이 씻어드린다. 이어 광목으로 어깨와 팔, 엉덩이, 무릎, 발목 등을 4-5마디로 묶는다. 그리고 치아가 없어 입이 벌어질 경우에, 입을 가지런히 한다. 그래서 시신이 마치 주무시는 듯이 깔끔하게 모신다.

요즘에는 망자의 혼을 부르는 초혼(招魂)은 거의 하지 않는다. 장례식장에서도 초혼을 하지 않지만, 간혹 집에서 초혼을 하는 경우가 있다. 예전에는 지붕에 올라가서 북쪽을 향해 망자가 입던 윗옷을 흔들면서 "○○○씨, 복복복"하고 외쳤다. 이때 청양에서는 이름이나 생년을 말하지 않는다. 나중에 그 윗옷은 울타리에 걸어 놓는다. 이런 것은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없어졌으며, 요즘은 초혼이 초제로 대체되었다. 장례식장의 초제는 제단에 영정 사진을 설치하고 큰아들이 상주로서 절을 하고 잔을 1잔 올리는 것으로 대신한다. 초혼과 사자밥 등의 예전 장례문화는 이제 사라져서 볼 수가 없다.

장례식장의 염은 유가족 없이 진행한다. 다만 시신의 얼굴에 면을 씌우기 직전에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망자의 얼굴을 보인다. 시신의 옷을 탈의하고 바지, 저고리와 수의를 입히고 7매듭으로 묶은 다음에 약 5분 정도 있다가 유가족이 와서 마지막으로 얼굴을 보게 한다.

한편 입에 쌀을 넣는 반함이나 손에 노자돈 쥐어주는 풍습은 지금도 장례식장에 지속된다. 현재도 "아버님 양식 좀 주세요" 하고, "천석이요, 이천석이요, 삼천석이요"라고 말하면서 담근 쌀을 입에 한 숟갈씩 3번 넣는다. 쌀을 넣어 드릴 때에 예전에는 대나무를 숟가락 형태로 깎아서 사용했는데, 요즘은 작은 스푼을 사용한다. 그리고 장례지도사가 "상주님 오세요"라고 하고 "노자돈 좀 주세요"라고 말한다. 그리고 10원짜리 동전을 창호지를 깐 머리맡에 놓으면서 "천냥이요, 이천냥이요, 삼천냥이요"라고 말을 한다. 예전에는 동전을 반으로 잘라서 우측, 좌측의 손에 쥐어주고, 정중앙에 놓았으나,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기본적 형식은 예전과 유사하다. 한편 손발톱과 머리를 잘라 오낭주머니에 넣는 풍습은 장례식장에서 하지 않는다.

관에 유족이 돈을 만원 짜리로 놓는 경우가 있는데, 화장터에서 소각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제지한다. 농협장례식장에서는 수고비를 못 받게 되어 있다. 유족들이 약간의 돈을 담뱃갑이라며 장례지도사에게 주려고 하지만, 규정상 받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누런 봉투에 넣은 부고는 이미 사라졌으며, 근래는 대신 전화나 이메일로 대신한다. 그리고 사회적 활동을 한 인물은 신문이나 인터넷에 부고를 띄운다. 그리고 각 마을에 있는 상례

관련 연반계도 거의 사라졌다. 대신 일부 동네는 대동계가 이를 대신하며, 각종 친목회, 동창회가 부조와 문상의 역할만을 대신한다.

3) 상복과 조문방식의 변화

염습이 끝나면 상복을 갈아입는 것은 지금도 예전과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복이 달라졌을 뿐이다. 남자는 검은 양복을 갈아입고, 완장을 차며, 가슴에 리본을 단다. 여자는 흰색 치마저고리를 입고 머리 띠를 두른다.

예전에 상을 당하면 동네 할머니나 부녀자들이 모여서 밤세워가며 남녀 상복을 짓는 풍습은 사라지게 되었다. 여자의 경우에 흰색 치마저고리 대신에 검정 치마저고리를 입기도 하는데, 이것도 근래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상례의 복식은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변화 양상이다.

요즘 성복제를 특별히 치르는 경우는 많지 않다. 대신 상주가 차례대로 술을 올리고 절을 2번씩 하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절의 횟수도 예전에는 남자는 2번, 여자는 4번을 했지만, 근래에는 여자들도 2번씩 절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부조는 현재 돈으로 일반화되었다. 안연길에 의하면, 부친이 7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송학리 노인회, 청년회, 부녀회에서

30만원씩 부조를 받았다. 따라서 개인적 부조와 단체의 부조로 나뉘는 향상을 보인다.

한편 조문 방식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에 가정에서 장례식을 할 경우에는 장시간 머무르기 때문에 문상객들은 문상 이후에 화투를 치고, 술을 마시는 경향이 많았다. 그러나 장례식장이 생기면서 이번 풍속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따라서 문상객은 대부분 1-2시간 정도 머무르는 데에 그치고 밤세워 머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4) 운상 및 장법의 변화

청양 지역에서는 현재 화장과 매장이 각각 절반 정도 차지한다. 장례지도사 이찬연[26]에 의하면, 도시는 화장이 대부분이지만, 아직도 시골에서는 매장을 선호하는 경향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청양 지역은 아직도 약 50% 정도는 매장을 한다고 말한다.

매장을 할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관을 사서 사용한다. 그런데 청양 지역은 대부분 탈관을 하기 때문에 갈수록 좋은 관을 쓰는 경향은 사라졌다. 주로 목관을 쓰지만, 간혹 석관을 쓰기

---

26) 장례의 변화에 대한 아래 내용은 주로 청양농협 장례지도사인 이찬연(남, 1961년생, 청양읍 거주)를 대상으로 2020년 10월 12일에 자택에서 조사한 것이다.

도 한다. 목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한데, 중국산이 많이 들어오면서 값도 싸졌다. 소형관과 대형관은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옻나무관이 드물고 비쌌으나 중국산이 들어오면서 저렴해졌다. 현재 옻나무관은 30-50만원, 소나무관이 10-15만원 선이며, 오히려 오동나무관이 비싸졌다. 대체로 화장은 값싼 소나무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매장은 옻나무관이나 오동나무관을 쓰는 경향을 보인다.

이찬연은 자연으로 회귀한다는 측면에서 평토 형태의 지상납골당을 권한다. 곧 화장을 해서 납골함을 평토 형태로 땅에 묻고, 이때 사용하는 납골함은 나무나 곱돌 유골함을 권장한다. 특히 곱돌 유골함은 10만원 정도로 저렴하면서도 일년 정도 되면 삭아서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연으로 되돌아간다는 면에서 곱돌유골함이나 나무유골함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특히 사기로 된 유골함은 썩지 않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가지 못하며, 특히 습기가 있으면 벌레가 생기게 마련이다.

요즘에도 매장을 할 경우에 간단한 산신제를 지낸다. 예전에는 산신제에 과일과 북어를 놓고 술잔을 3-4번 나눠서 부으면서 제를 올렸다. 그런데 요즘은 땅을 파는 포클레인 기사가 간단히 잔을 부어놓고 형식적으로 절을 한다. 한편 근래에는 산제사를 지낸 음식을 전부 소각을 한다. 원래 음복이라 해서 산에

서 먹고, 집안에 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요즘은 음식이 흔해져서 산제사 음식을 잘 안 먹는 경향이 있어, 이런 음식까지 소각을 하게 된다.

요즘에도 매장을 할 경우에도 상여를 메기도 한다.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고 일단 영구차로 동네까지 모시고 온다. 그리고 살던 집에서 꽃상여를 조립하고, 이 상여를 메고 장지까지 시신을 모신다. 따라서 발인 전날 이루어지는 '상여흘리기' 방식의 상여메기 예행연습이나 상가집 분위기 반전을 위한 상여 관련 놀이는 사라졌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운구하기 때문에 예전에 중상일 경우에 행하는 중상매기나 바가지 깨는 풍습도 사라졌다.

다만 꽃상여라 하더라도 상여가 나갈 때에 절을 하게 하고, 상주로부터 돈을 받는 풍습은 일부 남아 있다. 이런 돈은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마을 기금으로 축적된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꽃상여 운구 중에 반복해서 봉투를 내게 하는 풍습은 거의 사라졌다.

특히 장지가 다른 동네일 경우에는 상여 운구나 영구차 통과에 시비가 붙는 일이 자주 있다. 보통 마을에서는 다른 동네의 상여나 시신이 들어오는 것을 꺼리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미리 동네에 인사를 하지 않으면 못 지나가게 할 정도가 되었다. 한편 상여를 사용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노

제도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화장을 할 경우에는 상여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시골마을에서는 마을의 전통적인 상여를 실제 사용되지 않게 되자, 10-20년 전에 동네상여를 없애거나 판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청양에도 마을 상여가 남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대부분 일회성의 값싸고 간단한 꽃상여를 사용하고, 나중에 소각하게 된다.

5) 장례 이후의 변화

요즘도 장례를 모시고 3일 후에 묘지에 가서 하는 삼우제는 일부 남아 있다. 이것도 장례식장에서 상주가 원하면 제물을 미리 포장해서 준비해 준다. 대체로 사과, 배, 밤, 대추, 곶감, 3가지 전, 포 등을 준비하며, 대략 18-20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삼년상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되며, 요즘은 장례를 모시고 당일에 탈상을 해서 실생활에 복귀를 한다. 그리고 사십구재를 지내는 집도 일부 불교신자에만 드물게 나타난다. 대개 절에 직접 가서 지내게 된다. 아니면 49일째에 식구들만 산소에 가서 간단히 잔을 붓고 절을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근래에는 파묘와 이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찬연에 의하면, 오래 된 조상의 산소를 이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정식

화장장을 사용해서 화장을 해야 한다. 이때 '개장신고필증'을 발급받고, '화장증명서'를 떼어야 한다. 그러나 시골에서는 파묘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않고 음성적으로 화장하는 경우가 많다. 화장한 후에는 대부분 추모공원이나 가족 납골당으로 모신다.

4. 상례에 의미와 인식체계

1) 저승에 대한 인식

한국인의 저승관은 무속이나 민간신앙 등에 일부 나타나지만 다소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다. 한국인은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현실 세계를 이승이라 하고, 사후에 가는 곳을 저승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저승의 세계는 구체적이지 않으며, 시공간도 다소 모호하다. 저승이 어디에 있고, 저승의 세계는 어떠하고, 저승길 가는 과정은 어떠한지에 대해 다소 막연하다. 다만 저승길이 멀고 험하며, 물을 건너야 한다고 인식해서 황천(黃泉)길이라고 한다. 그래서 무속의 망자천도굿에서는 용선(龍船)이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교적 영향으로 저승사자와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이 있다는 정도로만 인식한다. 또한 닭이나 개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로[27] 그려진다.

---

27) 제주도 무가 '허웅아기설화'를 보면, 닭이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며, 고구려 각저총 진묘수(鎭墓獸)는 무덤을 지키는 존재로서, 대체로 개로 인식한다.

청양의 비봉면 중묵리에서는 대문 왼쪽에 사자상을 차리고 위에 밥 3그릇을 놓고, 동전 3개, 상 옆에 짚신 3컬레를 놓는다. 사자상이란 말은 저승사자를 위한다는 의미에서 출발한다. 사자상은 저승사자상이 원래 명칭이며, 주영하는 저승사자가 망자의 넋을 괴롭히지 않고 인도하게 하기 위해 차린 음식상이라고로 해석한다.[28] 한편으로 저승길이 험하기 때문에 가는 길에 밥을 든든히 먹고, 동전은 노자돈으로 쓰고, 중간에 신발을 바꿔 신으라는 의미로도 해석한다. 이것은 저승이 이승에서 멀고 험하다는 의미를 지닌다.

반함(飯含)은『주자가례』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에서 원래 유교식 의례이다. 곧 쌀을 숟가락으로 떠서 입의 좌우 중앙에 3번을 떠 넣는 방식이고, 동전 상자도 나타나지만 구체적 언급은 없다.[29] 이에 대해 이철영은 쌀은 복과 생명력을 상징한다고 해석한다.[30] 청양의 정산면 송학리, 대치면 농소리, 비봉면 중묵리 등에는 모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수저로 입에 3번 떠넣는다는 점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몇 석이냐의 지칭만 다를 뿐이다. 그리고 돈도 쥐어주는데, 이것을 송학리의 안연길은 노자돈이라 말한다. 그는 속담으로 "죽어서 동전 3개

28) 주영하,「사자상」,『한국민속신앙사전 -무속신앙편』, 국립민속박물관, 2009.
29)『주자가례』, 내반합(乃飯盒).
30) 이철영,『유교상례의 이해』, 해조음, 2020.4, 114-115쪽.

도 못 가지고 가고, 3조각 갖고 가는 인생인데, 뭐하러 그리 열심히 사느냐?"라는 말도 전한다. 다만 농소리는 동전이 아닌 구슬로 나온다. 한편 '반함'에 대해 최운식은 버드나무는 강한 번식력, 양식과 용돈은 사후에 재생하여 잘 살라는 의미로 해석을[31] 한다.

반함이 유교식 의례에서 유래했지만, 민간의 인식은 쌀과 돈을 복과 생명력으로 해석한다면 저승에 가서 잘 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비록 유교에서 저승이란 개념이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현세와 다른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지는 않았다고 본다. 이것은 유학에서 귀신을 인정하지 않지만, 조상귀신은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장례에서 닭이 등장하기도 한다. 운곡면 위라리에서는 예전에 발인 전날 밤에 횃불을 밝히고 '상여흘리기'를 하는데, 빈상여의 4귀퉁이에 닭을 매달고 마을을 한 바퀴 도는 독특한 방식이다.[32] 한국의 신화에서 닭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드는 존재로 등장한다. 신화적(神話的) 성격을 지닌 제주도 무가(巫歌) '허웅아기 이야기'에는, "저승닭 울면 이승 오고, 이승닭 울면 저승 가며"[33]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닭은 이승과 저승을 구

31) 최운식, 「반함」.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8.
32) 김석환(남, 당시 70세, 청양군 운곡면 위라리 10대, 지관), 2003.7.9., 성시우 조사.
33) 진성기,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151~152쪽.

분해 주지만, 실제로는 저승과 이승을 넘나들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기의 닭은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영혼의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닭은 조상신의 영혼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종묘에서 쓰이는 제기(祭器)인 계이(鷄彝)에는 닭이 그려져 있다. 이곳에 조상신의 영혼이 강림하게 되는데, 닭에 조상신의 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34] 청양에서 '상여흘리기' 과정에 빈상여 위에 올리는 닭은 조상신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고,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인도하는 존재라는 이중적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근래에 세상을 떠났다는 의미를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은 서양의 기독교적 사고가 유입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아닌 저승이란 개념이 원래 사후의 세계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근현대에 와서 현실 세계의 상대 개념으로 하늘이 설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영혼에 대한 인식

상례에서 죽은 이의 영혼을 부르는 의례에 초혼(招魂)이 있다. 청양에서는 다른 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대개 지붕에 올라가 북쪽을 향해 망자의 윗옷을 흔들며, "○○ ○씨 복복

34) 정형호, 『닭띠 -12띠의 민속과 상징』, 국학자료원, 1999.2, 219-220쪽.

복"이라고 외친다. 이것은 장례식장이 일반화되기 이전에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장례 의례이다.

초혼은 전통적 상례 예서인 『주자가례』에 이미 나타난다. 곧 죽은 사람의 웃옷을 왼손에 잡고 동쪽 처마로 올라가 북쪽을 향해 흔들며 아무개 돌아오라고 세 번 부르는 것이다. 이때 돌아오라는 의미에서 복(復)이라 하는데, 혼(魂)을 불러 백(魄)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다. 곧 몸을 떠난 영혼을 불러들이는 것이다.[35] 공자도 『예기』에서 초혼을 부르는 것은 신에게 망자가 다시 살아나기를 비는 것이라 하였다.

유교에서도 조상귀신을 인정하고 있다. 『중용』에 나타나는 귀신을 보면, 귀신은 천지의 공용(功用)이고 조화의 자취이며, 귀(鬼)는 음(陰)의 신령이고, 신(神)은 양(陽)의 신령이라 하였다. 하나의 기(氣)로 말하면 이르러 펴는 것은 신이라 하고, 돌이켜 돌아가는 것은 귀가 되니, 그 실상은 한 물건이라고[36] 하였다. 이런 귀신관은 주자로 대표되는 신유학자에게 계승되어, 이기론에 의해 더욱 체계화되었다. 『성리대전』의 귀신 관련 내용에 보면, 사람이 죽게 되면 혼(魂)의 기는 하늘로 올라가서 신이 되고, 백(魄)은 땅으로 돌아가서 귀가 되는데, 여기서 혼은 양

35) 이철영, 앞의 책, 65-66쪽.

36) 程子曰 鬼神天地之功用 而造化之迹也 張子曰 鬼神者二氣之良能也 愚謂以二氣言則鬼者陰之靈也 神者陽之靈也 以一氣言 則至而伸者爲神 反而歸者爲鬼 其實一物而已(『중용』 16장)

에 해당되고, 백은 음에 해당된다.[37] 그런데 사람이 죽기 전에는 신이 주가 되지만 이미 죽은 다음에는 귀가 주가 된다.[38] 결국 귀신이란 사람이 죽고 사는 이치를 말하는 것이다. 신유학에서는 귀신의 기는 죽게 되면 흩어져 없어지게 되지만 흩어져 없어지는 속도는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곧 사람이 죽음 자체에 수긍하지 못하면 그 기는 흩어지지 못하고 요괴가 된다는[39] 것이다. 이것은 귀신이란 영원히 존재하지 않으며 기운이 다 되면 기가 흩어져 버리게 되나, 삶에 미진함이 있는 경우는 흩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유학에서는 귀신을 기(氣)의 부산(浮散)으로 보고 음양의 법칙에 따라 분류했으나, 요괴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특이하다.[40]

이런 시각은 사람이 죽으면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는 곧 생전에 영혼은 육신에 담겨 있어 일체화되지만, 죽으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제사를 올리는 것도 조상에 대한 효의 개념도 있지만, 영혼이 일정 시간 지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영혼불멸까지

---

37) 魂氣歸于天 形魄歸于地而死矣 … 陽魂爲神 陰魄爲鬼 … 魂升爲神 魄降爲鬼(『성리대전(性理大全)』 권 28, 귀신)

38) 但未死以前則神爲主 已死之後則鬼爲主(『성리대전』 권 28, 귀신)

39) 人鬼之氣則 消散而無餘矣 其消散亦有久速之異 人有不伏 其死者所以旣而此氣不散爲妖爲怪(『성리대전』 권 28, 귀신)

40) 정형호, 「귀신을 통한 금오신화의 고찰」, 『현산 김종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1.9.

는 아니어도 영혼의 지속성을 인정한 것이다.

장례가 끝나면 반혼(返魂)을 하는데, 이를 통해 육신과 분리된 혼백을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된다. 이것을 예서에는 반곡(反哭)이라고 하며, 반우(返虞)라고도 한다. 비봉면 중묵리의 이용희는 반혼은 평토 후에 장지로 갔던 길로 똑같이 되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 영혼이 돌아온다고 말을 한다. 이런 점에서 사후에도 육신과 분리된 영혼은 다시 집으로 회귀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한편 사십구재는 불교에서 사람이 죽은 뒤에 다음 생을 받기까지 머무는 49일째 날에 치르는 천도재를 말한다. 이것은 유교식 예법에는 없는 철저한 불교식 의례이다. 사람이 죽으면 명부를 다스리는 10명의 시왕(十王)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므로, 49일째에 사십구재라는 의식을 지내 망자의 구원을 기원한다. 이것은 윤회를 바탕으로 내세가 설정된 불교 의례에 바탕을 둔다.

예전에 한국인들은 나이가 들면 죽음을 미리 준비를 한다. 따라서 묘자리도 미리 봐두고, 죽을 때 입고 갈 수의도 미리 짓는다. 심지어 관까지 미리 짜놓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때가 되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간다는 인식이 깔려 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꺼이 맞이한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이런 것이 가능한 것은 비록 육체는 소멸되지만 영혼은 남아있고, 후손에 의해 조상신으로 받들어진다는 점이 작용한 것이라 여겨진다.

3) 자연친화적 속성

풍수는 인간이 자연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것은 주변 산과 물, 땅, 바람, 방향 등을 두루 고려한다. 땅을 피가 흐르는 인간의 혈맥과 동일하게 인식하여 지혈(地穴)이라 했다. 풍수에는 집터를 잡는 양택풍수가 있고, 묘자리를 잡는 음택풍수가 있다. 음택풍수에서 매장은 자연과 하나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곧 풍수에서 산과 물, 땅속까지 생명이 있어 인간과 조화를 추구한다.

지형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주체인 인형(人形), 길짐승이 주체인 수형(獸形), 날짐승이 주체인 금형(禽形), 용과 뱀이 주체인 용사형(龍蛇形), 기타 형태로 나뉜다. 혈(穴)을 취하는데 있어서, 사람은 심장과 배꼽과 음부, 날짐승은 날개와 둥우리와 볏에, 길짐승은 여러 짐승의 모양에, 용사형은 코와 이마와 귀와 배와 머리와 꼬리에 의한다. 주체를 보면, 사람이 주체인 인형(人形)은 여인, 장군, 선인, 중, 고기잡는 노인의 5가지로 구별된다. 그리고 길짐승이 주체인 수형(獸形)은 다양한데 물고기 · 게 · 지네 · 호랑이 · 소 · 거북 · 말 · 사자 · 개 · 나비 등이 등장하며, 날짐승이 주체인 금형(禽形)은 봉황새 · 닭 · 학 · 거위 · 기러기 · 비둘기 등이 등장한다. 한편 용사형은 용과 뱀이며, 그 외에 꽃 종류, 나무 종류, 배, 달, 거문고 등의 형상이 등장한

다.[41] 도성이나 마을의 위치를 잡고, 집을 짓고, 조상의 묘자리를 잡는 일은 산, 물, 방위, 바람을 바탕으로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매장에 의한 음택풍수는 인간이 어떻게 자연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느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자연친화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한편 산에 매장할 때의 산신제(山神祭)도 산신신앙을 바탕으로 한다. 이 제사는 장지에서 산역으로 땅을 파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것은 산의 주신인 산신에게 미리 고하는 과정으로 청양에서는 매우 보편적으로 행해진다. 간단한 과일과 포를 준비해서 산신에게 술을 올리며 절하는 방식이다. 산신제는 민간신앙으로, 유교식 의례에는 나타나지 않으며, 단지 개토제만 실시한다. 산신제의 의미는 산의 영원한 주인이 산신이라는 신라시대부터 전하는 산악숭배신앙에서 유래한다. 전국의 명산에서 국가적 제의를 지내는 오악(五岳)도 산신신앙이 바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장례에서 조상의 묘소를 잡기 전에 산신에게 고해서 망자가 산에서 편히 좌정하기를 기원하는 의식이다. 이것은 자연회귀이며, 산신신앙은 자연신 신앙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청양지역에는 현재 화장과 매장이 절반 정도에 이른다. 도시지역에 화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지방에서는 아직

41) 신월균, 「풍수지리사상」, 민속학회 편『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10.

도 매장이 많아 있다. 특히 평지 형태의 납골당을 조성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산면 송학리 안연길은 집안에 납골함을 묻는 평지 납골당을 조성했다. 이런 방식은 적은 면적에 납골함을 안치하고 묘비석을 세우는 방식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이때 썩지 않는 사기유골함보다는 곱돌납골함이나 나무납골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늘어나는 것은 죽어서 자연으로 되돌아가는 자연회귀의 의식이 바탕을 이룬다. 또한 근래에 수목장의 방식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4) 주술성과 부정의 정화

장례 과정에는 다양한 주술적 행위들이 나타난다. 주술은 언어주술, 도구주술, 행위주술로 나뉘며, 원리에 따라 유감주술, 접촉주술 등이 있다.

장례에서 발인시 관이 나갈 때에 바가지를 엎어놓고 발로 밟아서 깨는 것은 주술적 행위이다. 이것은 바가지 깨는 소리에 잡귀가 놀라서 도망을 간다는 축귀적 주술이다. 청양에서는 방문 앞, 마루밑, 대문 앞에서 실시한다. 망자가 저승길로 떠나는 길에 중간에 액이 끼지 않고 편안히 저승길로 가게 해달라는 주술적 축원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한편 청양에는 관이 나갈 때에 일시가 맞지 않으면 중상매기

를 하는 것도 일반화되어 있다. 이것은 해와 날을 따져 좋지 않을 경우에 하는 예방적 액막이 의식이다. 중상일이 되면 장례를 치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이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관이 방안에서 나갈 때에 동서남북 방향을 향해 3번씩 "중상이요"를 외치거나, 방의 네 모서리에 관의 머리를 부딪친다. 모두 사방을 통해 부정을 정화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은 부정이 생기면 잡귀가 끼고, 탈이 생겨서 인간이 고통을 당한다는 부정관에 바탕을 둔다.

한편 청양에서는 예전에 팥죽부조가 여러 지역에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마을 주민들이 팥죽을 쑤어서 상가집에 가져오며, 이것은 일종의 부조가 된다. 팥죽의 용도는 밤참으로 먹기 좋다는 현실적 기능과 붉은색이기 때문에 잡귀를 쫓는다는 주술적 기능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특히 팥죽은 상주나 가족들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간편 영양식으로서 적절하다.

그리고 팥죽의 붉은색은 축귀의 대표적 상징성을 지닌다. 동지에 팥죽을 먹거나 집안 곳곳에 뿌려서 잡귀를 막는 풍습, 마을 제의에서 제당이나 제주집 앞에 황토를 뿌리기, 방 위에 그려넣는 붉은색의 부적 등도 동일한 상징성을 지닌다. 따라서 상가집의 팥죽 부조는 주술적 기능과 현실적 기능을 아울러 지니

고 있다고 하겠다.

예전에 부고장은 누런 봉투에 넣어 대문 밖에 걸어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죽음을 알리는 부고장을 일단 부정으로 인식한 것이다. 그 봉투를 집에 들이는 것은 액을 불러들인다는 의미로 인식했다. 이것도 붉은 색이 잡귀를 쫓는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곧 붉은 색의 부고 봉투 자체가 부정이면서, 또한 봉투에 잡귀가 끼지 말라는 의미도 아울러 지닌다.

장례는 부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산모인 경우나 제사가 든 경우에는 상가의 출입을 삼가게 된다. 죽음의 부정관은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도, 저승도 아닌 경계영역에 있으며, 사체와 영혼은 조령으로서 경의의 대상이 되지만, 지역의 공동체에게는 부정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사회집단의 관계망 속의 의례이기 때문이다.[42] 운곡면 위라리에서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 되지 않은 산모, 집안에 제사가 있는 경우, 혼인 날짜가 잡혀있는 신랑신부는 상가집의 출입을 삼간다. 경사나 애사가 겹칠 경우에 상호 부정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일종의 부정을 방지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장례 끝난 직후에 망자가 입던 의복, 각종 손때 묻은 도구를 불태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

42) 임장혁, 「장례에 있어서 부정과 공동체의 대응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9호, 남도민속학회, 2009.

5) 상여 문양에 나타난 문화 상징성

상여의 장식물과 문양은 시신 운반 도구로서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이에는 각종 동식물, 인물형 등이 두루 나타나며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상여 장식물은 조선시대의 다양한 유교 및 불교적 세계관, 효 인식이 바탕을 이루며, 또한 기존의 십장생 그림, 불교문양, 민화 등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다. 따라서 매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다.

상여의 장식물과 문양은 크게 식물, 동물, 자연물, 인물상, 글자, 복합적 장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43] 이것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또다른 양상을 보인다. 상여 장식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양에 연꽃, 용, 봉황이 있고, 매화, 난초, 복숭아, 석류도 등장한다. 각각의 장식물은 한국의 문화적 특성 속에서 상징성을 지닌다. 상여의 연꽃은 환생, 극락왕생의 기원과 함께 청

43) ① 식물 장식 : 꽃(매화, 난, 연꽃, 모란, 무궁화), 나무(대나무, 소나무), 과일(복숭아, 석류)
② 동물 장식 : 용(청룡, 황룡), 봉황, 코끼리, 해태, 원앙, 오리, 학, 새, 호랑이, 사슴, 소
③ 자연물(장생물) 장식 : 구름, 해, 달
④ 인물상 장식 : 성직자와 선인, 범인(凡人), 시자(侍者), 동자, 종교지도자, 스님, 악사, 비범인, 산신, 방상시, 저승사자, 염라대왕, 동방삭, 희광이 혹은 망나니(축귀)
⑤ 글자 장식 : 연꽃 줄기에 '極樂', '蓮'과 같은 글자를 새긴다. 만다라 문양도 있는데, 이것은 사후 좋은 세계로 가도록 염원하는 글귀이다.
⑥ 복합적 장식 : 해태 타고 있는 선인, 코끼리 타고 차 공양하는 여인, 호랑이 탄 산신, 구름 타고 과일 공양하는 사람, 소를 탄 노인.(정형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서울특별시, 2018,6, 132-147쪽)



그림 7. 상여의 다양한 문양(서울 암사동 바위절마을)

정과 고결함을 상징한다. 신성한 상상의 존재에는 용, 봉황이 있는데, 용은 상서로움, 조화, 수신(水神), 고귀함을 상징하고, 봉황은 상서롭고 고귀한 상징성을 지닌다. 한편 매화는 봄을 맞이하는 꽃으로 회춘, 쾌락, 행복, 절개를 상징한다. 난초는 사군자로 고귀함과 자손번창, 부귀 등을 상징한다. 또한 복숭아는 잡귀를 쫓는 의미, 석류는 씨앗이 많다는 점에서 다산(多産)을 상징한다.[44)]

상여의 십장생으로 대나무와 소나무, 해, 달, 구름, 학, 사슴 등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십장생(十長生)은 민간신앙 및 도교에서 불로장생을 상징하는 열 가지의 사물을 지칭한다. 원앙은

44) 『한국문화상징사전』 1-2권, 동아출판사, 1992-1996.

부부간 좋은 금슬, 해태는 시비와 선악을 판단하는 상상의 존재, 코끼리는 다산과 부의 상징, 호랑이는 악귀를 쫓는 벽사의 주체, 소는 불교의 깨달음과 관련이 있다.

한편 인물상으로 신성한 존재, 종교지도자, 저승의 주요 인물, 잡귀를 쫓는 인물 등 다양하게 등장한다. 상여를 장식하는 꼭두인물상은 사람을 닮았지만, 인간 세상과 초월적 세계를 연결해주는 존재이다. 이것은 4가지 인물형으로 나뉘는데, 첫째, 저승으로 건너가는 여행자의 안내 역할자로서 용이나 말을 타고 등장한다. 둘째, 주위의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초월적 힘을 과시하기 위해 험악한 표정을 짓거나 무기를 든 인물이 등장한다. 셋째, 여행 중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 등장한다. 넷째, 이승으로 떠나는 영혼을 달래주고 즐겁게 하기 위해 맑고 밝은 표정의 인물도 등장한다.[45] 후대에 오면서 인물상이 많아지며, 2-3가지 복합적인 장식도 나타난다. 상여의 장식물은 살아있는 인간들의 인식을 반영한다. 곧 삶과 죽음은 우주적 질서 안에서 영혼이 순환할 수 있는 세계로서, 두 세계는 분리와 단절의 영역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 이것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현세와 내세를 동일시하는 계세적(繼世的) 내세관과도 상통[46]한다.

---

45) 「새로운 세계의 길잡이, 꼭두를 만나다」, 서울꼭두박물관.

46) 이현경, 「삶과 죽음의 경계-상여 장식물의 이중적 구조」, 『민속학연구』 25호, 국립

상여의 봉황은 상여의 네 귀퉁이에 큰 형태로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봉황은 입에 청사초롱을 물고 있는데 상여 하단까지 늘어져 있다. 그 외에 작은 종, 물고기, 붉은 매듭장식의 술 등을 함께 물고 있다. 상여의 용에는 청룡과 황룡이 등장한다. 용은 전면과 후면에 각각 한 쌍이 배치되어 있다. 그리고 지붕 위에 큰 용 4마리가 앞뒤에서 가운데 연봉을 향해 있다. 상여에서 용이 새겨진 용수판을 장식물로 사용하면 나쁜 기운을 막을 수 있다고 여겼다. 이런 용들은 엄청난 생명력을 발산하게 된다. 한국 문화 속의 용은 길상, 수신(水神), 제왕, 입신, 호법신, 벽사의 다양한 상징성을 지닌다.

상여에는 지붕에 해당하는 별갑에 칼을 든 험상궂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인물은 대장군(大將軍)이다.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으며, 머리에 검은색 관모를 쓰고 있다. 상여에 나오는 선녀(仙女)는 빨간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입고 있다. 칠선녀는 중국 신화에 등장하는 7명의 선녀 자매로, 옥황상제와 서왕모의 딸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팔선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상여의 앞뒤에는 대금을 부는 악사(樂士)가 등장하기도 한다. 상여 장식에 악사가 나오는 것은 즐겁게 망자를 떠나보낸다는

민속박물관, 2009.12, 215쪽.

의미를 지닌다. 꼭두 중에서 가장 즐거운 형상은 여행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꼭두들이다. 이들은 여행자들의 마음으로부터 슬픔을 걷어내기 위해 묘기를 부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면서 망자를 달래준다.[47]

상여 좌우 측면에 흰색의 학(鶴)이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학은 십장생의 하나로 장수를 의미한다. 천년 학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새는 장수를 상징한다. 상여에는 구름문양도 나타난다. 윗난간에 구름문양이 그려져 있는데, 구름은 10장생의 하나이다. 또한 구름은 형체가 없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어디로든지 떠돌아다닌다는 점에서 불교에서는 불법의 경지를 상징한다.[48]

한편 상례에는 남좌여우(男左女右)[49]가 일반적인데, 이것은 남자는 왼쪽이 소중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소중하다는 의미이다. 유교에서 왼쪽은 남성, 오른쪽은 여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음양설에서도 왼쪽이 양이며, 오른쪽이 음을 상징한다. 따라서 위패의 신위에서 오른쪽이 왼쪽보다 우위에 있다.[50] 특히 유교

47) 「새로운 세계의 길잡이, 꼭두를 만나다」, 서울꼭두박물관.

48) 정형호, 『바위절마을호상놀이』, 서울특별시, 2018.6.

49) '男左女右'는 이미 『예기』에 나오는데, 음양설에서 남자는 왼쪽이 소중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소중하다는 뜻이며,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이 음이란 뜻도 있다. 한쪽 팔을 빼는 것은 망자의 혼을 맞아들인다는 의미를 지닌다.(「상장례복」, 『향토문화전자대전』, 전북 순창군, 한국학중앙연구원)

50) 이런 것은 오른쪽을 바른쪽이라 여겨 일상적인 방향으로 보고, 정도의 길라는 상징성이 있는데, 이것을 남녀 사람에게 적용될 경우에는 다른 양상이다.

나 음양설에는 오른쪽을 양이고 우월한 방향으로 인식한다.

한편 술잔을 왼쪽으로 돌리는 것도 방향의 상징이지만 또다른 의미를 지닌다. 상례나 제례에서 제사를 지낼 때에 일부 집안에서는 술잔을 왼쪽으로 3바퀴를 돌린다. 이때의 왼쪽은 비일상적인 방향이며, 또한 현실적 세계가 아닌 비현실적 세계를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한국의 문화에서 왼쪽은 비일상적인 방향이다. 따라서 금줄은 오른새끼가 아닌 왼새끼로 꼬아서 매단다. 이때 왼새끼는 비일상적인 방향이며, 또한 정화의 방향이다. 따라서 상례에서 망자에게 술잔을 왼쪽으로 3번 돌려서 바치는 것은 부정을 씻고 정화를 이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상례에서 방위개념도 나타난다. 중상매기일 경우에 관을 들고 나가면서 방안의 4방위를 향해 '중상이요'라고 소리치며 부딪치는 것도 사방을 관장하는 방위신에게 고하고, 부정을 정화시키는 상징성을 지닌다. 또한 좌향(坐向)이라 해서 묘가 자리하는 방향을 중요시하는것도 방위신과 관련이 있다. '자방오향'이라는 말은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바라본다는 말이며, 하관시 머리를 남쪽에 두는 것을 말한다. 모두 방향의 문화적 상징성에 바탕을 둔다.

6) 장례공동체

장례는 죽은 자를 중심으로 산 자들이 모여서 치르는 의식이다. 망자를 중심으로 직계 가족, 그리고 주변의 친족과 친지, 현실에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시공간의 의례이다. 3일장일 경우에 2박 3일의 의식이지만,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와 조문을 하면서 상주와 가족들의 고통과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을 주고 있다. 따라서 상주와 친족, 여러 문상객들이 단 며칠동안 장례를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한다.

전통적 장례에서 상가(喪家)집의 분위기가 떠들썩한 것은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상을 당했을 경우, 상주를 비롯한 가족, 친지들은 슬픔 속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다.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문상객들이 떠들썩하게 밤을 새우며 같이 시간을 보낸다. 문상객과 상주들의 관계에 의한 장례 의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극복, 상가집의 분위기 전환, 망자의 역할 공백에 따른 불안감 해소, 망자에 대한 슬픔의 공유, 경제적 상부상조라는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많은 문상객들은 상주나 가족이 겪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일시적으로 잊게 해 준다. 특히 망자(亡者)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가족에게 주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어제까지 살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죽어서 시신으로 누어있을 경우, 살아 있는 사람들은 평시에는 느끼지 못한 죽

음에 대한 두려움 갖게 된다. 특히 상주나 가족들은 더욱 심하다. 죽음이 현실화되었을 때, 심한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 따라서 생의 의욕을 잃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이른다. 비록 한국인들은 때가 되면 삶을 마감하고 죽는다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지만, 죽음이 현실화되었을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런 두려움과 무력감을 문상객들이 어느 정도 해소시켜 준다.

문상객들은 상가의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한다. 밀려오는 문상객들은 상주와 가족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망자에 대한 슬픔을 느낄 겨를을 주지 않는다. 그들은 술과 잡기로 떠들썩한 분위기를 조성해서 상가의 분위기를 바꾸게 된다. 문상객이 오지 않는 상가집은 적막감과 쓸쓸함으로, 심리적 불안감과 두려움은 배가된다. 예전 장례는 보통 3일장이 아니고, 교통, 음식 준비, 외지 연락 등으로 5일, 7일, 심지어 9일장도 있었다. 이럴 경우 상주와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더욱 크다. 마을공동체에서는 상여메기, 산역(山役), 음식 준비, 상복 짓기 등을 분담하고, 슬픔을 같이 나누며, 상가집의 분위기를 바꾸려고 시도한다. 특히 발인 전날에 운상 연습을 하면서 놀이가 이루어지며, 청양에서는 '상여흘르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런 비정상적인 놀이적 행위는 상가의 분위기를 바꾸고 상주를 위

로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비극적 죽음에서 벗어나 오히려 생명력을 확인하고, 죽음을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시켜, 무력감에서 벗어나려고 한다. 또한 망자의 마지막 날을 즐겁게 하고, 험한 저승길로 기꺼이 떠나보내려는 의도를 지닌다.

문상객들은 망자의 역할 공백에 따른 불안감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망자가 집안을 책임지는 가장인 경우, 가족들에게 주는 역할공백은 심각하다. 따라서 가족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휩싸인다. 죽음으로 인한 슬픔과 함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동시에 찾아온다. 그러나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당황스러움과 시급히 장례를 치러야 한다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여유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주위의 친지들은 이런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한다. 미래의 문제점을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다.

문상객들은 또한 상주와 더불어 슬픔을 공유한다. 이를 통해 서로의 인간적 관계를 확인하고, 일체감을 형성한다. 문상객들이 상주나 가족에게 주는 한 마디 위로의 말은 대단하지 않지만, 슬픔과 두려움에 있는 그들에게는 마음의 큰 위로가 된다. 또한 슬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혈육과 이웃이 있다는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삶에 대한 새로운 의욕을 심어준다.

우리 민족은 예부터 아픔을 같이 나누려는 동류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한(恨)의 문화를 형성했다. 그러나 맺힌 한은 풀어야 되며, 담고 있으면 고통이 되고, 우울증에 빠진다. 아픔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려는 의식 속에서 한국 민족은 아픔과 슬픔을 같이 공유했다. 그런 면에서 상가에 머무르며 슬픔을 나눈다는 것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시켜 준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장례공동체가 형성된다.

그리고 문상객들은 성의껏 부조를 함으로써 상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전통 사회에서 상을 당했을 경우,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된다. 부조로 들어온 돈·곡식·음식으로 장례를 치르고, 심지어 매장할 곳이 없으면, 이웃에서 제공한다. 하인이 죽었을 때에 주인집에서 장지를 기꺼이 내주는 것은 과거에는 흔하다. 그리고 상여는 마을에 비치되어 있고, 마을 남자들은 자진해서 상여를 멘다. 특히 혈연 중심의 동족부락에서는 모든 장례과정에 주민들이 자진해서 참여하고, 일을 분담한다. 장례식의 부조금은 상주가 극도의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경우에는 큰 힘이 된다. 장례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공동체에서 모든 일을 분담해서 의식을 치러준다.

장례공동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마을마다 구성되어 있는 상례 관련 계이다. 특히 에전에는 각 마을마다 상포계가

있었다. 청양에서는 위친계, 울친계, 연반계라는 명칭을 주로 사용한다. 위친계나 울친계는 부모를 위한다는 의미의 계이며, 연반계는 계원들이 연대해서 돕는 계라는 뜻이다. 계에서는 상포, 쌀, 술 등을 제공하며, 계원 중에 남자들은 산역이나 상여 매기, 여자들은 상복짓기, 각종 제물과 조문객 음식준비 등에 힘을 보탠다. 상주나 가족들과 슬픔을 같이 나누고, 망자를 애도한다는 의미 이외에, 현실적으로 조직적인 계를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물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상례 과정에 일체감을 형성하게 된다.

7) 상례의 문화예술적 의미

상례문화는 의식, 음악, 노래, 노동, 장식과 문양, 의례도구, 복식, 음식 등이 다양하게 어우러진 전통문화이다. 따라서 상례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은 문학, 음악, 종교, 미술, 복식, 식생활, 의례 분야의 사적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망자를 위한 각종 의식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상여소리와 달구질소리 중심의 각종 민요가 불려지고, 운상의 과정은 일종의 집단적 노동이다. 그리고 상여의 다양한 장식과 문양, 상가의 복식, 각종 운상 도구, 장례음식 등은 문화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상여소리는 상여를 운구하는 과정에 불려지는 장례의식요이다. 의식요이지만 상여꾼들은 발을 맞추어 장시간 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노동요적 성격도 있다. 전국적으로 상여소리의 기능은 동일한데, 음악적 특징은 지역마다 다르다. 이것은 망자의 시신을 장지까지 운구하면서 부르는 노래로, 망자를 추모하는 의미도 있지만, 해학적인 사설도 가미된다. 또한 상여꾼들이 소리에 맞춰 장시간 상여를 운구하면서 피로를 덜어주는 실제적 기능도 있다.

회다지소리는 장례에서 하관을 마치고 흙을 다지며 부르는 의식요를 말한다. 이것은 장례의식요이면서 작업 방식을 지니기 때문에 작업노동요의 성격을 지닌다. 달구질소리라고도 하는데, 선소리꾼이 앞에서 메기면 여러 명의 달구꾼들이 뒷소리를 받는 형식이다. 단순 음계가 반복되면서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다. 청양에서 회다지는 대개 10명 정도 교대로 참여하며, 긴 막대로 땅을 다지면서 선소리에 맞추어 반복한다.

상례 복식도 의례복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혼례복과 상례복, 돌복 등은 의례복 중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지닌다. 근래에 와서 복식이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전통적 상례복은 중요한 문화 상징성을 지닌다. 망자와의 관계에 따라 복식이 달라지고, 남녀간, 또한 시대에 따라 변화 양상을 보인다. 상례음

식은 의식용 제례음식과 문상객용 접대음식으로 구분된다. 특히 팥죽은 청양 부조음식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붉은 색의 제액이란 의미와 죽이라고 하는 상주 간편식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한편 상례의 놀이화 양상도 주목되는 문화적 특징이다. 청양의 '상여흘르기'는 호상일 경우에만 행하는데, 장례의식 속에 삽입된 놀이적 성격이다. 이것은 일종의 빈상여놀이라 할 수 있으며, 현실적 기능은 상여메기 예행연습이다. 청양은 다른 지역처럼 놀이가 심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대체로 발인 전날 저녁에 상여를 미리 조립해서 동네 길, 망자의 생전 다니던 길, 주막, 다리 등을 돈다. 그리고 상주가 뒤따르며 곡을 하고, 간혹 상주를 놀리기도 한다. 이것은 지방에 따라서는 대돋움, 걸걸이, 조장놀이라고도 한다. 상여꾼들의 손발을 맞춰본다는 의미도 있지만, 상가집의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의미도 있다. 매우 즉흥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극적인 성격도 지닌다. 이런 장례 관련 놀이는 지역에 따라 축제적이고 반의례적이며, 경우에 따라 성적 욕망도 표출해서 죽음을 통해 성의 생명성을 부각시키는 의미도 지닌다.[51)]

청양에서 특이한 것은 운곡면 위라리에서 발인 전날 밤에 횃

51) 임재해,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권, 비교민속학회, 1995, 265-317쪽.

불을 밝힌 상태에서 빈상여 4귀퉁이에 닭을 매달고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상주가 뒤따르며 곡을 한다는 점이다. 매우 특이한 방식인데, 닭이 지닌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존재, 망자의 영혼의 화신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상여흘리기와 상여메는 과정에 다리나 험한 길에서 상주에게 노자돈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봉투를 받아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청양의 상례문화 및 한국 상례문화의 독특한 특징이다.

5. 상례문화의 현대적 전승방안

죽음의 의례는 망자를 이승에서 저승으로 마지막 떠나보내는 의례이지만, 오히려 살아있는 자에게 삶의 의미를 다시 확인시켜 주는 의례이다. 따라서 죽음을 통해 삶을 확인하는 과정이란 점에서, 죽음의 의식이지만 삶의 의식이다. 이것은 죽음이란 비극적 상황에서 망자를 중심으로 살아 있는 자들이 상호 의존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그리고 집단적 참여 과정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언젠가 다가올 죽음을 기꺼이 수용하는 사전학습의 장이 된다. 또한 현실적 삶의 아픔과 고통을 집단이 공유하면서 다같이 풀어내는 집단적 정화의식의 과정이다. 이런 점에서 죽음의 의례는 삶을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생명력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죽음의 의례인 상례문화는 어느 민족이든지 매우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그러나 우리의 상례는 근래에 급격한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장례식장이 일반화되고 각종 상조회가 생기면서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 특히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어 가면서 매장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각종 의식, 운구, 매장법 등이 모두 보기 힘들어졌고, 앞으로 어느 시점에서는 소멸될 가능성도 있다. 마을상여는 대부분 사라졌고, 상여 운구 과정의 상여소리는 꽃상여로 대치되어 일부 남아있지만, 회다지는 포클레인의 등장으로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가문이나 마을 주민 중심의 상례에서 이제는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거나, 모든 장례 관련 물품을 구입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상례에 대한 관심은 갈수록 줄어드는 실정에 있다. 또한 가풍에 의한 다양한 상례문화가 이제는 점점 획일화, 일원화되어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전통적 상례문화는 점차 옛 유물처럼 인식되어 가고 있다.

전통적 일생의례 중에 상례는 현대인에게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우쳐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데 지역문화 전승현장에서 상례에 대한 전시공간을 찾아보기는 극히 어렵다. 그리고 이것의 문화사적 의미를 알리는 교육공간도 없다. 그리고 초

혼, 발인제, 노제 등도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전통적 상복은 사진 속에서만 볼 수 있다.

기존에 발간된 『청양의 민요』에는 장례의식요가 이미 조사되어 있다. 여기에는 상여소리 10편, 회다지소리 5편이 수록[52]되어 있다. 근래에 전통적 상여가 사라지고, 일부 꽃상여에 의해 상여소리는 맹맥을 이어가고 있다. 따라서 갈수록 장례의식요는 소멸되고, 전통적 상여는 거의 사라졌다.

이를 위해 지금이라도 청양 지역에 대한 매장과 화장문화의 실태, 전통적 상여의 존재 여부, 상여소리를 전승하는 선소리꾼의 실태 등을 시급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특정 마을에 대해 전통 상례 전승 마을을 지정하고, 기능이 우수한 상여소리 선소리꾼을 뽑아 장례의식요 전승자로 선정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사라져가는 전통적 상례문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및 교육공간의 조성도 시급하다. 오히려 상례를 포함해 혼례, 제례, 출생의례, 잔치문화 등의 일생의례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관으로 확대해도 좋다.

범위를 더 넓혀서 청양민속박물관의 건립도 고려해 볼 만하다. 기존에 청양은 장승과 마을신앙 위주로 특성화되어 있지

52)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청양의 민요』, 청양문화원, 2004.11.

만, 장승공원 이외에는 변변한 전시관이나 박물관은 없는 실정이다.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청양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문화공간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기존에 청양문화원에서는 2002년부터 해마다 민속조사를 실시하여, 수십건의 다양한 분야의 조사보고서가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사진과 영상, 음향자료 등을 확보하여 전시하는, 가칭 '청양민속박물관'의 건립을 적극 고려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는 청양의 생업(농업, 수공업, 광업, 상업, 5일장, 임업, 수렵, 어업), 세시풍속(명절과 1-12월 세시), 민간신앙(마을신앙, 가신신앙, 무속신앙, 풍수와 점복, 길조와 흉조), 일생의례(혼례, 상례, 제례, 출산의례), 민요(노동요, 의식요, 유희요), 의식주(복식, 음식, 전통가옥), 민속놀이(어린이놀이, 성인놀이, 전통놀이와 현대놀이), 각종 생활도구와 공예 등을 망라한다. 이것은 청양의 지역적 전통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며, 청양인의 지역적 정체성를 확인하는 장이 될 것이다. 또한 외지인에게 청양의 문화를 알리는 중요한 홍보공간이 될 것이다.

[청양군 상례의 조사대상자]

(1) 2020년 조사 대상자

이찬연(남, 1961년생, 2대 장의사, 장례지도사, 청양 읍내리 출생), 청양읍내 자택, 2020.10.12. 정형호 조사.
안연길(남, 1950년생, 송학리 출생, 장승제작자), 정산면 송학리 자택, 2020.10.11. 정형호 조사.

(2) 2003년 『청양의 관혼상제와 풍수』 조사대상자(가나다 순)

김석환(남, 당시 70세, 운곡면 위라리, 10 거주, 지관), 2003.7.9., 성시우 조사.
김종환(남, 당시 76세, 대치면 개곡리), 2003.7.8., 성시우 조사.
김지영(남, 당시 63세, 청남면 천내리, 17대 거주), 2003.7.11., 성시우 조사.
이용희(남, 당시 73세, 비봉면 중묵리), 2001.7.29., 홍정모, 김선숙 조사.
소사영(남, 당시 70세, 청남면 천내리, 10대 거주), 2003.7.11., 성시우 조사.
신영구(남, 당시 64세, 화성면 기덕리, 7대 거주) 2003.7.10., 정형호, 김승유 조사.
최창호(남, 당시 67세, 남양면 매곡리1구, 5대 거주), 2003.7.25., 정형호, 서종원 조사.
최홍희(남, 당시 72세, 남양면 매곡리, 6대 거주), 2003.7.10., 성시우 조사.
최재만(남, 당시 78세, 대치면 농소리) 2003.7.8., 정형호, 김승유 조사.

[참고문헌]

『사례편람(四禮便覽)』
『성리대전』
『수서』
『주자가례(朱子家禮)』
『중용』

『새로운 세계의 길잡이, 꼭두를 만나다』, 서울꼭두박물관.
임동권, 정형호, 임장혁, 『칠갑문화 11호 –청양의 민속』, 청양문화원, 2001.11.
_____, 『청양의 관혼상제와 풍수』, 청양문화원, 2003.11.
_____, 『청양의 민요』, 청양문화원, 2004.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1991.
『한국문화상징사전』 1–2권, 동아출판사, 1992–1996.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8.
『한국향토문화대전』 –전남 영암편,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미래, 「사십구재」,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10.
김시덕, 『한국의 상례문화』, 민속원, 2012.
박종민, 「상여 상징물의 표현양식과 상징적 의미」, 『민속학연구』 20호, 국립민속박물관, 2007.6.
신월균, 「풍수지리사상」, 민속학회 편 『한국의 민속사상』, 집문당, 1996.10.
이철영, 『유교 상례의 이해』, 해조음, 2020.4.
이현경, 「삶과 죽음의 경계, 상여 장식물의 이중적 구조」, 『민속학연구』 25호, 국립민속박물관, 2009.12.
임장혁, 오세원, 「장례에 있어서 부정과 공동체의 대응 –충청남도 사례를 중심으로」, 『남도민속연구』 19호, 남도민속학회, 2009.
임재해, 『전통상례』, 대원사, 1990.10.
임재해, 「장례 관련 놀이의 반의례적 성격과 성의 생명상징」, 『비교민속학』 12권, 비교민속학회, 1995.
장철수, 『한국의 관혼상제』, 집문당, 1997.5.
정형호, 「귀신을 통한 금오신화의 고찰」, 『현산 김종훈 박사 회갑기념논문집』, 1991.9.
정형호, 『닭띠 –12띠의 민속과 상징』, 국학자료원, 1999.2,
정형호, 『바위절마을 호상놀이』, 서울특별시, 2018.6.
진성기, 『탐라의 신화』, 평범사, 1980.

청양인의 人生의례 (비매품)

집 필 임 장 혁 / 중앙대학교 교수
정 형 호 /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
서 종 원 / 도봉학연구소 부소장
인 쇄 2020년 12월 10일
발 행 2020년 12월 10일
발 행 인 임 호 빈
발 행 처 청양문화원
충청남도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29
전 화 041-943-4774
팩 스 041-944-1030
홈페이지 www.cnkccf.or.kr/cheongyang.do
편집·인쇄 태웅그래픽 (02-2265-9948)

• 이 책은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지원으로 발간되었습니다.
* 무단복제나 복사를 금합니다.

青陽文化院